

건축사

2000 **08** vol. 376

칼럼 _____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김응상 위원장 귀하

작품리뷰 _____ 필당

작품노트 _____ 분당주택

법령 _____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1)



차례 2000 08 376호



필당(정현화작)

발행인: 이의구
 편집인: 서천식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y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 / 천동진인쇄
 광고: (주)아루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Soo, Yoo Won-Jai, Cho Hyun-Ge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김응상 위원장 귀하	이왕기	14
작품리뷰 / 필당		정현화	16
	대담: 도시주택의 리얼리즘	이상해	27
	비평: 우리시대의 한옥	만현식	36
회원작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박재평	42
	김천문화예술회관	신 훈	46
	상린재	송광설	50
	일산아파트형 공장	정종영	54
	대덕어린이집	윤덕찬	58
	서울석관우체국	이광만 · 윤홍노	62
작품노트	분당주택	허서구	64
기고	웅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강용근	68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름계절학기 참관기	유원재	70
건축만평		유원재	73
건축마당	협회소식		74
	건축계소식		77
	해외잡지동향		82
	법령(도시계획법시행령)		88
	계획작품		98
	현상설계		100
	통계(2000년도 6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2
	회원현황		106

Column

Dear Mr. Chairman, Union of Architects of DPR of Korea	Lee Wang-Kee	14
Review / Pildang	Chung Hyun-Hwa	16
interview The realism of Urban Housing	Lee Sang-Hae	27
critique A Very Korean House of Our Time	Min Hyun-Sik	36

Works

Kangseo-gu Office	Park Jae-Pyoung	42
Kimchon Art & Culture Center	Shine Hoon	46
Sanglinjae	Song Kwang-Sub	50
Flared Factory Building, Ilsan	Jung Jong-Young	54
Daedeok Children's House	Yoon Deok-Chan	58
Seokgwan Post Office	Lee Kwang-Man & Yoon Hong-No	62

Design Note

Bundang Residence	Heo Seo-Goo	64
-------------------	-------------	----

Feature

On Insuring Safety of The Breast Wall	Kang Yong-Gaun	68
An Essay on The Visit to The Summer School Offered at Yan Bian	Yoo Won-Jai	70

Cartoon

	Yoo Won-Jai	73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74
Archi-Net	77
Overseas Journal	82
Laws & Ordinances	88
Process Work	98
Competition	100
Statistics	102
Members	10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3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6244 · 구로구건축사회/864-6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8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3-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9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46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도봉구건축사회/930-6720 · 청동구건축사회/292-56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양지역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8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25)335-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6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951-156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4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5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5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0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5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006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9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35)883-4672
- 제주도건축사회/(064)72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1)33-5501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김웅상 위원장 귀하

Dear Mr. Chairman, Union of Architects of DPR of Korea

이왕기 / 목원대학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Lee Wang-Kee

김웅상 위원장님, 지난 6월 13일 우리는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50년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두 정상은 단숨에 만나고 말았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소리 높여 울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움에 지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리운 마음조차 타버려 재만 남은 사람들만 가족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이산가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그곳의 건축사정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곳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건설업이 개방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과 건축설계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서울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축교육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 평양의 건설건재대학 건축학과는 이미 1950년대부터 5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이제야 5년제를 하려고 부산합니다. 4년제를 졸업한 건축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5년제로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곳의 모든 학교 건축학과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그곳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인식이 이곳과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굉장하지요. 중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당위원을 겸직하고, 또한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가의 지위가 그 정도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께서는 남한의 건설교통부장관 보다 지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건축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건축관련 단체가 3개나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김 위원장님과 같은 예우를 받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건축가가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거나 건설부의 수장을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건설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건축가가 직접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건축관련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축가는 기껏해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더구나 전 건축가동맹중앙위원장이었던 고 김정희 선생의 '평양복구계획도'와 선생이 생전에 쓰던 '설계용구'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건축가에 대한 예우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들은 얘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1992년에는 '건축예술론'을 저술하여 건축가들에게 지침을 주기도 하였지요? 김 국방위원장께서는 일찍부

터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적 측면에서 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상이 그 정도로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에 퇴폐적인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축도 많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김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이곳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토가 온통 건축물로 꽉 채워져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곳은 여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지난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이산가족 상봉도 곧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고,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의 건축인들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내친김에 건축인들이 만나야하는 핑계와 해야할 일들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건축용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서로 교류를 끊고 지내오다 보니 적잖게 서로 다른 건축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문이던 가장 기본은 용어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문화를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축의 발전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용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건축인들끼리 서로 상대지역의 건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건축은 다른 학문과 달리 현상적입니다. 보지 않고 말이나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적에 두고도 서로의 건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 건축을 “체제를 과시하는 건축”, “착취적이고, 반동적인 퇴폐건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텐데 만나기도 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상호 건축기술 교류를 통하여 서로 선진기술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건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철근콘크리트로 105층을 설계, 시공한 경험으로 미루어 그곳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때 소련과 교류를 통하여 한대(寒帶)지방 콘크리트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부분에서 기계화, 규격화가 되어 있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교류를 통해 주고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학술교류와 답사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역사적 건축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북쪽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쪽 중심의 건축 역사를 공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쪽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역사분야의 용어도 서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만나서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방이후 지금까지 많은 건축문화재를 복원·수리하면서 기술도 많이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문화재기술도 교류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님, 만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건축인들이 서로 왕래하거나 일정기간 머물면서 교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 교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 네 번째 항목을 되새겨봅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에서 남북건축이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장관들이 만났고, 이산가족상봉과 직통전화도 다시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북의 건축계가 만날 차례입니다.

김용상 위원장님, 상면한 적은 없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일찍이 일본에서 건축공부를 하시고, 해방과 더불어 고향 평양에 돌아가 국가건설에 전심전력으로 이바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적으로 남북 건축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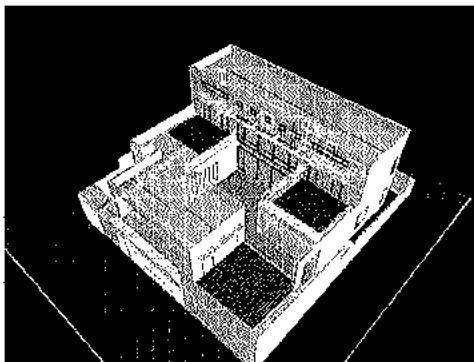
김 위원장께서 연로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우리 함께 만나길 기원합니다. 김용상 위원장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囑

Pildang

정현화 / (주)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Hyun-Hwa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330.7㎡
건축면적	160.31㎡
연면적	299.26㎡(주차장40㎡포함)
건폐율	48.49%
용적률	64.86%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내부마감	물탈, 벽지, 락카스프레이
외부마감	외벽 - 실리콘 플라스터 창호 - 불소수지도장 알루미늄바+①16컬러복층 유리
주차대수	지붕 - 철근콘크리트 평지붕(일부 통자갈깔기) 2대
설계담당	박종성, 임영수, 유재권



Pildang lies in the quarter of a housing restricted area, which is actually hard to find in the city, and has been completed as the 'bowl of our family'. When imagined on a canvas, this house is inter-related with the urban layer of Kangnam and silhouettes of high-rise buildings on Teheran Boulevard forms a far view on the southern part.

When encountered with this project of designing a house, the word 'family' first came to mind. I scrutinized more on the 'relations of a family' rather than just a family. How was I going to configure the adequate privacy and communication of those who bears all with each other? By placing the independent areas of the family as far away with each other as possible, a relatively long pathway was placed. And accordingly a route that is connected by the senses of the eyes, ear, and skin was placed. At points along the long pathway areas were formed, in which members of the family could gather.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is house is that activity starts from the ring of eating together. The table becomes the central area of the family life, and one who controls it becomes the main existence of the family. The room where the table lies becomes the unobjective space of the family, as the dae-chung, and naturally diverse family activities occur. At the center of this house is a table and the room generally called the living-room, where the television set is the center, was excluded.

At a time where we live in a generalized multi-housing complex, called apartments, basic memories of houses, we possess at the corner of our mind are disappearing. Memories of a house would be memories of generosity which could be said to be benevolent - memories of places, memories of size, memories of height and memories of status. It would be the mental traces that lie in our houses of the near past where we were born and grew up, not memories of colorful forms. Though the site lies in a narrow urban setting I tried to gather the scattered traces of these memories. I tried to excavate the memories of status, memories of the once well known places and the family activities that occurred there, the disappeared scale of a house, the porch, the toilets, and the sarang-bang. This status could be in the memories of details that have been slightly altered in atmosphere, size, height, and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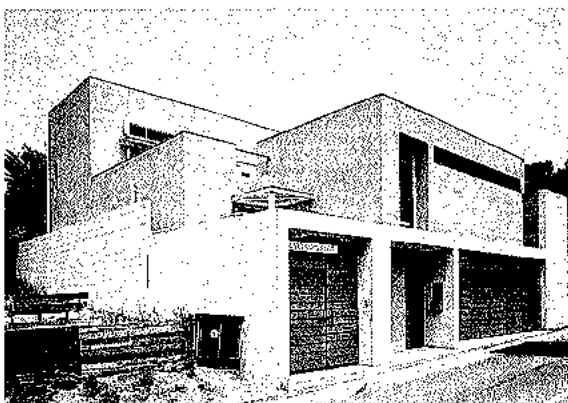
I tried to complete the house thoroughly functionally and rationally. Can't a house with formations of



mass by constant proportions, economically conservative planning, rightly placed functions, restrained details, exact opening and closing, simplified material, line and colors be made? I wished to make a house that were loyal to these values of modernism. And at the same time, with a method of making people moved. What are those in our memories with traces of things that remain ours? Places of emptiness, interpenetration of adjacent inner and outer space, the feeling when you step on earth, the image of the Korean way of living, these were meant to be rediscovered. These discoveries would be the essence of our post-modernism.

It is hard to expect an urban opening on the ground level in this part of the city. The wall was architecturally used as a part of the house and simultaneously a part of it was used as an outer skin to define the area of the house. An open space with visible skin were placed in the inner side. By maintaining natural elements as light, wind, and the sky in the inner side, the totally enclosed setting by the outer skins were somewhat compensated with this inner openness. There is no significance in the outer side of this house except for that the house is totally surrounded. But once inside there are places with unique inner skins. Urban openness is maintained from the terrace on the second floor, where an urban facade made by the sky-scrapers far away is formed. This would be one way of opening in an urban house.

The opening to the sky is placed in the center by the ma-dang and is surrounded by the spaces of each room. In addition to this vertical opening a horizontal opening was added. This enables the flow of space to another ma-dang which is connected to both the an-bang and the sarang-bang. The two ma-dangs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ave different heights enabling the two to be connected horizontally. The sarang-bang partly sitting on the garage naturally



becomes heightened from the middle ma-dang thus giving the feel of a lu-maru. The two ma-dangs with different height are independent yet at the same time breathing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slit the morning sunlight penetrates into the ma-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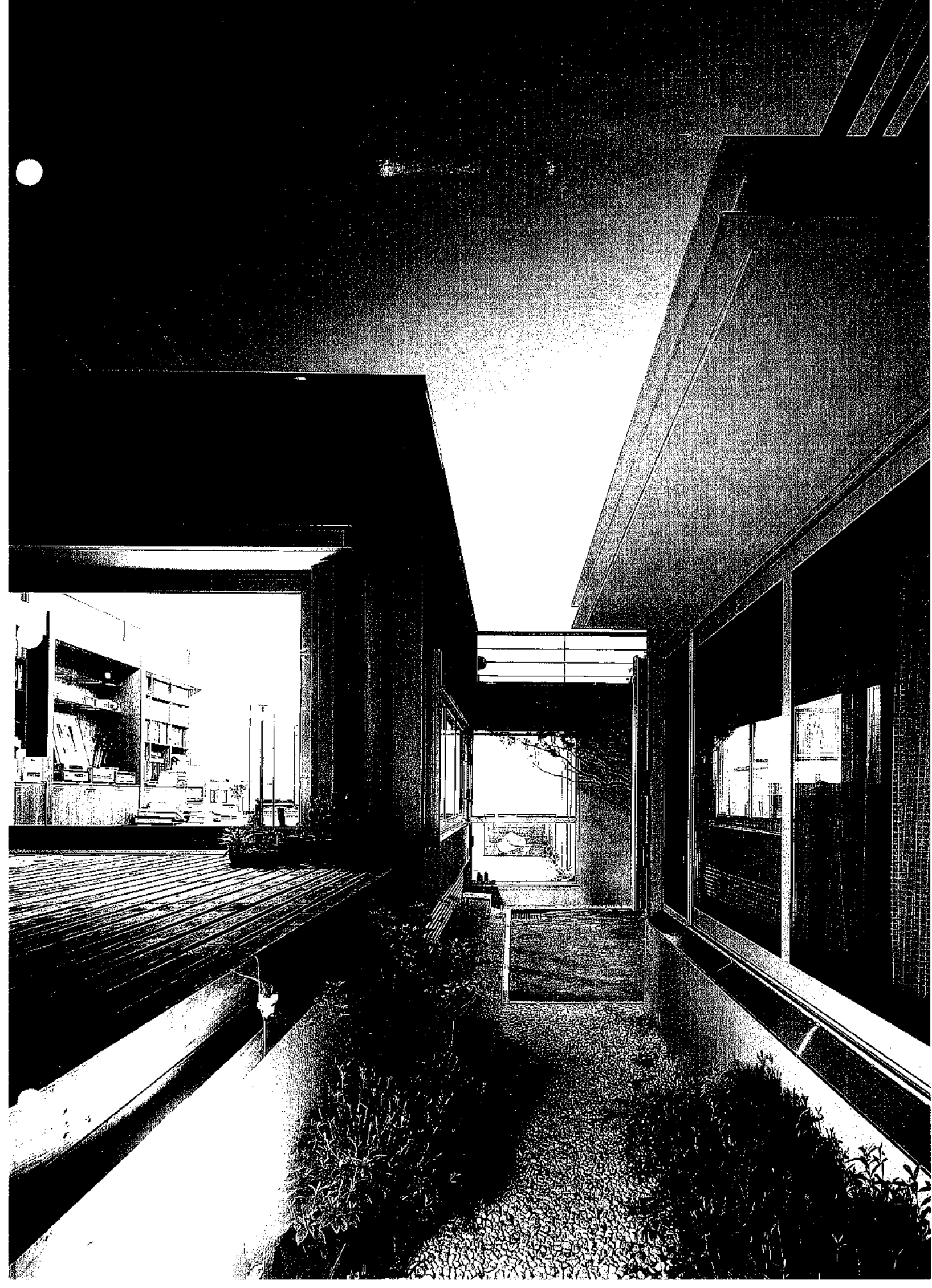
Through the two ma-dangs and the sarang-bang located on the south, the inner and outer spaces have a double-layered space and interfere with each other rendering diverse inner and outer space penetrations. Through this type of double-layered penetration and change according to time, the aspects of spatial give and take changes divers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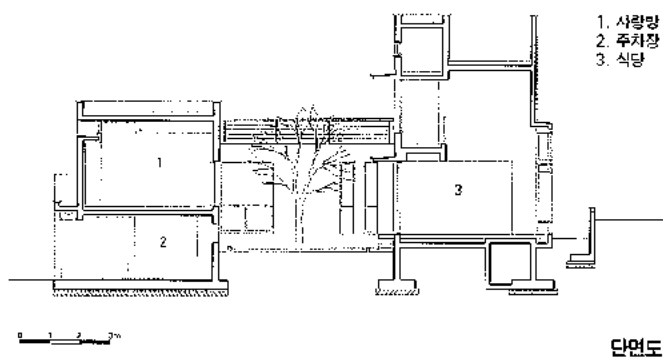
The square ma-dang has no decorations at all. I wished to leave it as an empty space with that familiar color of sand. Then a tree is planted. A tree that starts a conversation with people, a tree that could be seen from every point of the house, a tree with red flowers and small leaves, this type of tree was planted. In this empty ma-dang this one particular tree changes. It looks different every season and gently touches the heart of those living. The open space of the inner space is a white space composed only of perpendicular lines and there lies an artistic work by architect Yoo Won-jae. The mobile slowly mov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mperature and plots soothing shadows on the whit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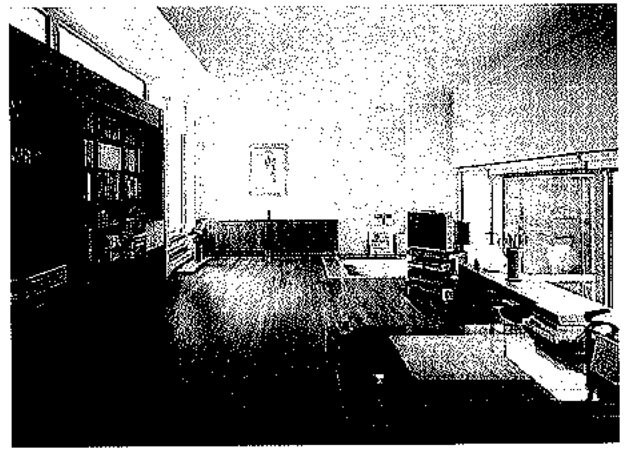
These two objects, the tree and the mobile, gives a face to this restrained house and a rhythm, thus enabling one to feel the unique life of thi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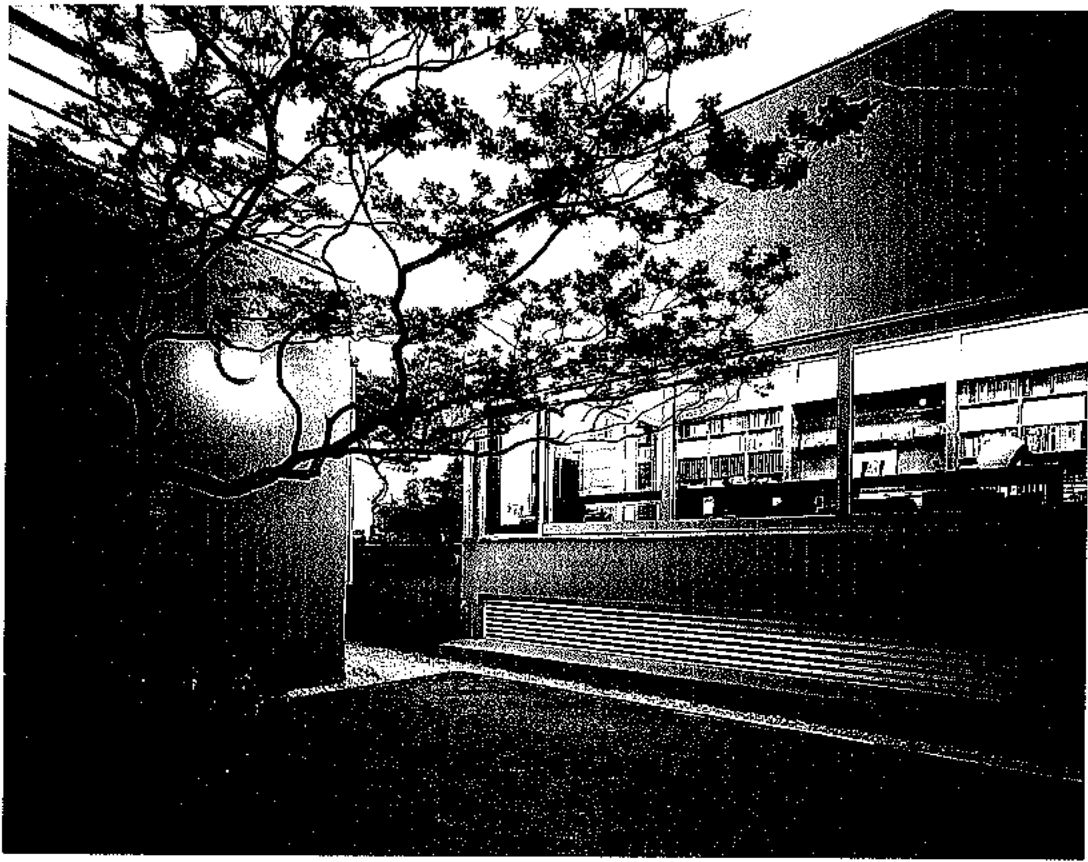
Now 'A family bowl' where the precious stories of our family are made and gathered has been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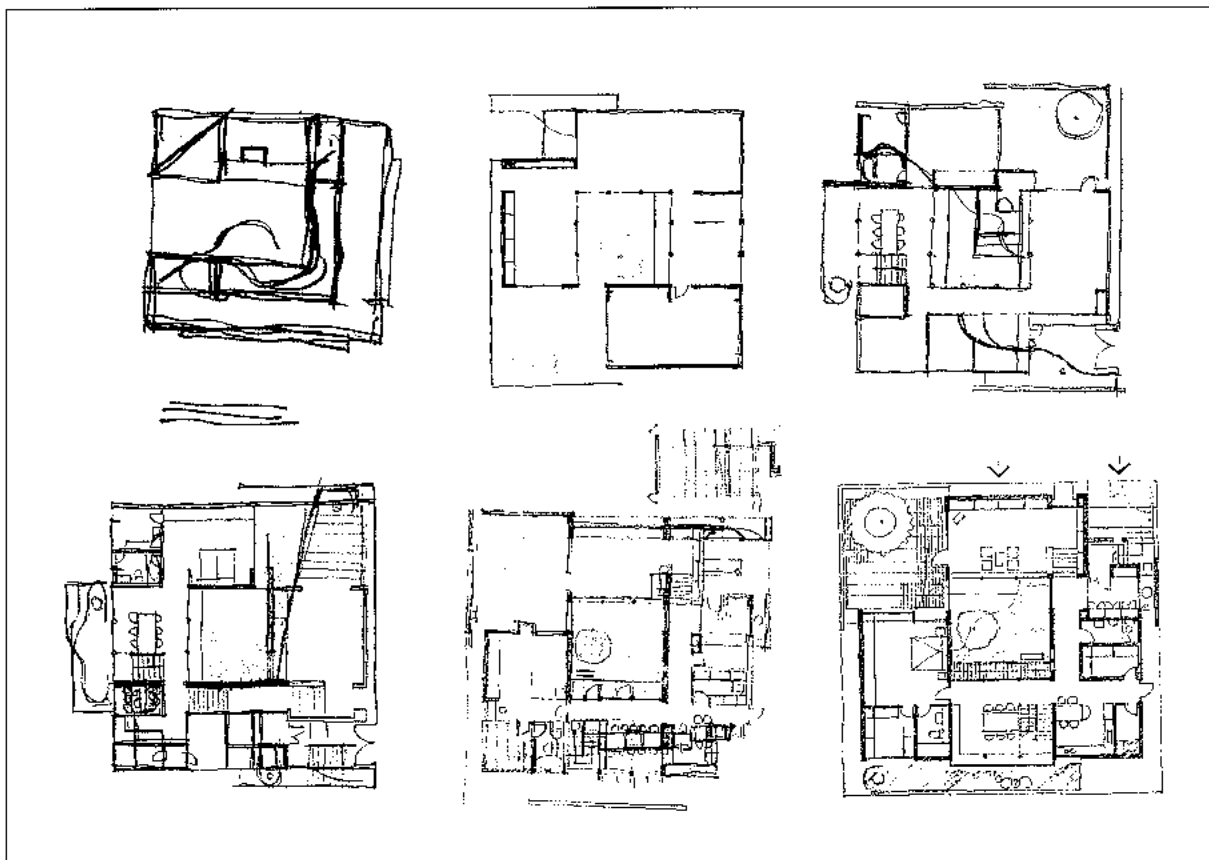
Location	Yuksam-dong, Kangnag-gu, Seoul
Area	Classification Housing Restricted Area
Site Area	330.7m ²
Building Area	160.31m ²
Total Floor Area	299.26m ² (including 40m ² parking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48.49%
Gross Floor Ratio	64.86%
Size	1 story underground, 2 stories over ground
Structure	Reinforce Concrete Wall
Interior Finishing	Mortar, Wall Paper, Lacker Spray Paint
Exterior Finishing	Exterior Walls-Silicon Plaster Window and Frames-Flourine Resin Painted Aluminum Bar + 16 Color Double Layer Glass Roofing-Reinforced Concrete Flat Roof (Partly covered with pebbles)
Parking Capacity	2
Design Team	Park Jong-Sung, Lim Young-Su, Yoo Jae-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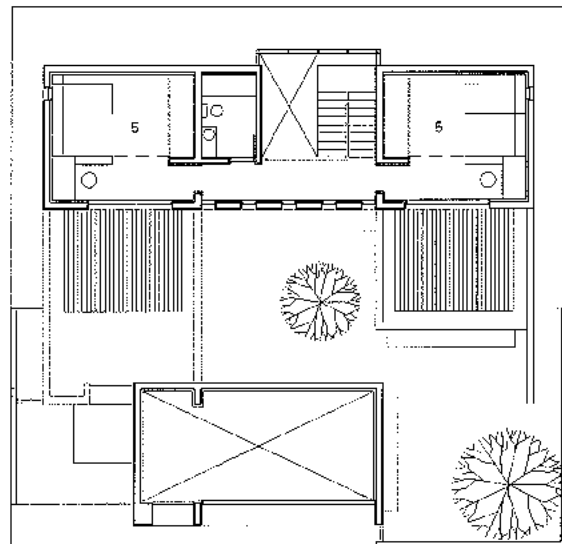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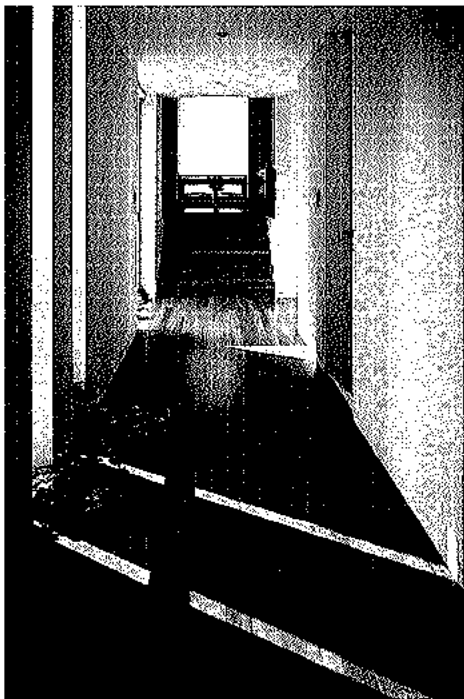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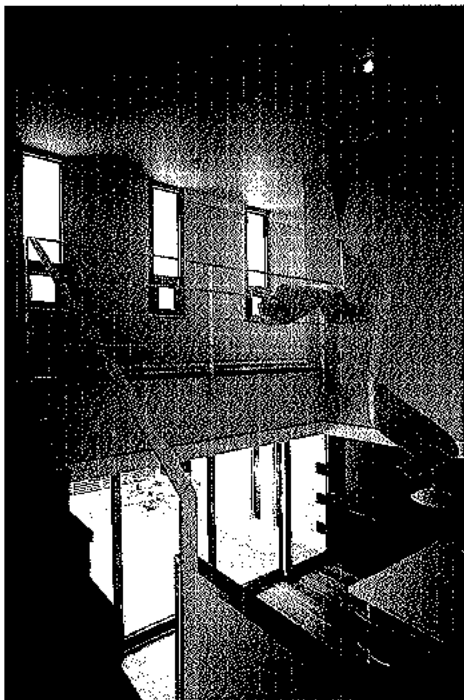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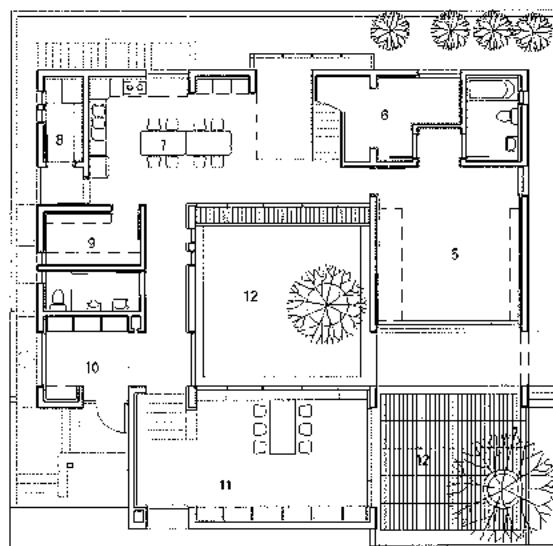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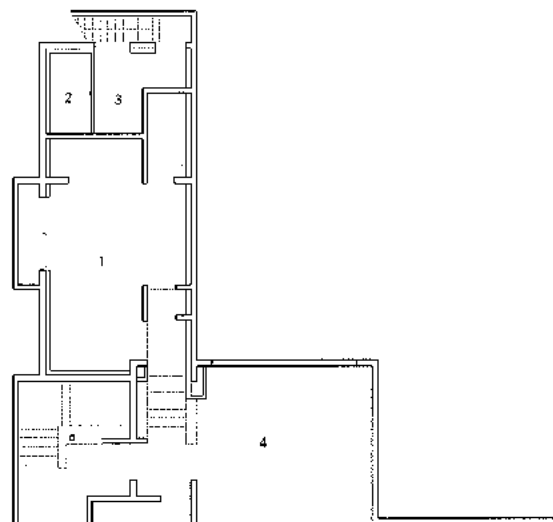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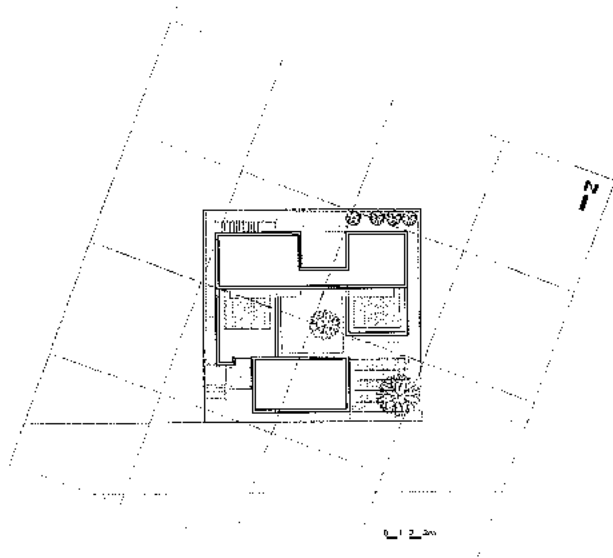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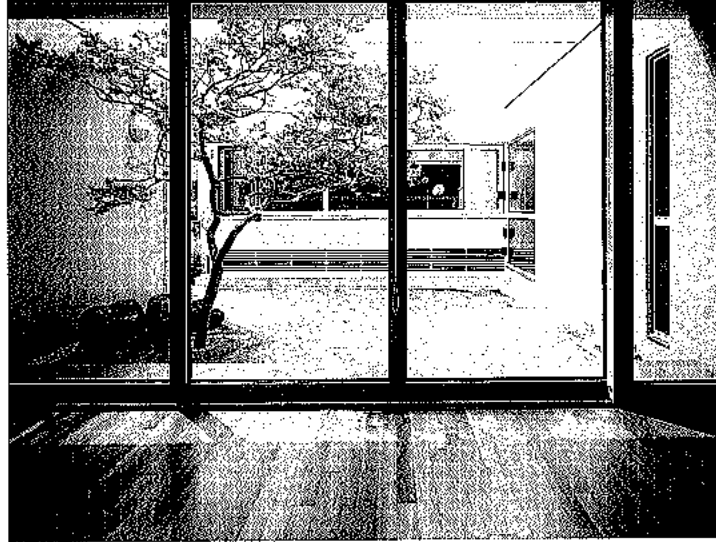


0 1 2 3m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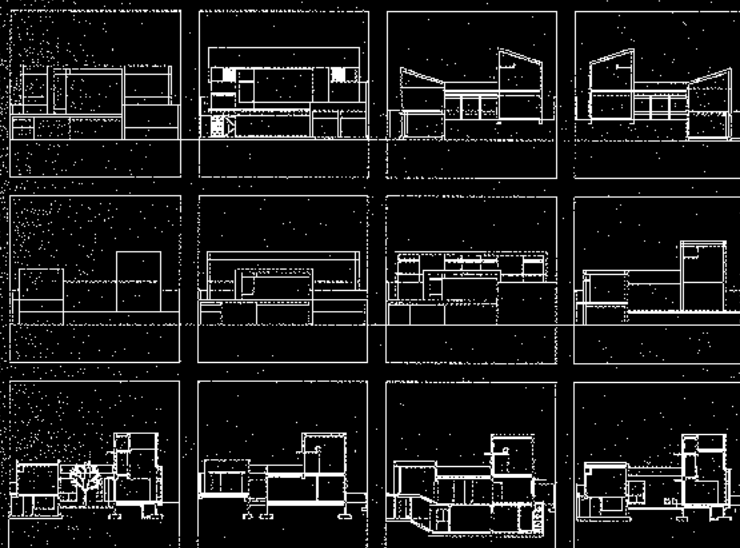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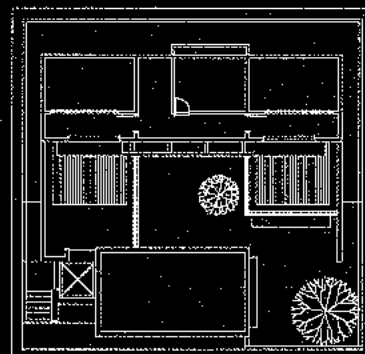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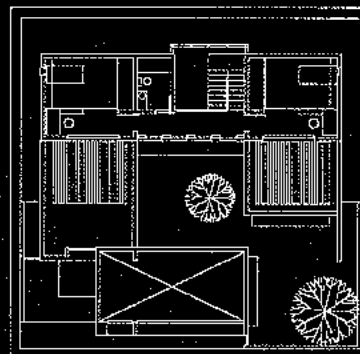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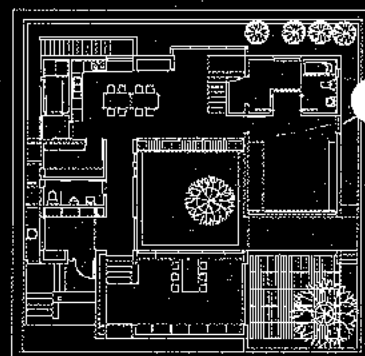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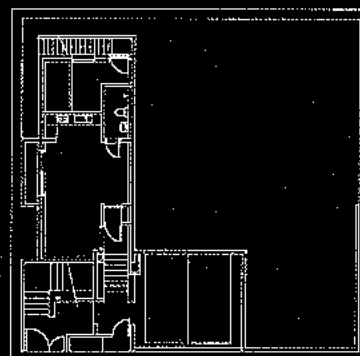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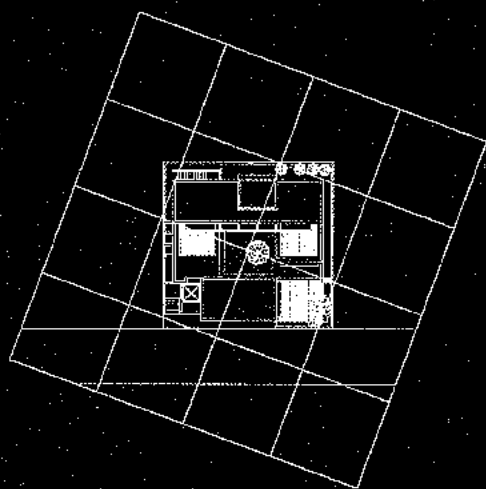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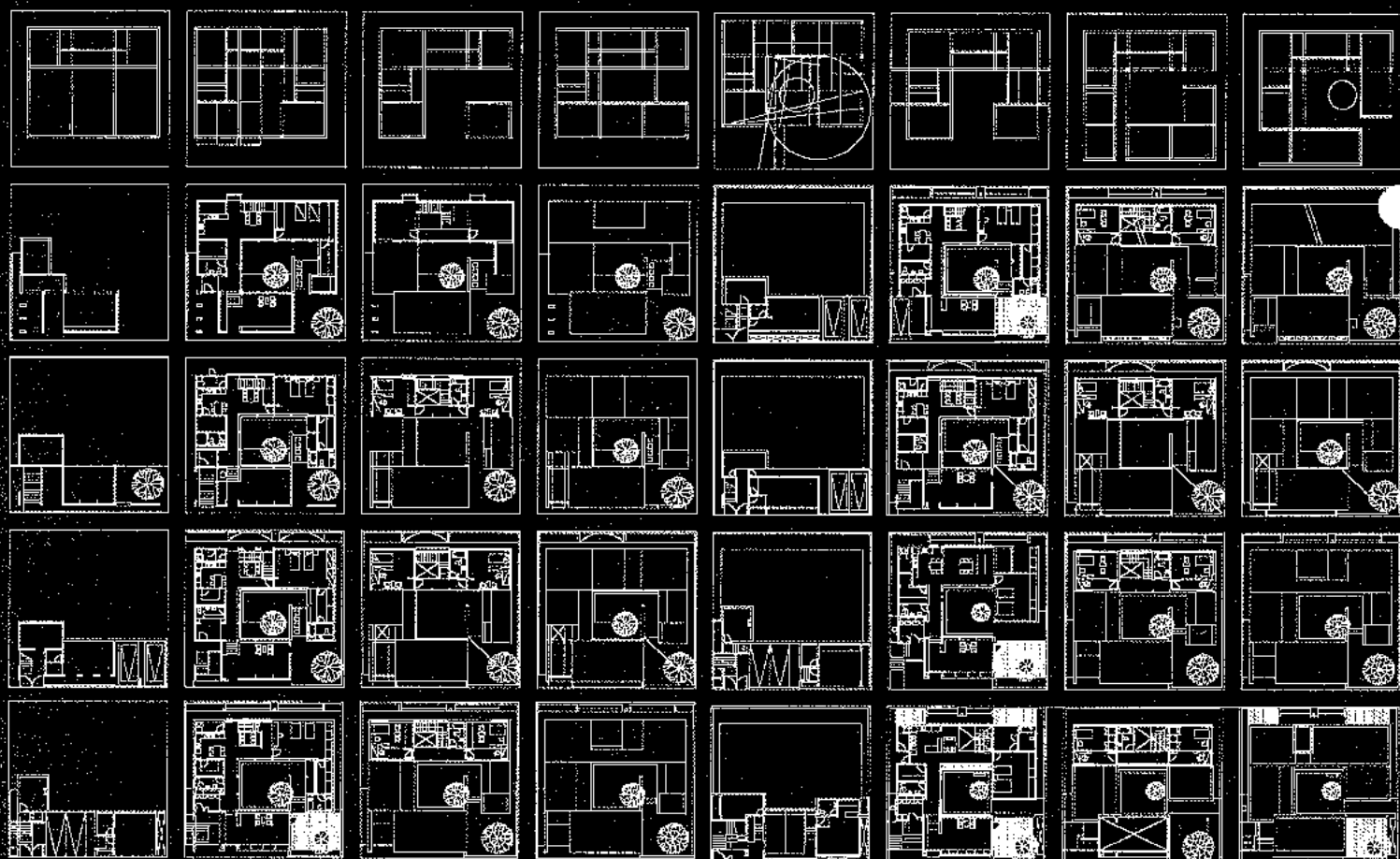


배치도



1. 서재
2. 물탱크실
3. 보일러실
4. 주차장
5. 방
6. 옷방
7. 식당
8. 다용도실
9. 창고
10. 현관
11. 사랑방
12. 마당





도시주택의 리얼리즘 - 기억, 장소 그리고 한정된 자연 - The Realism of Urban Housing ; Memorial, Place and Restricted Nature

건축사 / 정현화(주), 원도시건축)
대담자 /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8월 7일(월)
장소 / <필당>내 사랑방

이상해___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현화___주택이란 역시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우리네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 유교적 대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점점 새로운 시대로 바뀌면서 그 구성이나 관계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택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내재했던 가족관계의 재발견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가족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있고, 그 밑에 종속된 구성원들의 관계가 가족의 정의였다면, 앞으로는 가족이 평등한 상태에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평면의 L.D.K 개념은 단란, 가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가족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게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도 그런 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해___가정이라는 것, 혹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틀 속에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대가 다름에 따라서 집의 모습도 혹은 집에 담는 내용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우리의 주거의 내용이 잘못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집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주거에 영



대담장경 (왼쪽:이상해, 오른쪽:정현화)

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의 등장일 것입니다. 아파트의 기본틀, 예를들면 L.D.K 개념은 일본의 전후의 소주택 정비의 한 방법으로 나온 것인데, 여과없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주거에 도입되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족생활들을 아파트공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 가족 특유의 개성적 장소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집은 그런 우리 가족의 틀에 맞는 고유의 그릇으로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해___다르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해결이 어려운 주거형식을 단독주택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단독주택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화___아파트의 결점을 어느 정도 느끼고,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주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가,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해___그러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에서의 평면 구성, 형식, 내용 등 평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문제, 이것은 물론 도시내의 필지에 주택이 어떻게 앉혀져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특히 도시형 주택에서 배치방식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내 주거가 어떻게 되어가야 할 것인가, 또 그 속에 실 배치방식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은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내의 주거, 혹은 도심지 주거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집을 설계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지난 5월호 건축사지에 글을 쓰면서 '서울 사막의 마야'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도시주거가 설 땅이 없어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여러 잡지에 발표되는 집들이 대개 전원주택인데, 이 집은 도심지에 전형적인 100평 정도의 땅을 갖고있는 도시주택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에서의 열림과 자연에 대한 견해가 배치계획상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대개 전원주택은 주택이 안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열림을 갖고 또 어느 한계까지 자연을 끌어들이느냐는 것이 과제이지만, 도심주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상하고, 또 극히 좁은 환경에서 한정된 자연적 요소를 어디까지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배치방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___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많은 도심형 주택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그 뒤에 건물이 있는 양식입니다. 이런 필당과 같은 배치형식은 결국 그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자연을 새롭게 주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정이라든지, 방의 배치라든지, 혹은 L.D.K 등과 다른 형식의 배치를 설정하여 실제 생활속에서 방들이 이용되는 형식으로 이어져나가는 것이 이 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도심지 형태로 제한하고, 구성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떻게보면 과거의 우리가 갖고 있던 주거형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유지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최동 주택이라든지, 우암리 이씨 종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안채와 사랑채의 L자형구성이 모여 입구(口)자형 평면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마당이 생긴 것 같이, 재발견의 입장에서 평면의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갖고 있는 장소나 공간은 거기에서 크게 변함없습니다. 그 쪽은 땅이 넓기 때문에 행랑채, 사랑채, 안채, 부엌, 대청 등이 수평적으로 열려있는데 대해서, 이 집은 좁은 땅이므로 안채와 사랑채는 지표층에 배치하고, 건너방을 2층으로, 행랑채를 지하에 배치시키면서 최소한의 마당이란 장소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은 과거에 있던 주택의 공간구성을 현대적으로 디포메이션 내지는 재발견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형태적인 제안보다는 우리가 갖고있던 주택의 장소적 기억들을 다시 찾아보고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보고 싶습니다.

이상해___ 특히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형식을 연상시키는 점도 물론 크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지가 평지가 아닌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형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현화___ 이 대지는 테헤란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청계산이 내다보이는 양질의 주거지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18미터각의 남사면의 대지로 북쪽으로 2미터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인 2미터의 고저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포인트로 마지막까지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들면서 약간의 높이차가 생겨 사랑방이 누마루처럼 공간적으로 떠오르게 된 점 등입니다.

이상해___ 그러니까 약간 높은 사랑채는 앉아서 생활하고, 떨어져있는 부엌에서는 입식으로 생활하게 해서 시선높이를 비슷하게 맞춘 것은 집 전체의 공간이용이나 관계에서도 바닥높이는 다르면서 생활하는 눈의 높이는 비슷하게 한 점이 상당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정현화___ 처음부터 사랑방에는 소파를 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랑채의 창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사랑채에 좌식으로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높이에 눈높이를 정했는데, 중정을 통해서 입식의 안채의 시선의 높이와 같게 뒀습니다. 중정을 마주보면서 대향하고 있는 두 개의 공간이 상부에서는 차이가 없고, 하부에서 차이가 생겨 시선의 높이가 비슷하게 된 것은 시선의 흐름면에서 잘 정리가 되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해___평면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 고대의 정전법(井田法)이 한정된 필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집이 전(田)자형에서 출발하면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전자형 형식을 취하면서 서 가운데는 비워놓고, 또 틈어진 부분도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형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

정현화___18미터×18미터 땅에다 중간에 열린공간을 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정(井)자형 평면이 효율적인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중점으로는 너무 폐쇄적인 마당이 아닌가해서 동쪽으로 레벨차가 있는 또 하나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정(井)자 평면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서로 연결되는 슬릿(slit)을 두었습니다. 이 집에는 고저차가 있는 두 개의 마당과 두 개의 2층 테라스를 합해 4개의 마당이 있습니다. 각각의 높이를 달리하여 배치시키면서 정(井)자 평면이지만 내부로 대향하는 두면을 유리로 뚫고, 어떤 벽은 완전히 막고, 또 어떤 벽은 부분적으로 뚫어 집안에 들어와서 마당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井)자 평면이라는 형식을 공간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상세시키는 장치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해___우물정자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우물정자에서 벗어나는 형식이군요. 외부공간형식에서 보면 한옥도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빗겨서 봤을 때 집이 겹쳐지면서 그 사이로 하늘도 보이는 형식인데, 이 집도 현관에서부터 그런 형식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집 전체가 한번 보이고, 그러면서 공간이 열려지는 소위 공간들의 외부공간이 서로 관계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공간, 외부공간, 내부공간의 관계들이 즉 공간의 층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깊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건물의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의 공간을 갖게끔 한 것이 한국주택건축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해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이 한국의 도시주거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공간의 특성을 나름대로 느끼게 해주는 의미에서 설계과정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원래 출발은 굉장히 합리적인 디멘션(dimension)에 충실한 집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각 실의 크기, 폭, 오행의 비등 우물정자 평면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방들의 크기가 우물정자의 스케일로 느껴지지 않게, 어떤 방은 길고 그 긴 방들

이 마주보고, 또 어떤 방은 그것을 다시 분절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눈 부분 등이 있습니다. 18미터각의 땅에서 외형적인 조형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러한 디멘션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택으로서의 개성과 리듬을 찾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마당들이라든지, 마당사이의 관입이라든지, 마당에 서있는 한 그루 나무, 나무가 보이는 대향의 유리창, 창과 창이 마주보게 하며 실내, 실외로 이어지는 관입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간적 레이어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시간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만 인식 가능한 약간은 복잡한 공간적 레이어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해___이 집의 특성이 마당, 혹은 마당과 연계되어지는 실내와 마당과의 관계, 그리고 마당이 또 다른 마당으로 틈어지면서 연결되고, 혹은 마당에 있는 나무 한그루가 집 전체로(내부든 외부든)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이 집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입면적인 형태를 의식해서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들이 가지고 있는 방의 크기라든지 스케일은 고려되었겠지만, 길에서 지나가면서 보아도 이 집은 일상적인 집같은 형상 혹은 형태가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우리의 도심형주택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의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예를들어 생활면, 설비적, 기능적으로 편안함이 필요하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공간적,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적극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태를 위한 파사드디자인이나 디테일디자인에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안쓰면 안 쓸수록 좋은 집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은 고유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설계당시에 제작해본 모델에서는 그런 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택으로서의 편안한 분위기관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이 집의 디테일은 특별한 디테일 없이 소위 말하는 표준디테일만으로 거의 마감되었습니다.

이상해___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축적 처리 방식에 있어서 건전한 혹은 건실한 방식을 채택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소위 좋은 건축, 좋은 공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은 주택에 있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화___여태까지 건축을 공부해 오면서 디자인되지 않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중에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중정이라는 방식은 병원이라든지 연수원 등 여러 작품에서 사용하였습니다만, 특히 이 주택에서는 마당의 여백을 통한 공간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___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주택들, 혹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실의 관계들이 상당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안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집에서의 식당, 사랑방 등을 설계하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현대의 가정이나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최대한도로 지켜지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과거에 대청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었듯이, 식당이 가운데 온다는 것보다도 식사를 핑계로 하여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심적인 영역으로 외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대부분 식당이라고 말하는데,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무목적공간 또

는 불확정적공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청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재생시켜 불편했던 것을 현대적인 방법과 설비로 바꾸어 편리하게 하면서 주부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공간은 D.K에서 분리하여 완전히 별개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 규정시켰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는 공간을 거치지 않으면 각자의 개인공간으로 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층의 애들방은 보통의 공부방보다 넓게 만들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자고 또 친구가 왔을 때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 방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너무 열려있는데 대한 보상이죠.

이상해___옛날에 없던 주거형식 중에 하나가 요즘 얘기하는 거실인데, 상당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를 통해서 거실을 과감히 배제하고 사랑방을 만들었고, 옛날 대청적 성격을 띠는 식당, 그리고 애들방도 문만 열고 들어가면 자기공간이 되는 아파트 침실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존의 우리 주거에서 특히 최근의 싼집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한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에서는 모든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띄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띄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실들은 또 자기의 고유한 위치에 독립되게 놓여진 형식이 이 집의 특색으로 보입니다.

정현화___각각의 방의 위치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면서 빛, 소리 등의 통로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로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소리가 1,2층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하여 사랑채에서 2층의 방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잘 소통되고 있습니다. 통로 축의 한가운데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매개로 하여 어느방에서나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상해___다르게 표현하자면 움직임이 다



보인다는 것인데, 특히 자녀들에게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현화____ 서로 다 보인다는 것은 적당한 레벨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방에서 사랑채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집안에서의 외로움이나 소외감, 또는 공포심 등을 해소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____ 이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요소가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가 집의 모든 생활공간 혹은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당시에 마당에 나무 한그루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나무의 변화를 보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정현화____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집을 완성하고 이 집이 저한테 건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마당에 있는 한그루의 배롱나무는 이 집에서 굉장한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대화도 엮어가지만, 나무가 있는 곳은 옥외공간인데 옥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며, 나무가 가족의 일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당쪽의 벽은 전부 장식 이 없는 열림과 닫힘만이 있는 사각형의 공간인데, 이 한그루의 나무조차 없다면 대단히 삭막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백의 마당이 사색의 여지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주택의 비움이라는 것은 비움 그 자체보다도 가족들에게 리듬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배롱나무, 내부에서는 네모 반듯한 공간에 리듬감을 준 계단실의 모빌 등 2개의 오브제였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눈물 때, 비올 때, 배롱나무가 꽃피었을 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 등 새벽에서 밤까지 느끼는 시간적 변화일 것입니다. 6미터각의 마당공간이 이렇게 풍경을 바꾸어주며, 시간의 변화를 그대로 느끼게 해 주는 장치가 될지 몰랐습니다. 설계하면서 입면도, 재료, 디테일 등을 열심히 생각하지만, 그런 장치로서의 건축보다도 오히려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들, 물을 준만큼 꽃을 피우고, 꽃이 피면 참새, 나비, 벌레들이 날아오는 등, 자연의 변화로 화답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의 형태나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수적인 존재 또는 상황이 주택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_ 그것이 건축의 부수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많은 건축가들이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요?

정현화____ 예, 그렇습니다. 현대주택에서 그러한 부수적인 존재가 주택으로서의 내력을 가꾸어 가는 기본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수적 존재에 때가 묻어가는 것들을 소중히 할 때 주거에 대한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_ 그런데 이 집이 현재 새집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는 공간의 신선함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 때가 묻고, 집을 가꾸어가면서 쌓인 연륜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사지에서 10년 뒤에 다시 한 번 취재해 볼만한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롱나무와의 관계를 앞서 말씀하셨지만,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던 의외의 현상들도 보입니까?

정현화____ 또 한가지 이 집이 저를 공부시켜 주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들어 빛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등 어느 정도는 계산적인 잣대로 모든 건축가들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외의 장면들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감동적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게 바로 자연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집에서도 빛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림자, 중정하늘에 수십마리의 잠자리가 날아 다니는 풍경, 흘러가는 구름, 떨어진 꽃잎 등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제일먼저 보는 것이 한정시킨 하늘입니다. 하늘이 갈을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건축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들의 스스로의 연출>이 감동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도시주택설계에서 그 한정된 자연적인 것을 소중히 찾아내는 노력이 전원주택설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묘미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이상해___도시에서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들, 혹은 자연과 접하는 방식 등등이 이 집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 후 가족간의 생활의 변화는 어느 것입니까

정현화___먼저 둘째딸애기부터 하면, 아파트에 살때는 집에 돌아오면 단지 집에 왔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 집에 와서는 '돌아와서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있을 때는 많은 시간 TV리모콘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고무신 신고 마당에 나가 흙을 밟고 다니며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찾아내고 합니다. 또 주부의 입장에서 주부의 불확정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스스로 발견해냅니다. 단순한 식탁이 아니고 식탁이 놓여있는 공간과 안방과의 영역을 묶어, 갇힌 안채라기 보다는 열린 안채로서 생각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횡수가 많게되었죠. 어떻게 보면 싸롱화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상해___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 집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지는 않습니까?

정현화___이 집은 외부에서 보면 흔히 보는 도시형 입구자 평면의 주택으로 모더니즘적 박스형의 집이라는 정도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내부를 본 일반인들한테 꽤 호평을 받았습니.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아! 라는 감탄사적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간의 오버랩이라든지, 한그루의 나무라든지, 여백의 마당이라든지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주거에 대한 기억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칸곡자 집, 입구자형의 평면집들은 흔히들 살아왔던 우리 주거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과거와 연관지어서 볼 때 잊어버렸던 기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또 현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활 속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인간들의 감성적인 것 등등인데, 도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집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어떻게 보면 그런 주거에 대한 기억을 되돌리는 것은 건축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역사 속에서 주택이란 누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러한 기억들을 재발견해서 공간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전원주택을 포함한 주택에서 뿐만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잊었던 주거에 대한 기억은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도 디멘션이라든지, 격이라든지 우리가 잊었던 주거의 기억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현관의 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관의 높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과거에는 뒤통을 밟고 마루에 올랐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15cm의 페널티팅 두께가 우리 현관의 턱을 규정하는 높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의 현관턱의 높이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상해___이 집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얼른 흘려버리면 못느낄 것인데, 유심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현관옆의 화장실 등 ...

정현화___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손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손님용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목욕탕에 있는 양변기가 고작입니다. 서양의 비즈니스 호텔의 목욕탕타일이 어느새 아파트의 화장실이 되어버리고, 주거의 전형적인 욕실형으로 정착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욕실만큼 가족의 프라이빗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손님들한테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채에 붙어서 독립된 손님용 화장실을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런 것들이 주거에 있어서의 격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그런 것들이 건축의 형태면에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주택에서 중요한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자체가 주택에 있어서 디테일 설계라고 봅니다. 디테일이라고 해서 화려한 재료와의 만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는 그런 잊혀가는 컴포넌트들을 재발견하는 자체가 디테일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그런 측면에서 방의 크기, 폭, 길이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면서 식당쪽으로 가는 길, 안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창호부분 등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 사랑방을 예로들면 4.5미터×7.6미터입니다. 그러나 관입된 옥외공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종방향으로 테라스를 건너서 벽까지 거의 12미터정도 되는 방이고, 횡방향으로 보면 중정, 식당까지 포함해서 15미터정도의 크기로 느끼게 됩니다. 이 방 크기를 아무도 4.5미터×7.6미터에 한정시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방뿐만 아니라 식당, 안방 등 옥내외로 시야가 띄어져 있다는 것이 그런 효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하나의 방 자체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자체의 크기보다 관입된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해___ 오히려 방자체의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싶을 때는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방향으로 띄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이 집이 각각 독립적인 혹은 방향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안방도 그렇고 사랑채도 그렇고...

정현화___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적에 대해, 시각적인 면적, 느낌으로서의 면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상해___ 재료는 어떻습니까?

정현화___ 노출콘크리트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벽돌을 한 장도 안 쓴 콘크리트조의 집입니다. 단열은 외단열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집이 물성을 안 갖는 재료, 처음에는 노출콘크리트에 흰페인트를 칠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좋은 재료를 발견해서 실리콘계 뿔철을

했습니다. 실리콘계열의 재료는 발수성분이 있고, 오염에 강하고, 물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누수나 오염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외벽을 흰색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해 줄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흰 집이니까 물에 의한 오염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후레싱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이상해___ 이 집을 지을 때 하나의 안을 가지고 설계하셨습니까?

정현화___ 생각은 초기부터 결과물과 유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고, 컴퓨터 화면에서 캐드스캐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디멘션을 찾다보니까 컴퓨터화면 상에는 많은 계획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생각은 하나의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채는 처음부터 정해졌고, 식사를 하는 공간과 안방의 목욕실, 지하의 스튜디오와의 관계는 생각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뀌지 않은 것은 사랑채와 2층 아이들방입니다. 그리고 중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면을 전부 유리로 뚫었는데, 결국은 식사하는 공간인 남측창과 사랑채의 북측창만 적극적으로 뚫고, 안방 쪽은 서향 빛이 드니까 과감하게 막았고, 현관 쪽은 중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뚫었습니다. 중정의 벽에 대한 변화하는 생각도 컴퓨터 스캐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해___ 시공하면서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재료나 집기가 예산때문에 생각은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한 것은 없었나요?

정현화___ 실제 공사비는 저렴하게 정리가 났습니다. 다만 구조, 사시, 유리, 단열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줄인 부분의 예를 들면 욕조나 변기 등은 소모품으로 생각해



서 디자인이 통일된 저렴한 것으로 사용했고, 부엌의 싱크와 가구, 불라이징, 테이블 등은 스케치를 해서 직접 공장주문제작을 통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에도 난방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콘크리트벽식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해 어떻게 보면 이 집은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대형적 성격을 띠는 식사하는 공간, 즉 주방공간이 이 집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 그렇습니다. 이 집은 대형처럼 쓰이는 다목적 공간에 불이 켜져있을 때 이 집에는 커뮤니티케이션이 살아있고, 가족의 대화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각자의 프라이빗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종의 시그널인 셈이죠.

이상해 그것은 이 집이 주는 일종의 공간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장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설계한 건축사도 물론 가족의 알원이지만 실제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화선생 부인과 두 딸과의 대화를 하였다. <편집자주>

이상해 아파트에서 살 때와 이곳에서 생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둘째딸 아파트에서는 하늘에 더 가깝게 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땅에 접하여 땅의 온기를 느끼면서 생활하니까 심신건강에 좋고 애정이 갑니다.

첫째딸 아파트는 주어진 똑같은 형태 속에 들어가서 맞추어 사는 것이지만, 이 집은 건축가인 아버지가 아빠입장에서 우리가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부인 예,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으면 아마 사랑방을 씨름으로 개방했을 겁니다.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손님이 오는 것을 약간 꺼려했었는데, 이 집에 이사와서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이상해 아파트보다 손이 더 가는 부분도 있지요?

부인 아무래도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죠. 지면하고 가깝다보니까 쉽게 더러워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감수해야죠.

이상해 이 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습니까?

부인 부엌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과 사랑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간섭이 없이 시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단독주택으로서 나름대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집을 지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주부로서 이 집을 유지관리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 사모님같은 경우는 어릴적에 땅을 밟고 단독주택에서 사셨겠지만, 아파트문화가 만연한 요즘에 두 딸님에게는 이 집이 굉장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이 행운이 아닐까요?

둘째딸 마당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계절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벌레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주택에서 땅을 밟고 살면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고 편



안해지는 것 같아요. 도시나 학교생활에서 못느꼈던 것을 집에 와서는 나무 그림자나,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등 작지만 나만의 자연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___이사오신 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요?

부인___처음에 이집에 이사와서 감격한 것은 서울 하늘에도 별들이 있구나를 새삼 느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자갈 깔린 정원을 한바퀴 돌아보곤 합니다. 그때 풀냄새와 흙냄새가 굉장히 싱그럽게 다가와서 물을 안줄 수 없게 만듭니다.

정현화___가족 모두가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자기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지요.

이상해___가족들끼리도 이야기 거리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정현화___손바닥만한 도심지 땅에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그냥 우리 생활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예를들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내릴 때 지표면에 떨어지는 정경, 낙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름 모를 풀꽃이 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도심지 가운데의 작은 여유 공간이지만 지표면의 생활로 가족들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실제 이 집을 시공한 사람은 본격적인 단독주택을 지어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공자도 좋은 생각과 협의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능하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해___그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 집이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한테도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르쳐 줄만 한 것 같아요.

정현화___이 집의 시공자는 주택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고, 공사가 끝나고 여기에서 주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대단히 고맙웠습니다. 이 집을 짓고나서 시공자 한 두사람이 집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이 집을 지은 시공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고는 묻지를 않았을 때는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해___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설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부인___단순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고, 옆집의 정원까지 끌어들이는 정도의 대지활용 등 어쨌든 주부로서 불편이 없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첫째딸___방이 층고가 높아서 시원한 느낌이 있고, 잡동사리를 넣을 수 있는 디락방이 있어 좋아요. 그리고 방만한 크기의 테라스가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항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정현화___보통 도심지 주택에서 이 정도의 테라스는 거의 갖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 2층 테라스 앞이 어둡고 막혀 있다면 나가기가 싫을텐데, 중정을 끼고 앞이 밝게 띄어져 있고 후로링으로 잘 마감을 해주었더니 친근한 장소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이상해___테라스에 나가도 집의 한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주 나가게 되지요. 이 집을 보면서 황량한 사막에서 한줄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삭막해져가는 도심지 주거에서 하나의 좋은 예가 이 집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람직한 도시내 주거양식을 찾아가는 작업이 계속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신 정선생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圖



가족과의 대담광경

우리시대의 한옥 A Very Korean House of Our Time

정현화의 집 '필당'에서 읽혀지는
우리시대 도시주거생활의 미학

민현식 /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by Min Hyun-Sik

'우리는 여기서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였다.'

미이스 반 델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

시대를 거치오면서 우리의 주택은 변신을
거듭해 왔고,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세기에 들어
서면서, 가깝게는 지난 50년 급격한 변화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거형식과 그것
의 변화는 바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의
변화임을 설계 알아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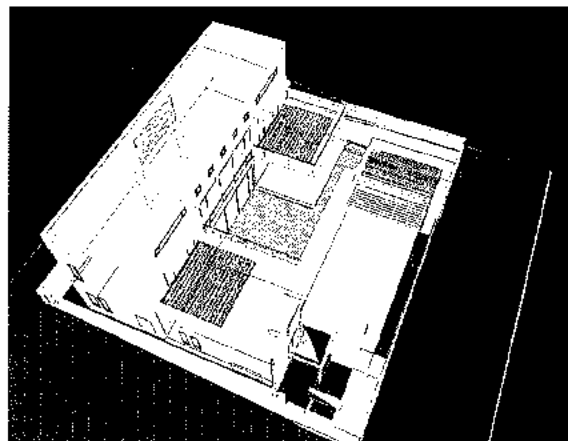
1960년대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인들

'We are not merely designing a house here, we have
designed a new life in a new world.'

Mies van der Rohe, 1886-1969

Our houses have changed through time and in
this century where urbanization has speeded up, especially in the
last 50 yea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ogress has been
prominent. A type of house and its changing surely reflects the
thought and ideas of that time and development.

The 'urbanized Korean traditional houses'
which had been prevailing up to the 1960's are barely catching on
to that string of traditional life style and mentality. But now they
have become such a rare species that we would have to put
them in to field of national security. Till this moment a wise
solution of working out the problem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as not been found. It has become an antique for
those who like to wander around the alleys for something
interesting and peculiar.



필당

이 선호했던 '도시형 한옥'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
신을 겨우겨우 연명하듯 이어 왔지만 이제 거의 자취를 감
추어가고 있어서 보존해야할 문화재급으로 격상(?)했지만
보존과 개발의 극단적인 대립의 현장으로 아직 지혜로운 실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뒷골목을 뒤지는 몇몇 건축가
나 호사가들의 복고취향 또는 골동취미같이 취급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불어닥친 근대화 바람
은 그때까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서구취향이 대중에게까
지 밀고 들어와서 한동안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꿈꾸었다. 언덕 위 숲속의 선교사집 같기도 하
고, 이발소그림에서 흔히 등장하는 호수가 뽕죽지붕 집 같

Westernization, which was the luxury for the
rich, at some time became a sudden popular thing that came into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dreamt of 'a picture-like house on
the green fields'. Everyone worked hard to achieve their dreams
of a victorian house inside the woods or that sharp-edged house
besides the lake. The thought about tradition was put to side at
that moment. Those who developed the urban type Korean
traditional houses were now focusing on the so called 'French
Houses' or the 'mini two story houses' and easily met the
demands of the people. Consequently, these types of houses filled
our city and formed one to the most prevailing structure in the
cityscape.

At these moments 'apartments' suddenly
dominated all kind and has stayed as if it were the best solution
for housing problems. In the last year Dong-a newspaper an
article stated that the number of apartments has exceeded the

기도 한 이 집을 '내 집'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들 모든 것을 걸고 일도 매진했었다. 이러한 다분히 이국정서(異國情緒)의 '그림 같은 집'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는가는 질문은 유보해 둔 채, 한때 '도시형 한옥'에 재미를 토틈히 본 주택개발업자인 집장사들 중 발빠른 이들은 재빨리 소위 '불란서식 집', '미니 2층집' 등을 창출(?)해서 서민들의 이 꿈을 달래주었다. 이 결과 70년대 이후 우리도시의 단독주택은 이들로 가득 채워졌었고, 우리의 도시풍경을 주도하는 건축물이 되었었다.

이런 와중에 주택공급의 해결사로 불쑥 수입된 소위 '아파트'는 우리의 도시주거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지난 99년 7월 29일 동아일보의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런 기사가 실렸었다. '아파트 가구 수 단독주택 추월'이라는 제목 아래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모두 464만여 가구로 전국 총 주택 1086만여 가구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미포아파트



빈포아파트

근대적 의미의 아파트먼트 하우스 apartment house가 우리의 주택형식으로 도입된 1961

number of single houses.

These apartment houses, which are the consequences of economic profits and the logic of money, have constantly been criticized of its abnormal influences on society. It has been the main site of poor construction, and the main causes of the destruction of nature and the cityscape. Even there has been so many and constant complaints and criticism that apartments were not following the laws of living but the laws of money and vanity. They have outnumbered the traditional single building houses which had been prevailing for such a long time in just forty years.

This fact makes us wonder if there isn't another alternative housing in today's society and whether these apartments have already colonized our way of living.

At this moment <Pildang> has opened up a new possibility. Pildang is an independent house inside the city. It is in

년이라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거형식을 주도해 오면서, 주택공급에 혁혁히 기여한 공적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도시와 건축의 문제만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기도 했었다. 환금성이 뛰어난 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는 그곳을 투기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주택공급촉진의 정책으로 채택된 임대료先賣의 공급형식은 바로 건설회사의 양산으로 이어져, 끝없이 건설예산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서 이 나라를 토건국가로 만들었고, 금기가 이곳이 부정부패 부실의 현장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돈벌이 욕심은 도시의 풍경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아왔다.

주택이 주거생활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예를 들어 자본의 논리나 허영의 논리에 의해 너무 경도되어 지배되었다는 앞에서 열거한 혹독한 비판들이 수없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채 못되어 전통적 주거형식인 단독주택을 앞질렀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 볼 필요가 있다.

편리의 이름으로 단순 논리화한 기능주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계화시켰는가. 아니면 범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정신을 이미 완전히 식민지화한 것일까. 아니면 정작 이 시대의 도시주택에 아파트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아예 없는 것인가.

the midst of the never sleeping Teheran Avenue. This part of the city was designated as a housing limited area in the 1960s. But through these years many buildings have been stalking in and at this point there are even rumors that this area will soon be free from that law. So this tendency of breaking down those one or two story houses and replacing them with tall buildings could be said as the time following results.

But Pildang stands here rejecting the flow of time.

This house showe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house at the price of an apartment. It is definitely an economic building. But the point doesn't lie in here. This house also has the convenience that doesn't lack from an apartment. It has an adequate mechanic system to erase the worries of maintenance. The point isn't this convenience either. That as it is an independent house the values of an independent house is

이럴 때, <필당 匹堂>은 우리에게 한 신선한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필당>은 도시 속의 단독주택이다. 이 집 어디에서나, 특히 2층 방의 테라스를 나서면 테헤란로를 메우고 서있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의 불빛이 '테헤란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연출한다. 이미 이 지역은 주택이 있기에는 너무 도시화되었는지 모른다. 60년대 도시계획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라는 법적 제한에 따라 때문에 나지막하게 지어졌던 주변의 '그림 같은' 주택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고, 주거전용지역이라는 지역규제는 이 곳에서는 이미 전설같이 느껴져 곧 해제되리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상식을 역행해서 이곳에 <필당>이 서 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능성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리 비싸지 않게 지었으니 잠시 살다가 나중에 헐어도 야깁지 않겠더라는 경제적 수지타산이 여기에 지금 이 집을 짓는

offered. You can smell the scent of earth, you could yell and scream as loud as you can without worrying about the neighbors, you can plant those beautiful flowers and healthy vegetables in the backyard, and especially that you are not living in one house that looks and functions exactly the same as who knows how many houses, which gives you the possibility of as original and personal home. This isn't the point either. In short the value of the house isn't that it has both the merits of an apartment and an independent house. Actually this house could be considered inconvenient in ways that you have to walk long distances and that functions are spread apart.

The values that we have to take in to mind is the values of a city house of this time and this land, which Pildang is trying to tell. This house strongly connects the mentality of our traditional houses and projects it into the values of this time accompanying the critical and analytical power of the architect.

뜻이 아니다. 또한 이 집이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관리에도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는 기계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만도 아니다. 이 집이 단독주택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점, 땅의 냄새를 맡으며 산다거나, 아랫집, 윗집 신경 쓰지 않고 크게 떠들며 살 수 있거나, 뒤편이나 앞뜰에 푸성귀를 일구는 전원적 향수를 달랠 수 있거나, 무엇보다 모든 세대가 천편일률적인 벽돌 같은 아파트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맞춤형이란 점 때문만도 아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소위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집은 길게 길어야 하고, 이곳 저곳에서 구태여 일을 벌여도록 채곤하는, 어떤 관점에서 반 기능적인 집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정작 주목하여야 하는 이 집의 가치는 바로 <필당>이 말하려고 하는 '이 시대, 이 땅의 도시주택'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다. 이 집은 우리의 전통적 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 시대의 정신에 투과하여 작가의 가치관에 의해 비판적이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더욱 빛난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방들의 기능을 하나로 미리 지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홀려 놓고 있다.

이 집에서의 방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 거실, 식당, 침실 등 하나만을 붙이기에는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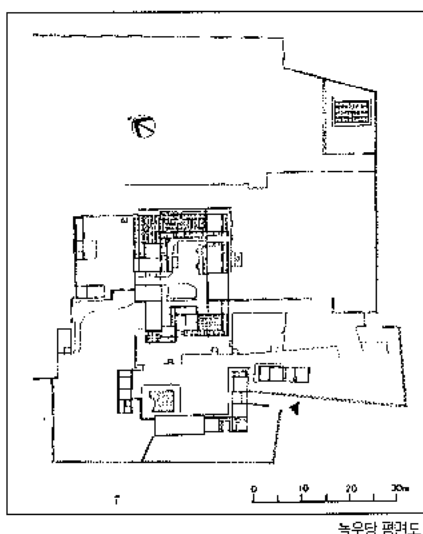
This is why this house shines amidst other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at the rooms are all scattered without definite functions named.

There are a couple of rooms that is hard to give those so common names of a room, such as, a living room, dining room, bedroom. A main room that has the programs of a kitchen, dining room, living room and a hallway and stairs(lets call it main room-1 for convenience in this essay) and the other main room that has the function of a parlor, library and work shop(main room-2) are those. In traditional architecture rooms are not named according to function. an-bang, gunneo-bang, daechung-maru, sarang-bang only tells us the location of the rooms, and when there are some devices granted it temporarily becomes a functional room. It seems that this kind of functional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houses has been translated or it seems as it has mixed the functional rooms normative in modern houses, the

하지 않은 방이 두엇 있다. 주방과 식당과 거실의 기능과 거기에 통로(복도와 계단)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주실(主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주실-1'이라 부르자)과 거실과 응접실, 서재 그리고 작업실의 기능을 다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주실(주실-2)이 그것들이다. 우리 전통주택에서의 방 이름은 기능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사랑방 등은 단지 위치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장치를 가져와서야 그 방이 한시적으로 기능실이 된다.

이러한 전통주택의 기능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방법론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듯하기도 하고, 또는 근대 기능주의 주택에서의 거실, 서재와 응접실, 식



living room, dining room, kitchen, parlor, etc, altogether and then distributed. This would be the result of de-constructing the diverse functions of city life and then adequately transforming them into new realms. It is somewhat very interesting that it has followed the rules of traditional houses for the basic dividing tools. The former(main room-1) is the territory for women and the latter(main room-2) is the territory for men. So you could say each are the modernized an-chae and sarang-chae. They are facing each other equally with the ma-dang in between.

The second thing that attracts the eyes is the ma-dang of this house.

At this time, no one would be unsure to say 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fascinating characteristic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is the ma-dang. Unlike the patio, atrium or the plaza/square in western architecture, our ma-dang is not predetermined in terms of function so that it possesses a

당, 부엌 등을 함께 섞어서 다시 분배한 작업의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 우리의 도시생활에 따라 주거 생활의 여러 기능들을 해체하고 적절하게 변용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재편해 놓은 작업의 결과이다. 기본적인 가름의 틀은 전통주택을 따르고 있음이 자못 흥미롭다. 전자(주실-1)는 여자의 영역이고 후자(주실-2)는 남자의 영역으로 현대적 안채와 사랑채이며, 이들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등하게 마주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집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마당이다.

우리 전통건축의 가장 중요하고 근사한 특징으로 마당을 내 세우는 일을 이제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서양건축에서의 중정patio이나 아트리움atrium, 그리고 광장plaza/square과는 달리 우리의 마당은 방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곳으로 때에 따라 어떤 특유의 기능 또는 행위가 도입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생활이나 활동으로 점유되기 전까지는 빈 채로 남아있는 절대공간이다. 그래서 조용함과 투명성, 명료함, 채울 수 있는 잠재력, 완성여로의 열림으로 가득 찬, 역설적으로 지극히 현대적 감각을 가진 장소이다.

〈필당〉에서의 마당은 이러한 우리 전통마당의 공간적 감각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하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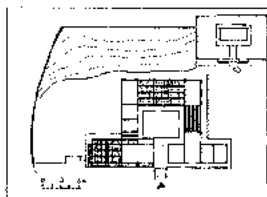
particular meaning when a particular activity or function is granted. And these activities and functions change. It is totally an empty space until a certain activity happens. So very ironically it is a very modern place possessing serenity, clarity, articulation, the potential of being filled up and filled with the possibility of being total.

The ma-dang of Pildang has all of these features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it has many differences in the way the ma-dang corresponds spatially, visually and functionally with the surrounding rooms. It could be the inten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 urban house of only being able to have one ma-dang 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family relation. Rooms are placed three dimensionally so that when one sees the ma-dang from there one experiences multi-angle views. This can be seen clearly from the south-north section. Main room-2 looks down at the ma-dang about 1.35m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방들과의 공간적, 시각적, 기능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마당을 하나 밖에 가지지 못하는 도시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전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가족관계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다.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방들에서 이곳, 마당을 내다보는 시점을 서로 달리 하도록 3차원적으로 배열한다. 이는 남북으로 자른 단면도로 명쾌하게 설명된다. 주살-2는 마당보다 1.35m쯤 높여서 마당을 내려다보게 한다. 마치 전통주택에서 사랑방과 사랑마당과의 공간적 관계의 재현으로 읽힐 수도 있고, 주살-1과의 적절한 관계 정립일 수 있다. 주살-1은 마당과 거의 동일한 레벨에 놓고, 마당으로 향한 모든 면을 마당으로 열어 놓아 이 둘이 거의 하나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전자의 관계는 관조적이고, 도의적(道義的)이며 가치론적이라면, 후자는 이것과 대조를 이루어 참여적이며, 기질적(氣質的)이고, 실리적(實利的)이다. 어떤 관점에서 주살-2는 유가적(儒家的) 수기공간(修己空間)일 수 있고, 주살-1은 치인(治人)의 공간일 수 있다.



관가정



관/정 평면도

above it. It can be seen as a revival of the spatial relation between the sarang-bang and the sarang ma-dang, or it can be seen as an adequate relation with main room-1. Main room-1 lies with almost the same level with the ma-dang and opens up all the planes that touches the ma-dang which enables these two to become totally one spatially. The former is a relation of contemplation, morals and valu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volunteering, sensitive and practical relation.

In order to feel this duality a tree is planted. Unlike the two-dimensional ma-dang a tree is a three dimensional object changing its looks according to time. This could be seen as a mature ability as an architect and a deep affection for traditional architecture.

Thirdly,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n outer space of its own making a pair.

This is not the simple and tedious inner and

하나의 공간을 두고 이러한 이중적 관계를 절묘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곳에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평면적인 마당에 비하여 나무는 시점(視點)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는 3차원적 오브제이며, 특히 꽃이 피는 낙엽수는 계절을 따라 그 변화의 폭이 크다. 이는 작가의 성숙된 건축가적 능력이기도하고, 전통건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 이 집의 모든 방들은 그 방만이 가지는 고유의 외부공간과 함께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이라는 이제는 이미 진부해진 근대건축 이상(理想)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각 실별 생활의 자율성과 자족성을 부여하려는 욕구일 것이다. 이는 전통적 가족관계(family sense)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주거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근대주택의 동선계획에 대하여 일단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각방들의 독자성을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면 이제 구태여 만나고 싶을 때 자신을 여는 현대적 개체의 인정이 이곳에 숨겨져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물어본다.

“현대의 로미오는 어디 있는가?”

네 번째 <필당>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공간조직의 특성이다.

outer space relation, it is the desire to give freedom and self content to each room. It could be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family sense. The circulation plan of modern houses where the members of the family meet throughout living is accepted but there lies also a strong will to keep the individuality of each room. So to say, the tendency of opening oneself only when wants to is seen. Then we ask,

“Where is the Romeo of this time?”

Fourth, Pildang has a spatial organization that can correspond to the changes of future. In other words, it has an extra space that is able of transitional change.

Even though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prediction of the change of today's city life, it is much faster than our predictions. As the situation is this, it is hard to leave an architectural space with one function, the tendency of an indeterminate, indefinite, neutral, uncommitted and free space is

일명 과도기적인 변화가 가능한 덩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우리의 도시주거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성과를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지극히 빠르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의 건축공간이 하나의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점점 불확정적 indeterminate이고, 정의될 수 없으며indefinite, 중립적 neutral, 미지정의uncommitted 자유로운free 공간으로 남겨두려는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집에서의 몇 부분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실-2는 당장이라도 재택근무(在宅勤務)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스튜디오 하우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집 전체가 필요에 따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공간조직과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 작업인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객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외에 외국공관(公館residential office), 소규모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도시내의 소규모 문화공간, 예술가의 작업+전시(공연)장 등에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집과 도시 또는 마을과의 관계는 성채만큼이나 완벽히 단절되어 있다. 현대, 도시주거생활에서의 공동체community sense는 이미 공간적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something that is natural nowadays.

In this point there are some places in this house that can be put as individual areas. Especially main room-2 shows the immediate possibility of being used as an independent office possessing the idea of a studio house. Furthermore this house has the spatial composition and scale that can transform by need. For example, it could be appropriate for an office for a professional, a foreign residential office, a small urban culture facilities like a small museum of performance hall, and a workshop and exhibition for an artist.

Lastly, the relation of this house and the outer neighborhood or city is perfectly closed like a castle. It seems as if it is saying that community sense in urban housing life is no longer spatial in this time. Our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was only valid in the past agricultural life style and is only a sentiment that we should let go of. The era we live in no longer limits the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적 공동체인 마을공동체는 농경사회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이미 근대산업시대에서까지 그것에 연연하는 센티멘탈리즘을 경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대는 새로운 공동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이미 극복한지 오래다. 세계화의 물결은 전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는 시도가 급속히 행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이질성과 독자성이 점점 강조되어 서로 변별되는 새로운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 또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전통적 지역공동체를 빠르게 해체하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들을 창조해 내고 있다. 인터넷이 그것의 속도를 광속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데도 길게 질문이 남는다.

도시에서의 주거생활 공동체는 이제 다른 수단에 맡기고, 이 시대의 도시주택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은 지금, <필당>에서 성취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는 우리 도시주택에 대한 의식의 변혁과 더불어 새로운 미학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community we live in by time or space. Globalization, which intends to connect the whole world, and another tendency of trying to strengthen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individuality of each country is both happening at once. These two tendencies are de-constructing the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and new communities are being created. And the internet is the main one that is speeding this up.

But still there remains a question.

Do we now have to leave home-life community to other mediums and has urban houses of this time become just an oasis in the des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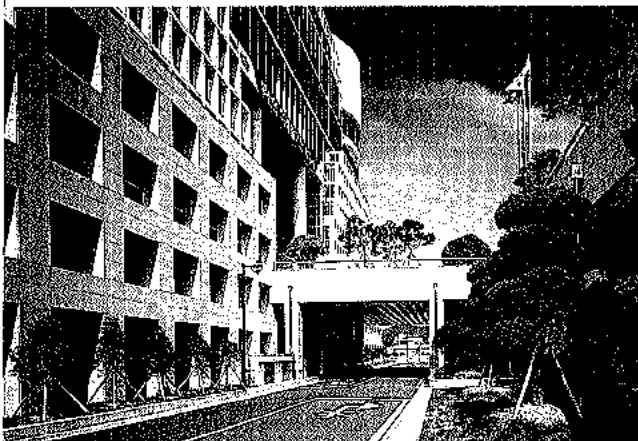
In this transitional time where we have to design a new life in this new time Pildang has accomplished several values worth scrutinizing. This values will become the constant energy that will allow change in the way we see urban houses and offer new aesthetics.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Busan Kangseo-gu Office

박재평 / (주)세진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Jae-Pyoung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287-1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주요용도	구청사 및 의회, 부속주차장
대지면적	31,481.00 m ²
건축면적	2,945.23 m ²
연면적	청사 및 의회 - 16,074.07 m ² , 데크 주차장 - 5,323.91 m ²
건폐율	9.35 %
용적률	40.77 %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부분 철골조)
외부마감	회강석 버너구이 마감, 일부 드라이버트 플래스터, 파스텔 유리
최고높이	39.64 m
설계담당	황보기룡, 조형장
감리담당	(주)평화기술 감리단 박영호
구조담당	알구조기술사사무소 송동범
설비담당	기계 - (주)협진기술 박상목 전기 - (주)필엔지니어링 부태삼
건축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설계기간	1995년 6월 12일 ~ 1996년 9월 30일
공사기간	1996년 12월 31일 ~ 2000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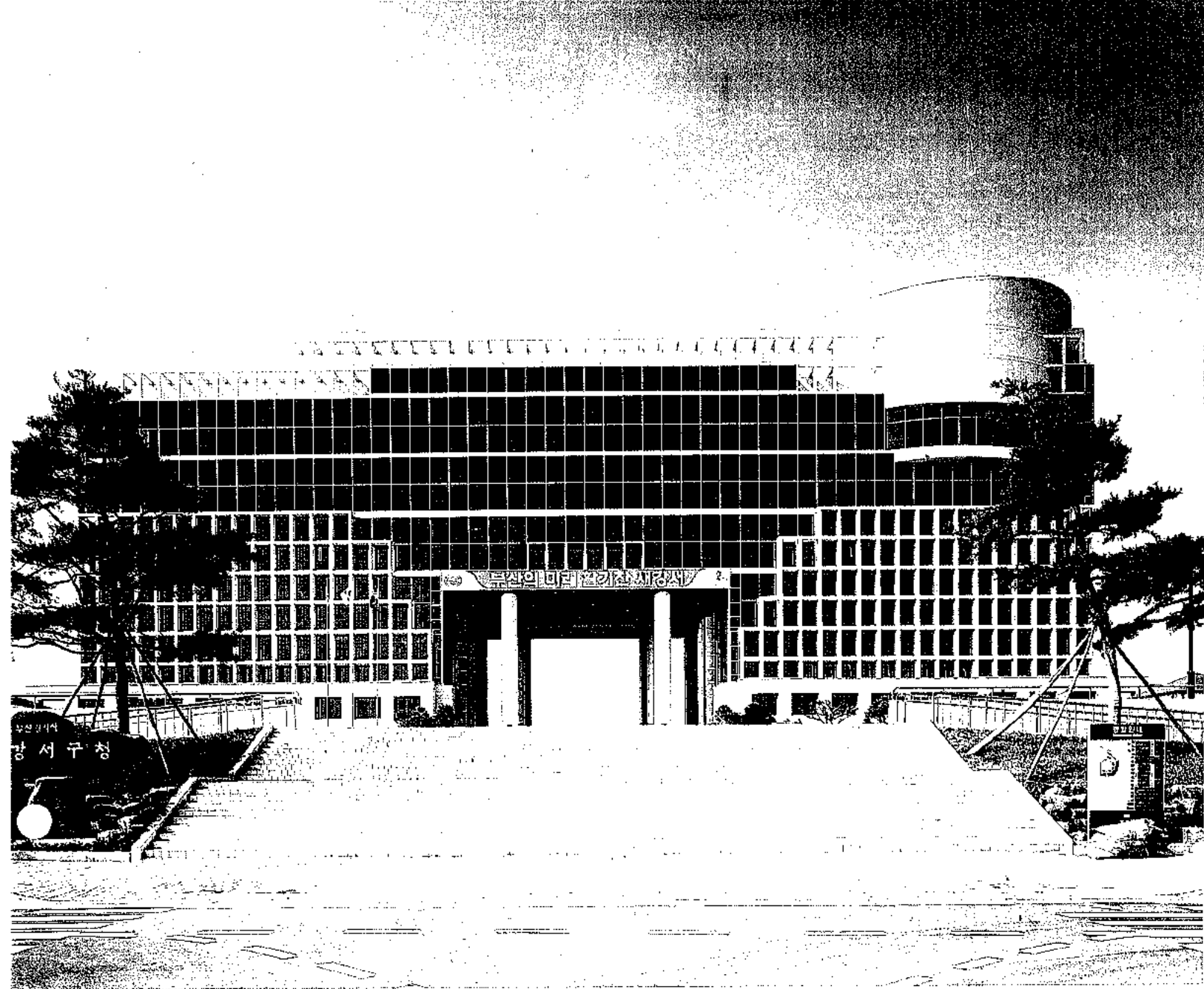
1996년 3월에 현상설계 공모전이 발표되고 난 뒤, 필자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작업에 임하였다.

첫째, 부산시의 구청사 중에서 약 10,000평이나 되는 가장 큰 부지였고,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에다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잘 정돈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주어진 부지는 남측에 국도14호선이 시공중이었는데, 평야위에 6m정도의 고저차로서 도로쪽 만큼의 흙더미가 조성되어 있어, 처음에는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들었으나, 현재는 부지의 남측이 벌판이지만 미래에는 구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 가능지라고 예상하였고, 북측은 기존 시가지이었다. 여기에서 청사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면의 관계성과 연결성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미래지와 기존지를 서로 연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스중앙에 문(gate)의 개념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또한 강서구는 실제 부산의 미래의 땅으로 부산의 관문 지역으로 이를 부산의 출입구로 설정하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였으며, 전체건물의 외형적 규모에 조화될 수 있는 비례감을 부여하여 지나친 파사드의 무게감을 상쇄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국도14호선과 부지의 높이차를 활용하여 도로와 청사동 중간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 속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대부분의 구청에서처럼 외부공간이 주차장화 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데크상단에 구민들의 마당, 커뮤니티케이션 광장으로 설정하였고 부지전체를 공원화 개념으로 계획에 임하였다.

셋째, 구민, 공무원, 의원이 함께 같은 문을 통하여 단결된 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하는 의미를 이 문에다 부여하였으며, 의회부분은 청사 우측상단에 설치해 그 위상을 부여하였고, 대민봉사와 회의의 효율을 위하여 대강당을 별도로 업무동선과 분리, 설치하여 구민행사 등에 공무에 방해됨이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강당동의 운영을 적극적 이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배치하였다.

상기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 건축물이 조각품이나 예술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입면이나 단면 등을 설계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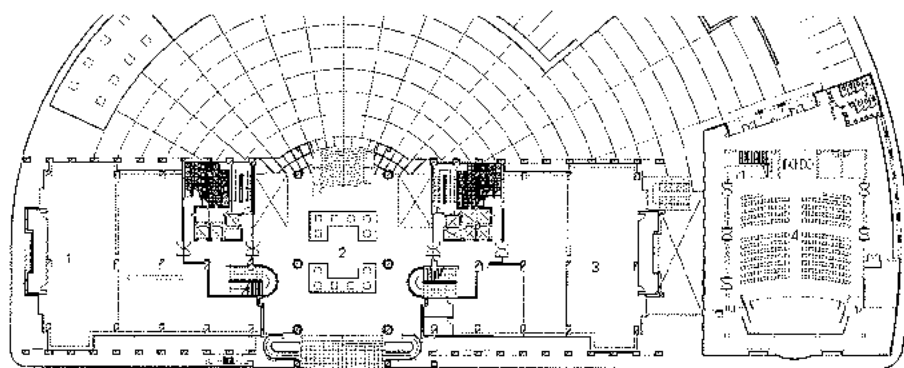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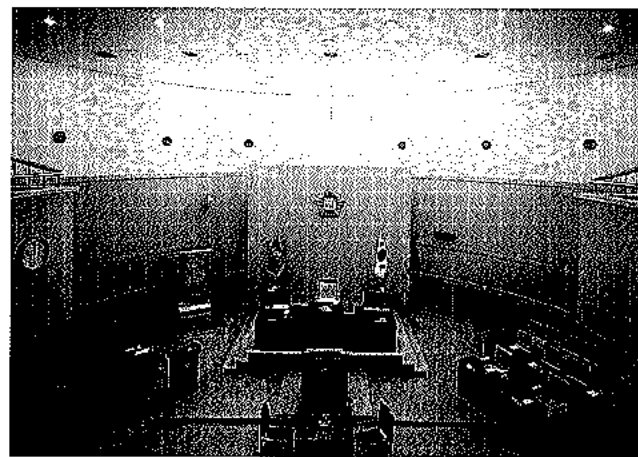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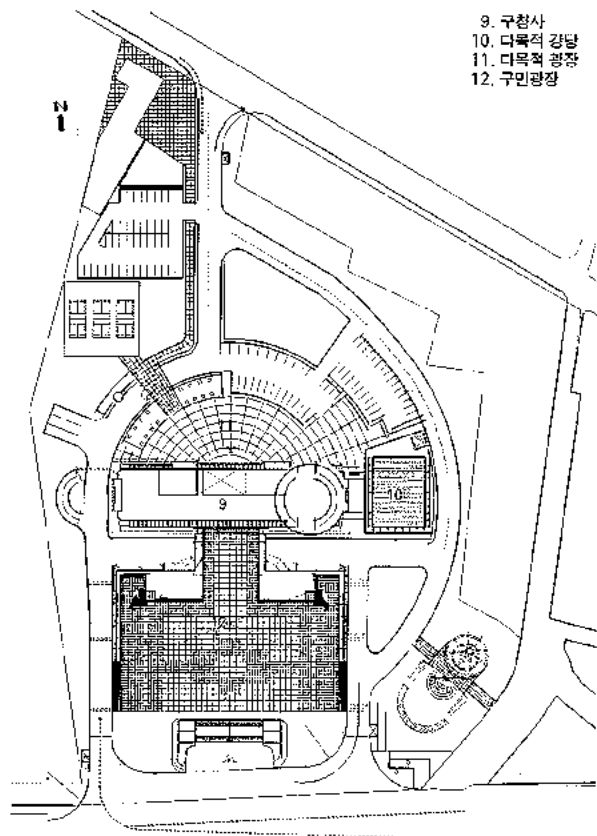


으며, 실제 현상공모안에서 제안된 몇가지 마감재료가 예산의 부족으로 비교적 저가의 재료로 대체한 점이 완공건물의 질적인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었다.

완료된 설계의 기본개념이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발주처의 예산감약 등에 의해 많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아예 삭제되어 버리는 이픔을 맛 보아야 했다. 청사건물과 자연스런 수평축을 형성하고 고립적 Skyline에 대한 시각적 쏠림을 해소시키며, 별동의 배치개념 속에서도 연결성을 잃지 않았던 강당동이 송두리째 삭제되어 버린 것은 필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며, 심혈을 기울였던 외부공간계획이 예산집행상의 이유로 별도 발주되어 당초의 개념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구민광장의 좌우 불균형을 형성해주고 외부공간의 발산성에 대해 적절히 Negative한 공간으로 수렴시켜 주었던 Static Space의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휴게Mall이 삭제되어 버렸으며 전면 주진입도로에서 하나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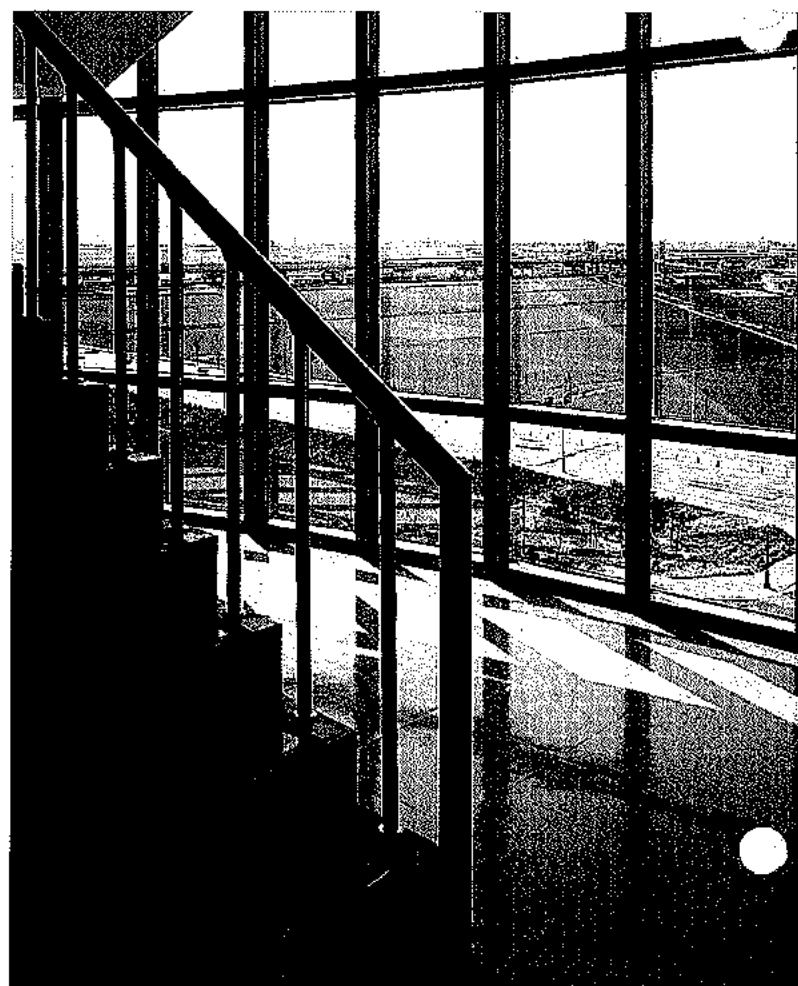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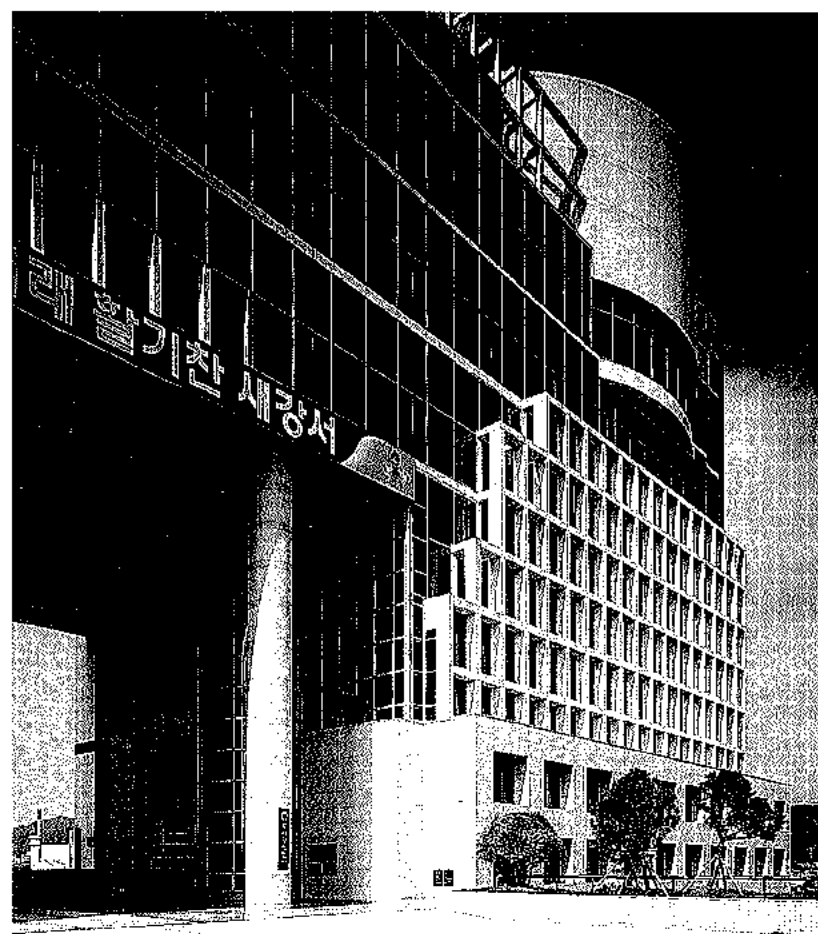
옥외 공연장 및 전망대, 수공간과 팔각정으로 이어지는 체험적 문화공간과 근린공원의 지취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되니 그 허탈감을 떨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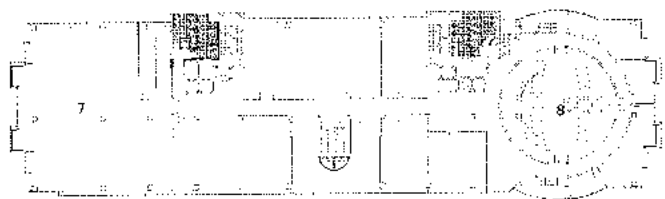
그러나 미흡하나마 잔디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목의 특이 잡혀나가기 시작할 때 즈음 그와 함께 새들이 찾아들고 푸르른 녹음의 그늘아래 담소를 나누는 구민들의 즐거운 모습들이 가득하며, 구민광장이 축제의 마당으로 제 역할을 다 해 나갈 때 청사의 표정은 더욱 더 친근한 미소를 머금게 될 것이며, 또한 향도 부산의 내륙적 1차 관문으로서 지역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강서구의 번창함이 주변대지를 채워나갈 때,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행여나 잃어버렸던 강당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문화공원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다면 청사의 면모는 우뚝 솟은 지금의 고립을 극복하고 어우러짐을 엿볼 수 있는 한층 더 아름다운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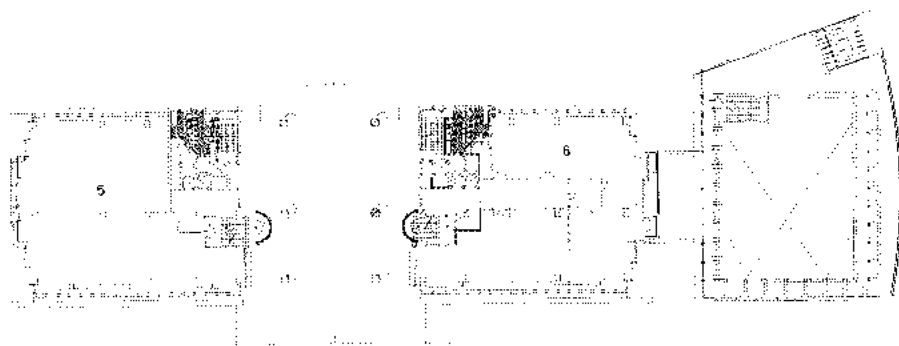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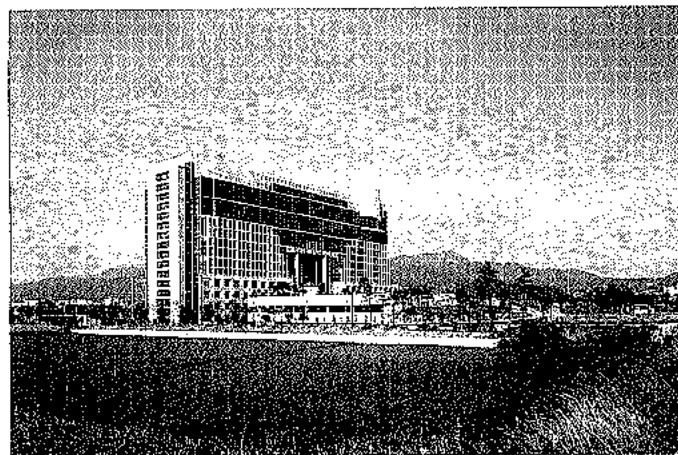
배치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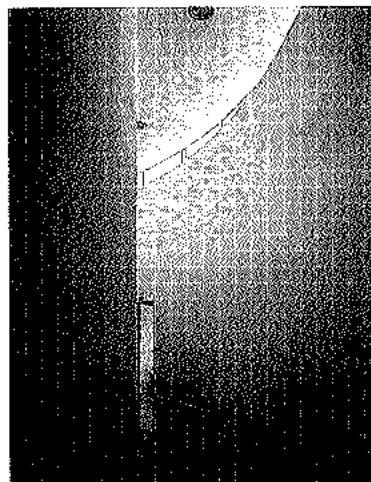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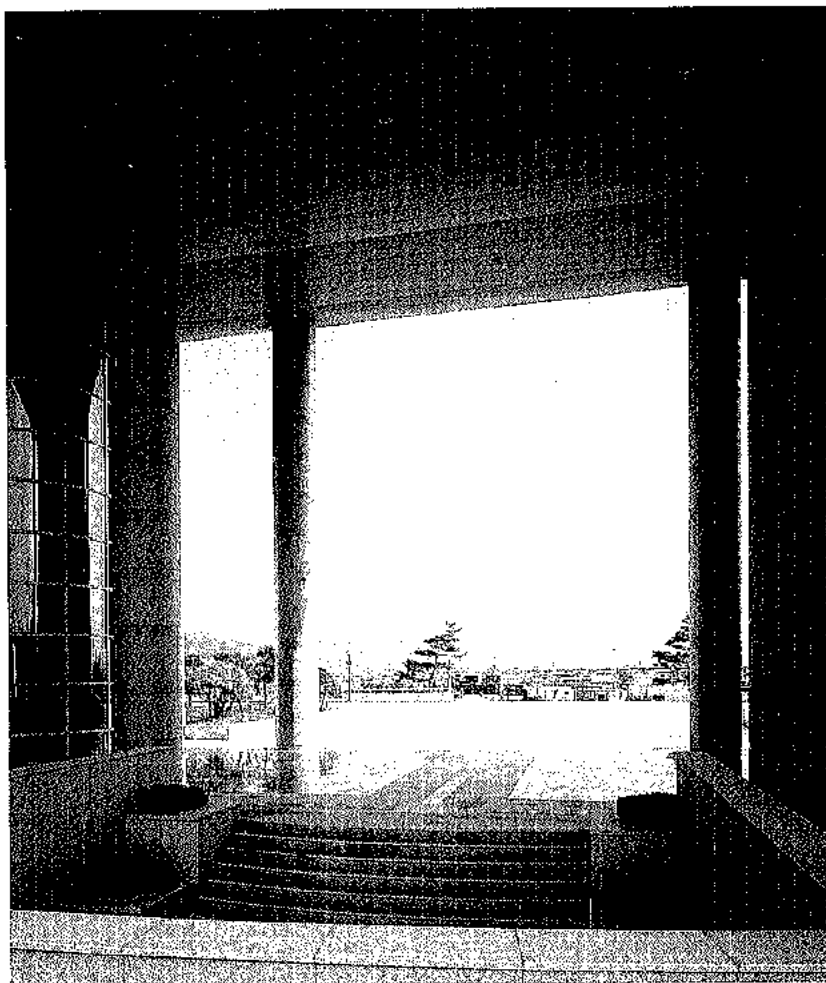


7층평면도



3층평면도

1. 민원봉사실
2. 민원용
3. 세무과
4. 강당
5. 예비실
6. 회의실
7. 식당
8. 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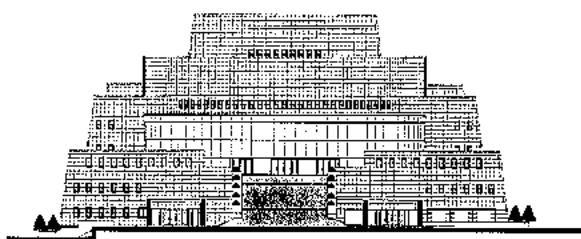


김천문화예술회관 Kimchon Art &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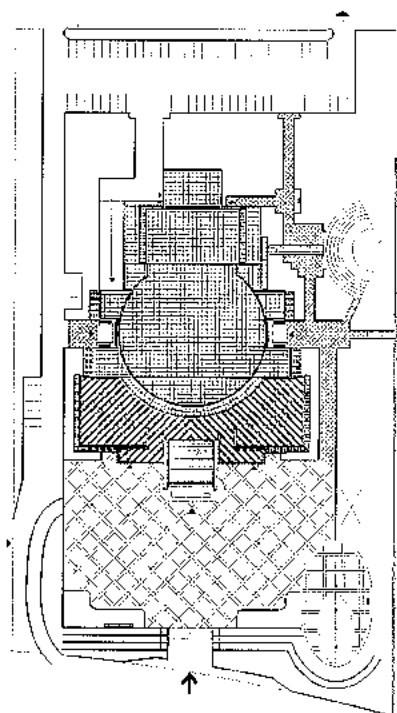
신 훈 / (주)우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hine Ho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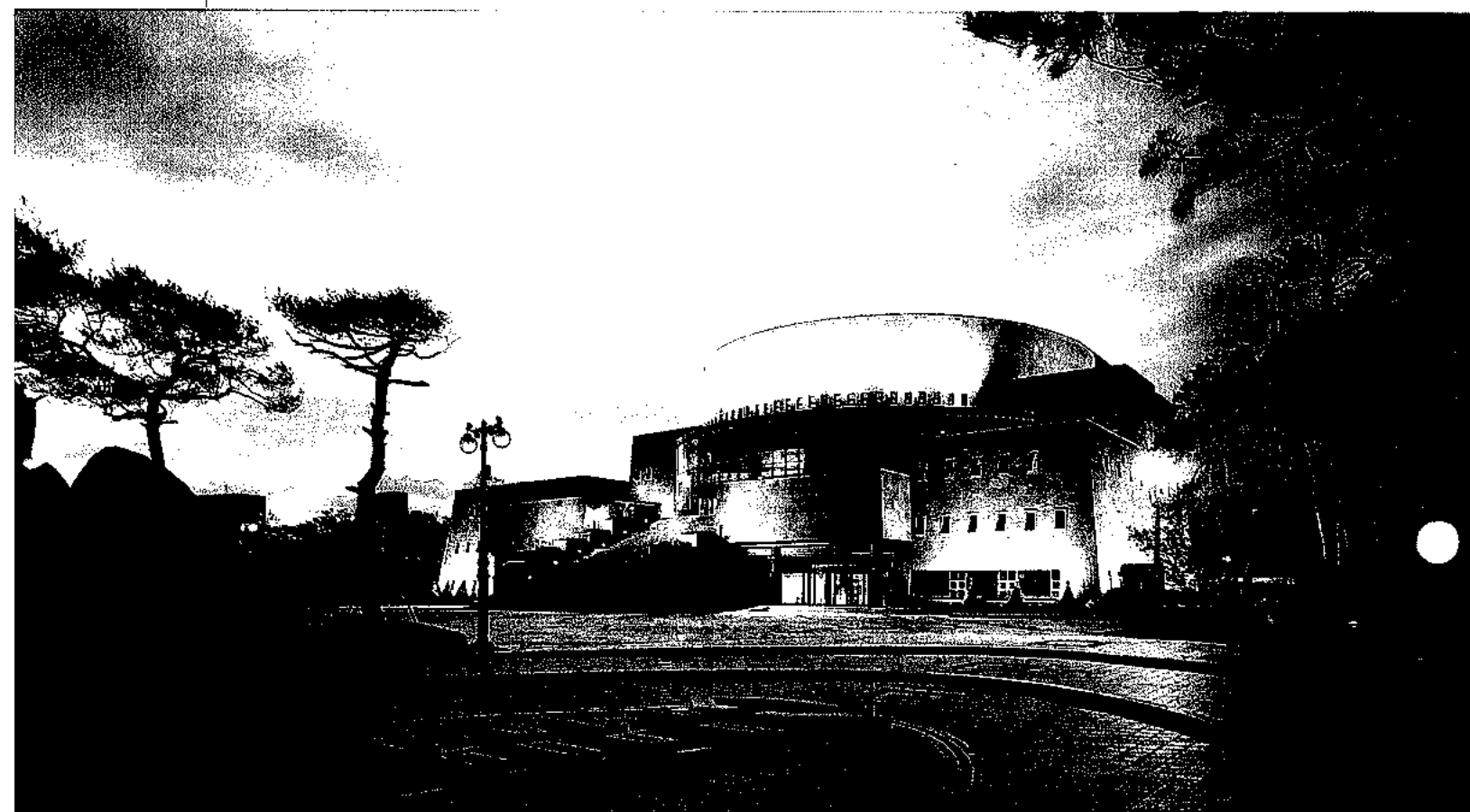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99-2번지 일원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대지면적	18,600.00㎡
건축면적	3,717.70㎡
연면적	12,165.17㎡
건폐율	19%
용적률	4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미감	THK30 사암 + 18mm파스텔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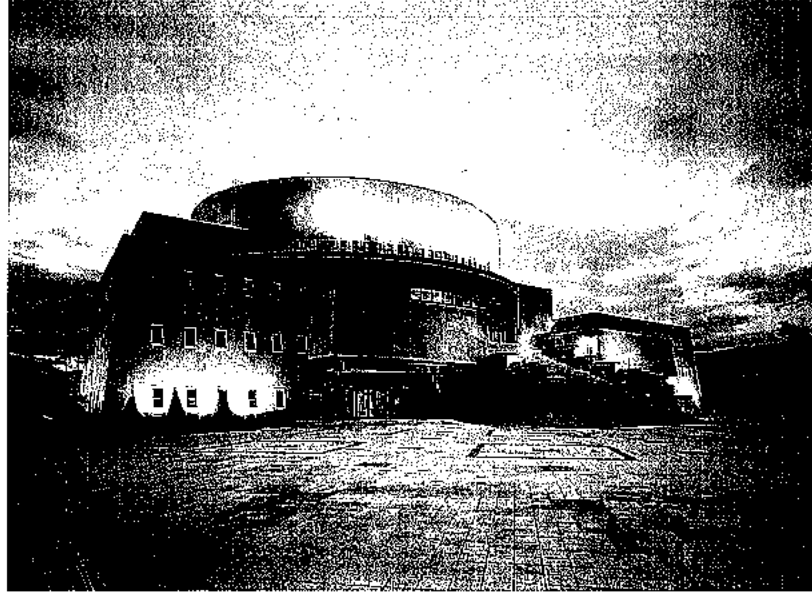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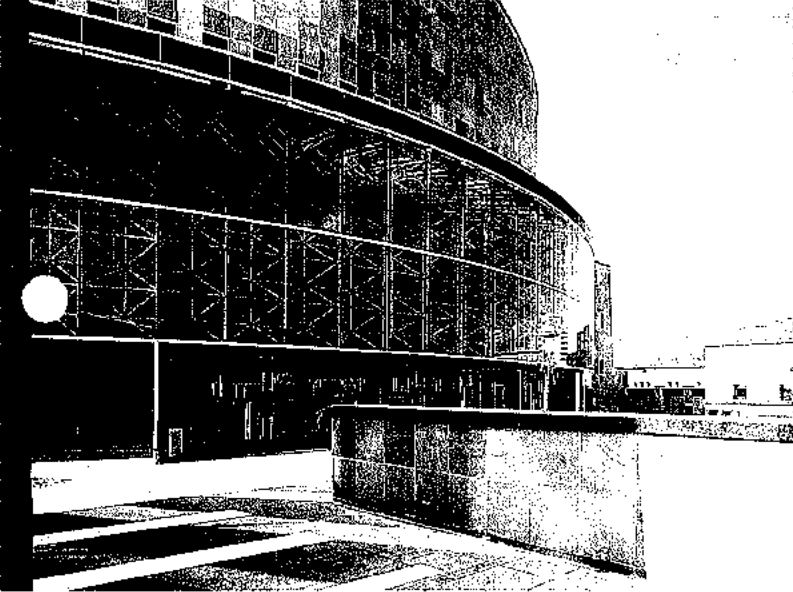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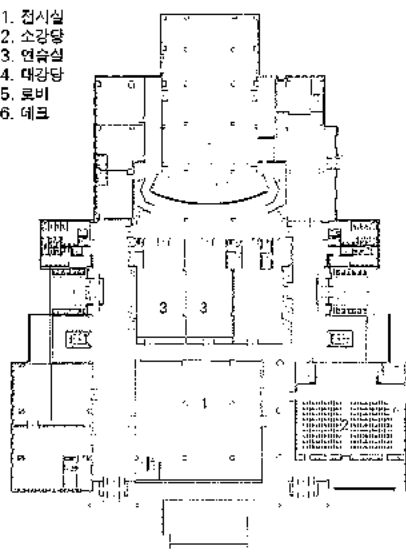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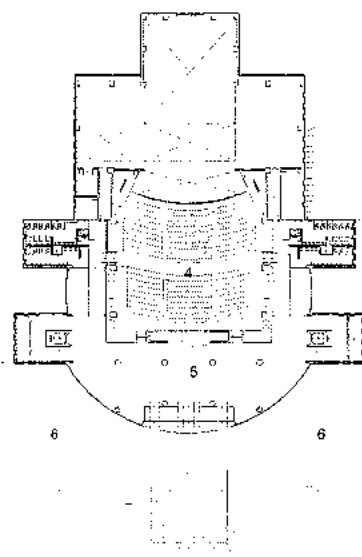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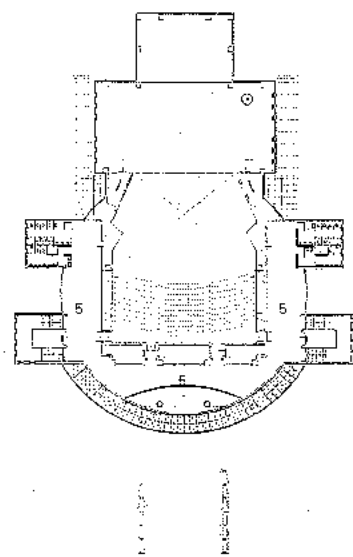
1. 전시실
2. 소강당
3. 연습실
4. 대강당
5. 로비
6. 데크



1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개념

손손이 모아지고 뿔뿔이 모여지는 마당으로 가꾸고 싶다. 그 마당에서 따뜻한 얼굴을 다시보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낮익은 인연으로 남아 있도록 하자.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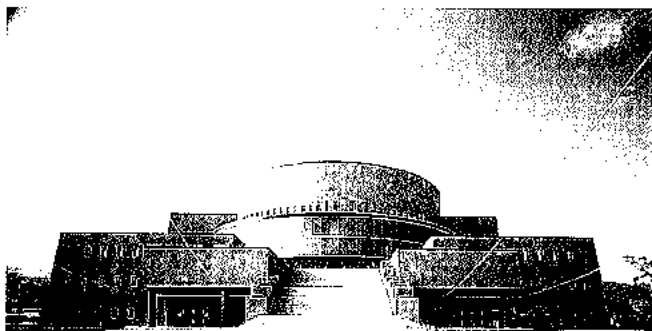
김천시의 신시가지로서 종합운동장과 접한 대지로 경부 고속도로 김천 IC 입구에서 바라보이는 김천시의 관문이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까지 망라하는 김천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구심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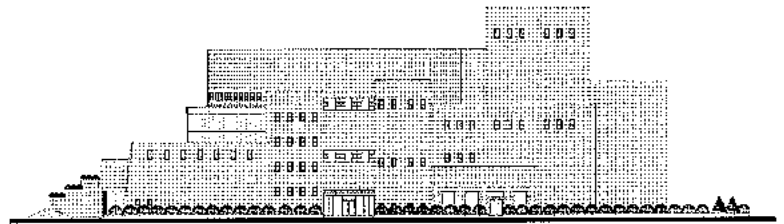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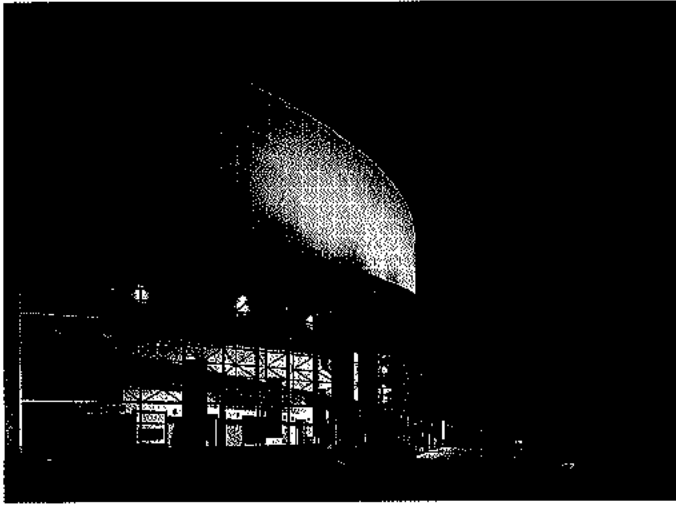
과정

생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의 제한을 받으므로 수평적 계획이 아닌 수직적 계획 불가피, 층별로 각 기능을 배분하여 원활한 연계성과 동선을 갖도록 하며, 수직적 계획에서 오는 위압적이고 거부감을 주는 형상을 완화시키고자, 거북의 형상을 이미지화하여 평면에 도입하고, 입면을 질박한 재료를 사용한 중첩매스와 경사면 처리.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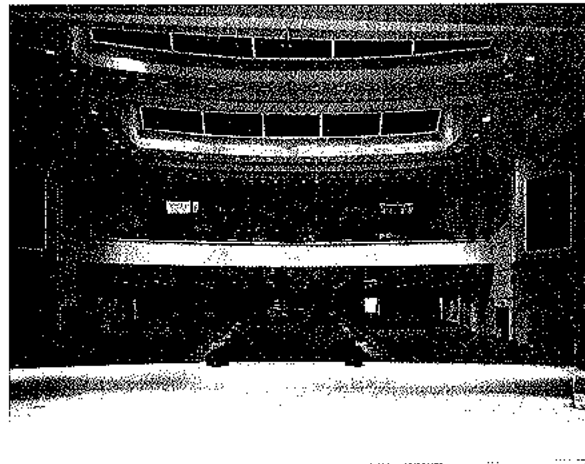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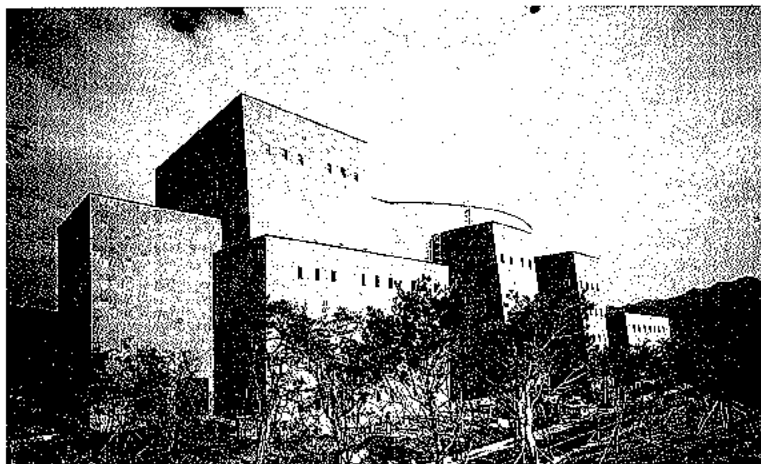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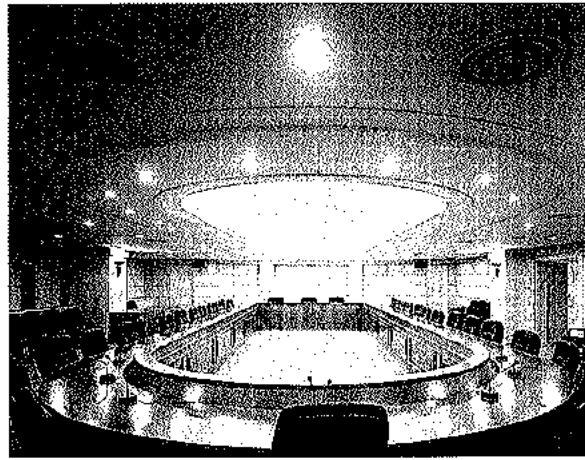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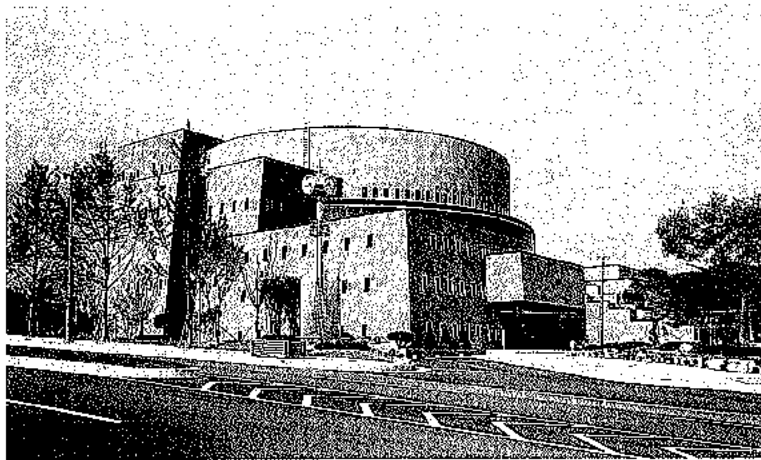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발주처의 의욕(?) 때문에 일괄된 디자인으로 결과가 맺어지지 못한 점이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형태로, 문화예술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안정된 형태는 진지함과 신뢰감을 안겨주고, 전면 대형 유리창과 주변의 소나무는 넓고 깊게 포용할 수 있는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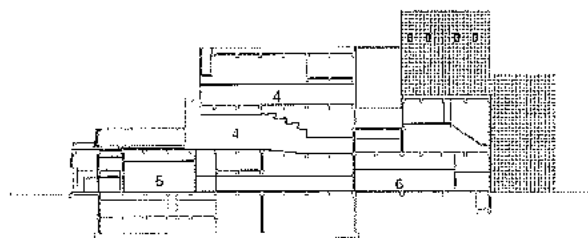


우측면도





종단면도1



종단면도2

1. 대강당
2. 주무대
3. 후무대
4. 로비
5. 소강당
6. 카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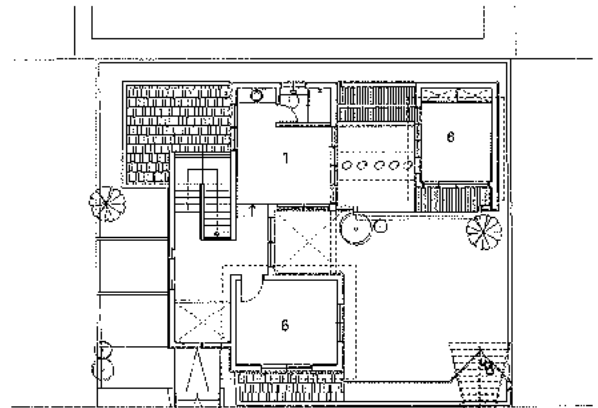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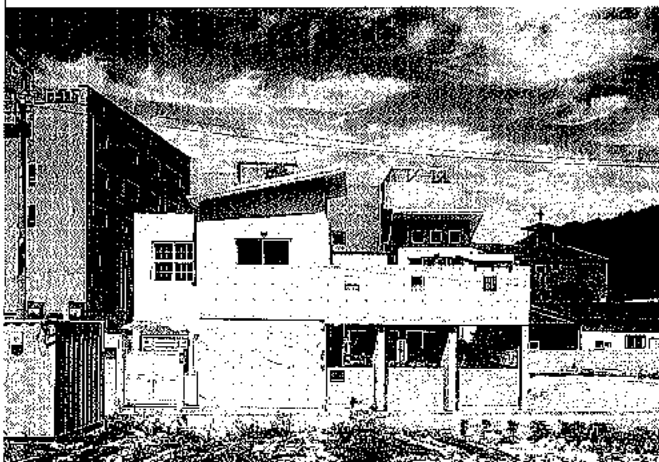
상린재 Sanglinjae

송광섭 / (주)한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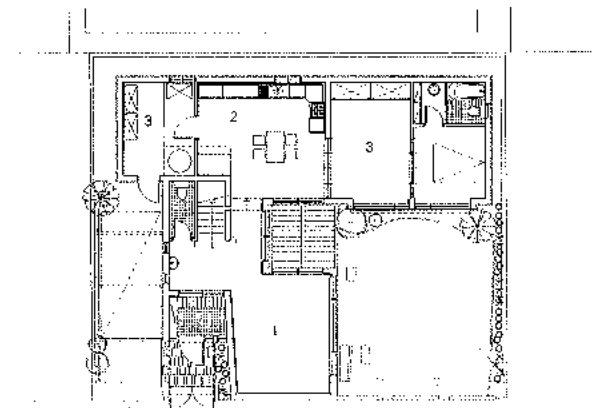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220㎡
건축면적	113.53㎡ 1층 - 105.96㎡ 2층 - 63.27㎡
연면적	169.23㎡
건폐율	51.60%
용적률	72.92%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재료 - 드라이비트, 지붕 - 아연도 강판접기
설계담당	이정웅
인테리어	한건축
조경설계	한건축
전기설계	문화전기
시공자	황수연
건축주	이창수
설계기간	1999.9 - 1999.11
공사기간	2000.2 - 2000.6
사진	문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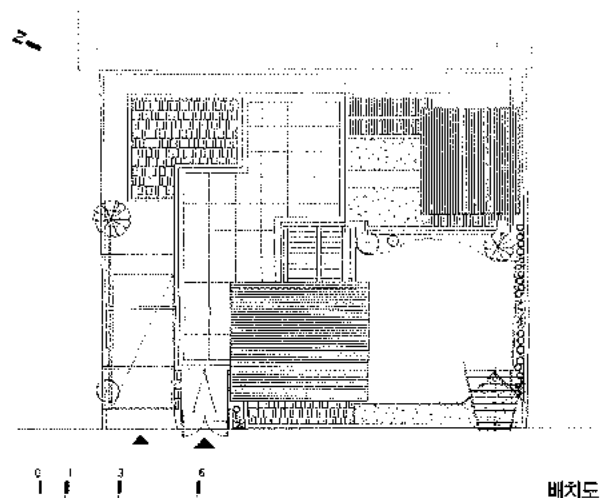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및 식당
3. 보일러실
4. 입방
5. 방
6.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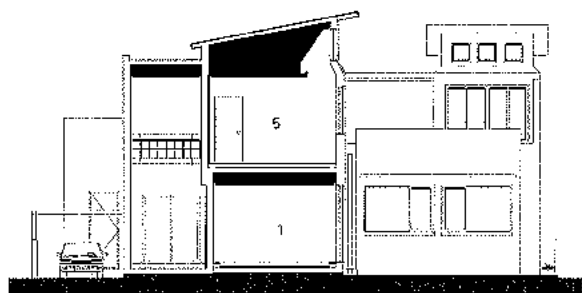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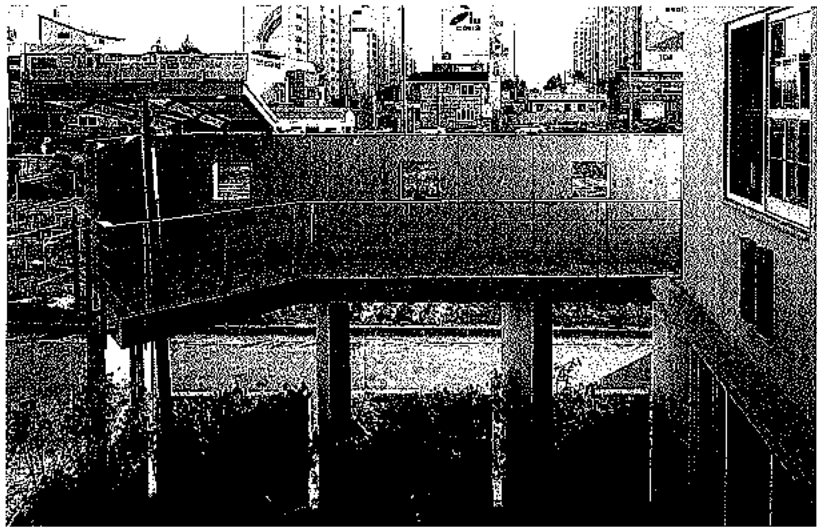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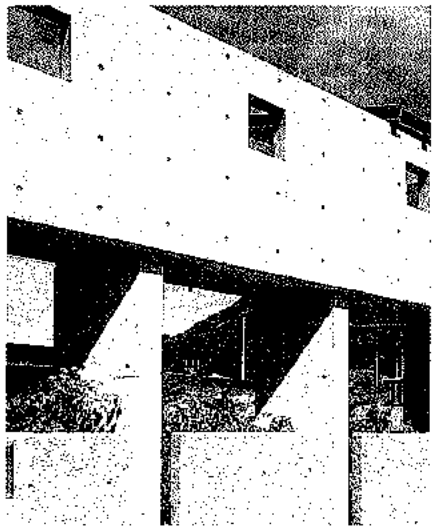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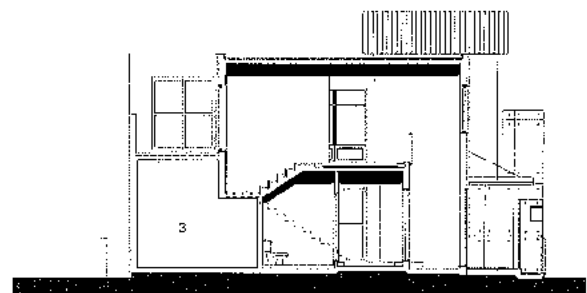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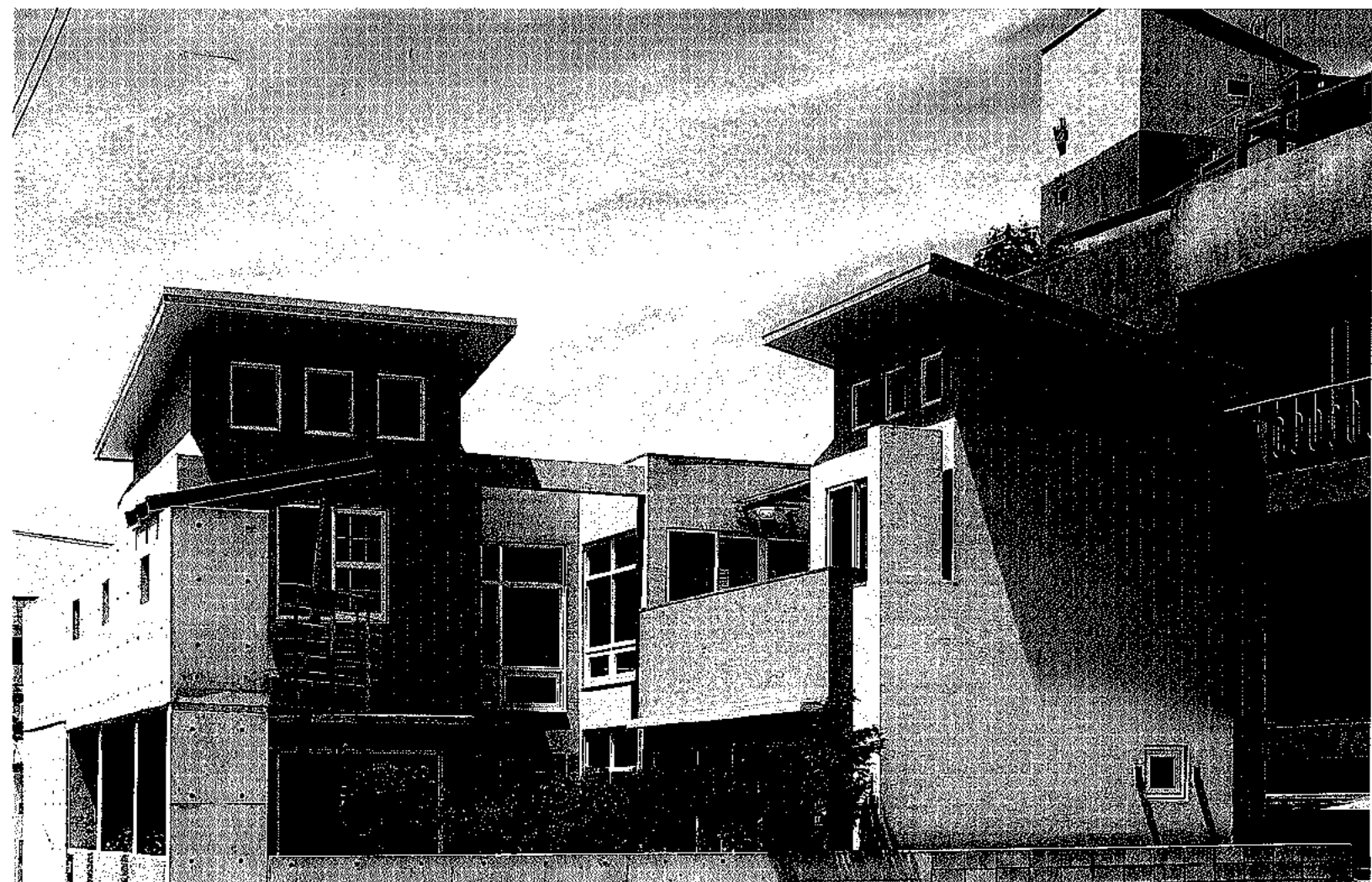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1



단면도2





정면도



풍경1

- 공통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이동
- 느릿한 말씨의 정겨움. 한결 한가롭고 여유있는 풍경들
- 유채꽃 천변과 맛깔스러운 음식, 이웃같은 포근함

풍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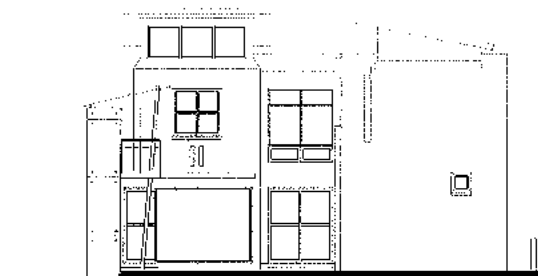
- 도시구획 사업지구
- 어느 곳이나 공통적인 무표정, 무의미
- 개발되고 있는 띄엄띄엄 서 있는 집 - 또한 무표정, 무계획적이다.

건축주 얘기

- 크지도 않고 우리 식구에게 꼬옥 맞고 편한 집 - 실감스러운 집(?)
- 제사가 있는 집
- 딸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 - 세식구 늘 함께
- 주방 + 식당 + 안방이 연계되어 큰 일을 치를 때 쓸모있고 편하게
- 외부와 적절히 분리된 도난방지와 사생활 보호
- 꼭 필요한 공사비외에는 최대한 절제
- 겨울에 춥지않고 여름에 시원한 집 등등
- 몇 번의 스케치. 만나면서 하는 일상적이고도 당연한 건축주의 얘기들

집 얘기1

- 습관화된 도시생활의 편이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 아파트 생활 - 사람들은 방관자로 전락(?). 집의 주체는 누구인가?
- 단독주거 - 보다 주관적인 관찰자에서 관리자로의 전환
- 네모난 대지와 정돈된 마당과 마루 - 적절한 구획과 땅의 이용
- 적절한 외부 요소들과 적절한 단절 및 연결.
- 낮은 담과 벽으로 싸여 감춰진 마당과 원두막 가는 길
- 징검다리 건너 사랑채(문방)가는 길
- 집속의 사람들 - 이웃집 가듯 나들이하듯 기웃기웃 걷는다.
- 바람과 빗소리, 가득한 햇볕과 뿜마루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을 느낄 수 있게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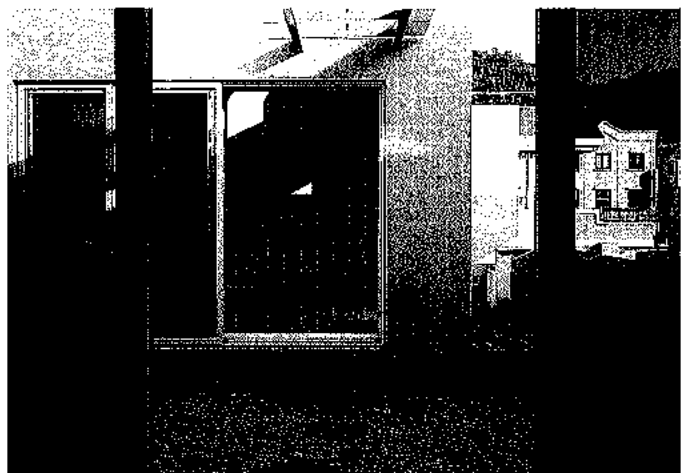
집 얘기2

- 여름공간과 겨울공간
- 원두막 가는 길과 문방 가는 길의 생각들/ 여름날의 한가로움과 전주의 전통적 가옥과 합죽선, 이강주와 맛깔스러운 음식과 귀병창들 - 여름
- 거실과 평상마루와 마당, 캐노피에 떨어지는 빗소리 - 여름과 겨울
- 안방과 주방과 식당/편이함과 따스함 - 겨울
- 집은 사는 이들의 각각의 장소 - 때론 서로 같거나 다르게 각각 바라본 모습과 풍경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집은 삶, 계절, 바람과 빛, 사람 등이 혼재된 얘기며, 순간순간 정지된 화면과 순환이다.

집 짓기

- 설 지난 2월초부터 4개월간 바쁜 나날들
- 암반으로 인한 지하층 포기, 심아전기 시스템의 한계 - 설계변경 (공사비 절약)
- 따스한 남쪽지방 날씨와 건축주의 전폭적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출발 - 서울 식구들의 잠자리와 자재수급
- 담장공사 때 징비고장으로 인한 노출콘크리트의 부분적 아쉬움 - 원두막과 길
- 알미늄 창호 + 플라스틱 창호 결합으로 인한 문제
- 3중문 제작과 재료의 한계성, 잠금장치
- 구석구석 손이 많은 공정과 지방 일꾼과의 협조, 공사질의 완성도
- 현지 목재와 문짝들의 자재 한계와 미흡
- 제한된 공사비와 공기, 자재 수급과 선정의 어려움

봄철 비쁜 외중에도 일주일내지 이주일마다 가는 전주출장의 애착과 즐거움. 현장소장의 노련한 작업진행과 체크, 팩스, 건축주의 믿음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별탈 없이 진행되고 비교적 완성도 있는 깨끗한 집 한채가 지어졌다는 성취감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늘 오래된 사이같은 이웃같은 건축주에게 고마움과 함께 상린재(常隣齋)란 옥호를 부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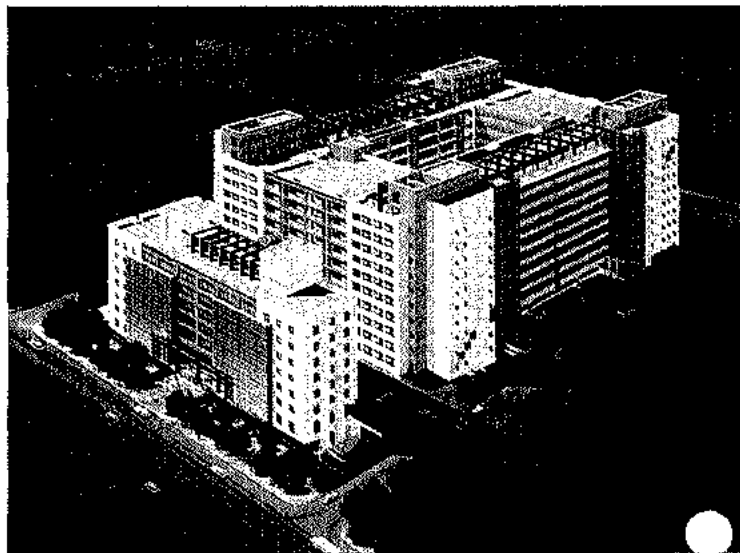


일산아파트형 공장 Flared Factory Building, Ilsan

정종영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 Jong-Young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141-1
대지면적	19,834.66m ²
건축면적	8,139.85m ²
연면적	95,450.12m ²
용도	산업시설
규모	공장동 지하2층, 지상10층 부대동 지하2층, 지상 7층
건폐율	40.91%
용적률	340.4%
마감	재물치장conc.위 수성페인트, THK12 복층유리
주차대수	585대
전기	우림전기
기계	설화설비
조경	동영조경
설계담당	조성호, 김원영, 이지현, 최승환, 성장훈, 한준일



공장 아닌 공장

일산 신도시 외곽의 열병합 발전소와 백송마을 아파트의 공간에 위치한 계획 대지는 평지로서 별다른 특징이 없는 나대지였다.

주변의 주거 지역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좌우 참고 예정지인 공장 부지와는 동질적 연계를 필요로 하였고, 똑같이 획일화된 아파트에서의 독창성이 중요시 되었다.

80년 중반에 인천 주안 아파트형 공장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90년 중반에 이르면서 수십개의 민간아파트형 공장이 설립 운영되었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업종별 전문화, 작업 공정의 자동화, 종업원의 복지 증대, 적절한 분양가 등)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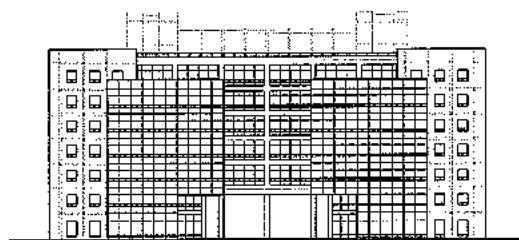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설계 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설계의 주안점으로 가장 큰 사항은 적절한 분양가로 대두되었다.

배치 계획에서 아파트 측에는 부대동을 배치하였고, 공장동은 작업의 하중 조건을 고려 전기 전자, 기계, 섬유,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층별로 하중을 고려하였다. 또한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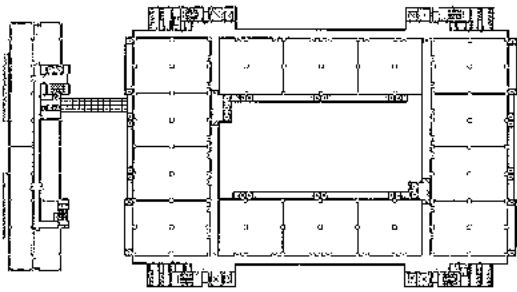
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여 대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필로티를 조성하였으며,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휴게 및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형계획에서는 가장 적절한 분양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조형으로서 건물의 기능에 따른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종업원의 휴게를 위하여 옥상정원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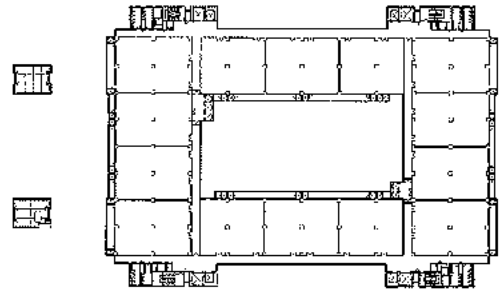
또한 입면계획에서는 단순한 아파트 형태를 몇 개의 섹터로 나누어 지루함을 없애고, 특히 색채를 통해서 공장 아닌 공장으로서의 느낌을 주고자 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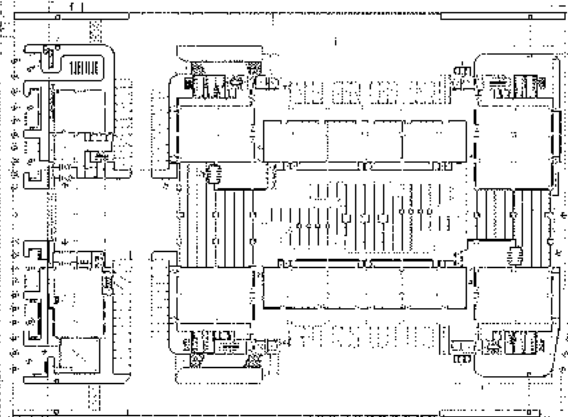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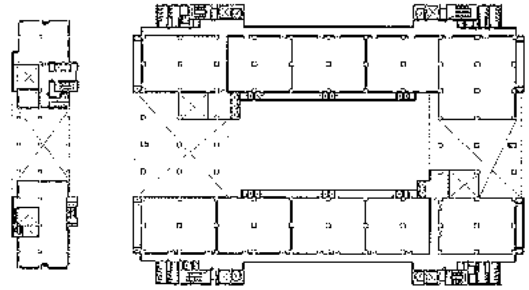
6층평면도



10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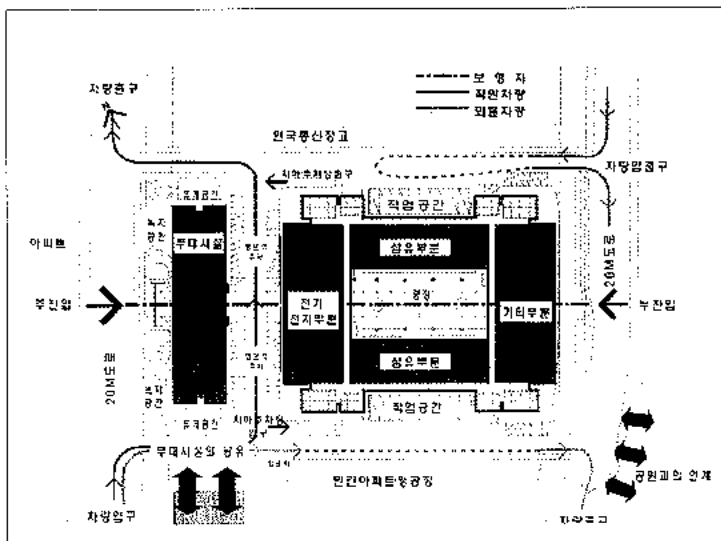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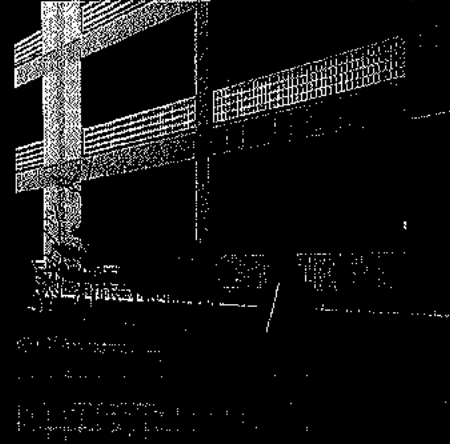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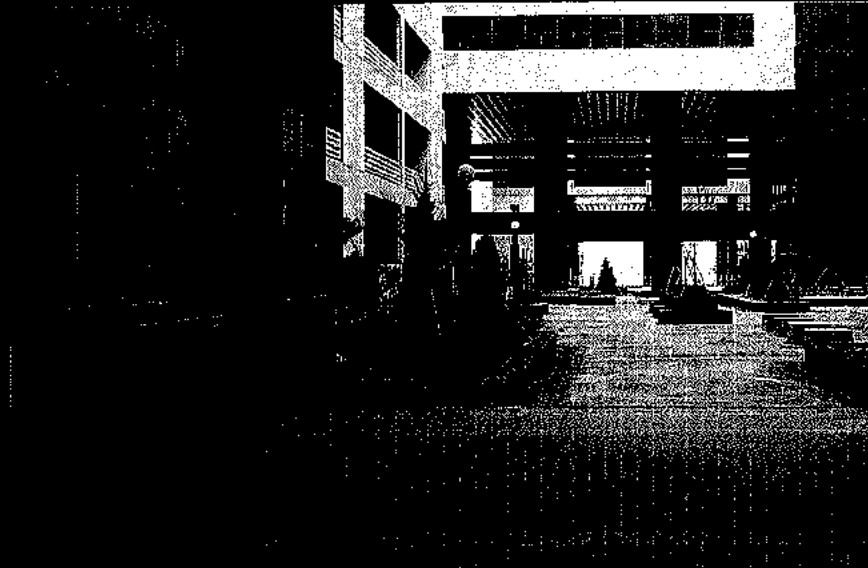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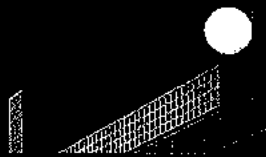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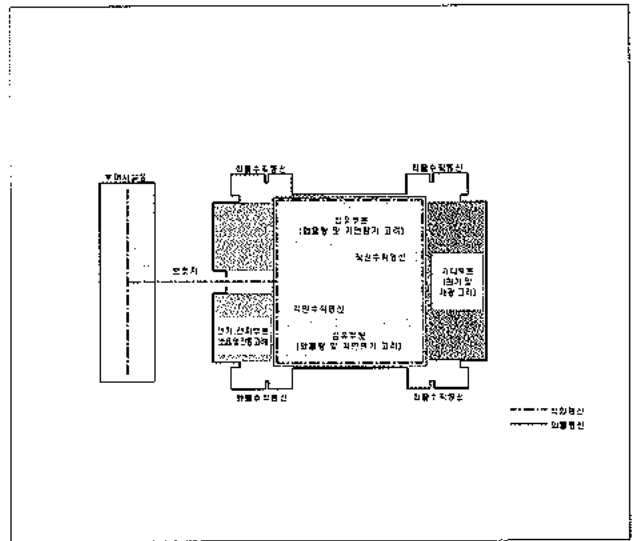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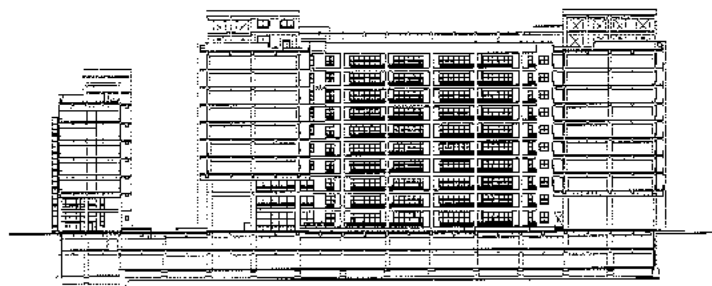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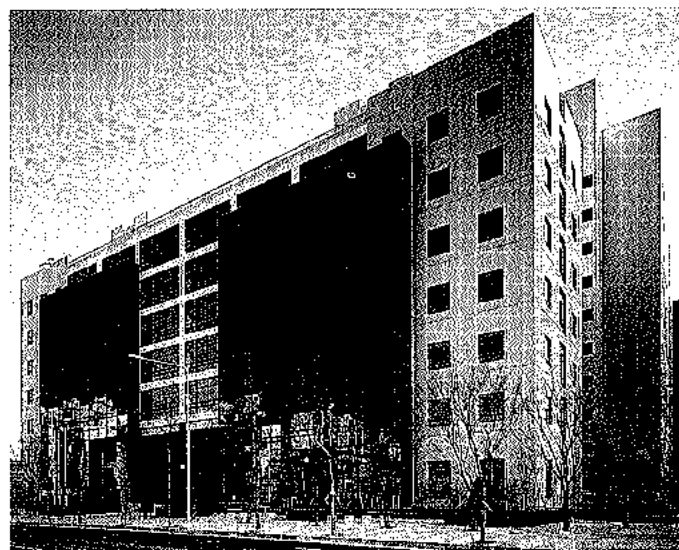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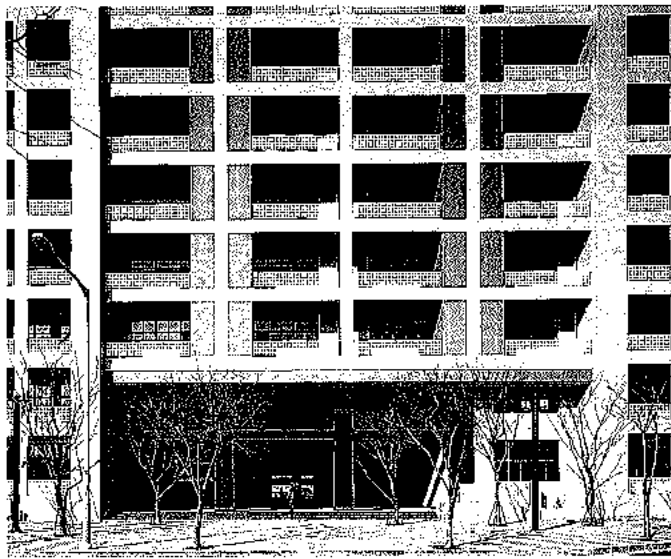
배치개념



평면개념



단면도



대덕어린이집

Daedeok Children'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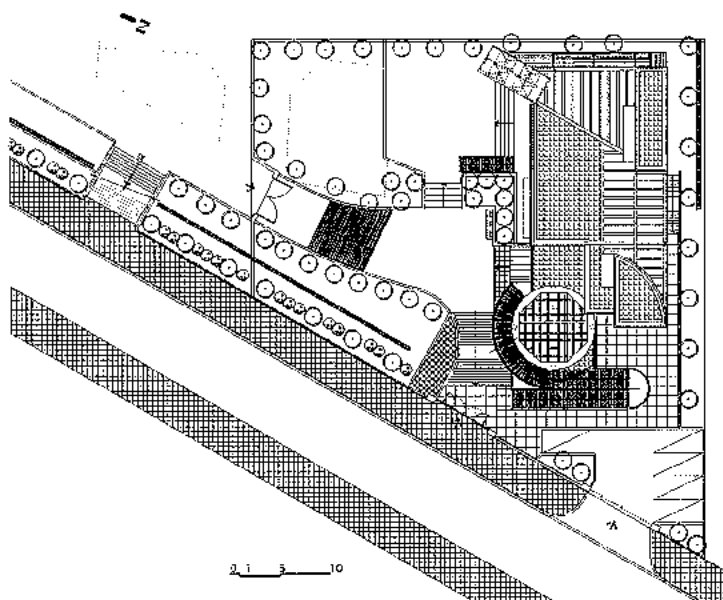
윤덕찬 / (주)윤건축사사무소(경기)
Designed by Yoon Deok-Cha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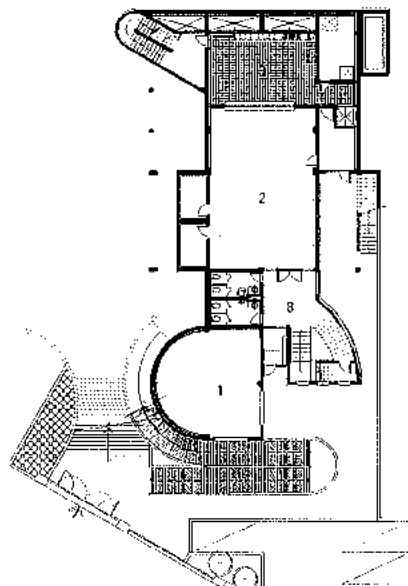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6-6
대지면적	1,740.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1,227.83㎡
건폐율	19.83%
용적률	51.53%
용도	영유아보육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드라이버트
설계담당	문일성, 김남근, 권기풍, 송기호, 이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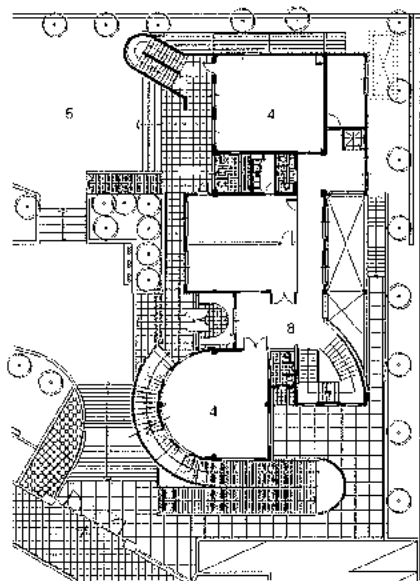
1. 시청각실
2. 식당, 다목적실
3. 주방
4. 보육실
5. 놀이터 모래장
6. 유희실
7. 테라스
8.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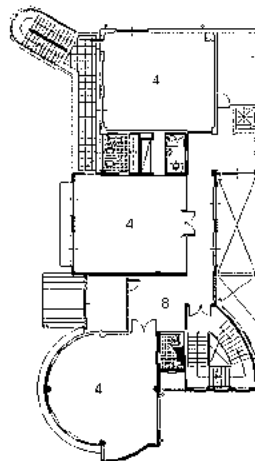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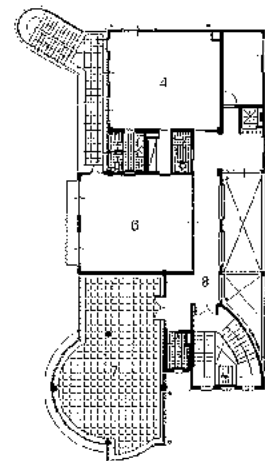
지하1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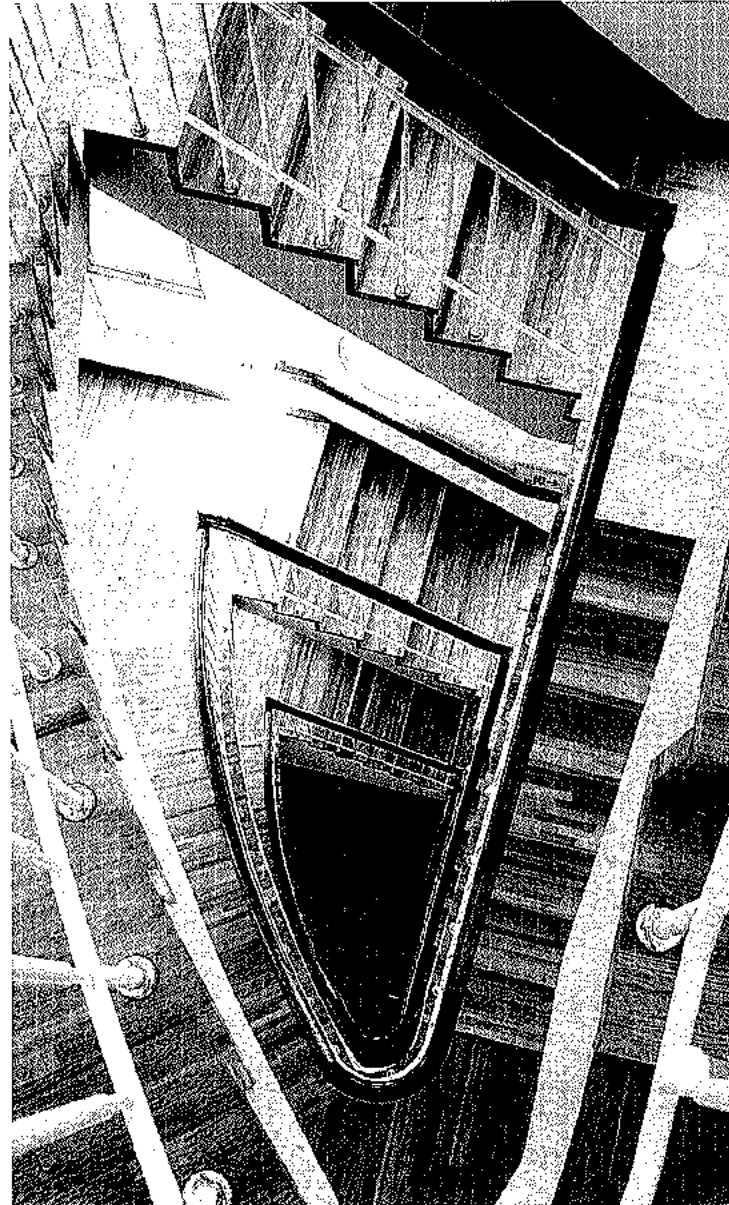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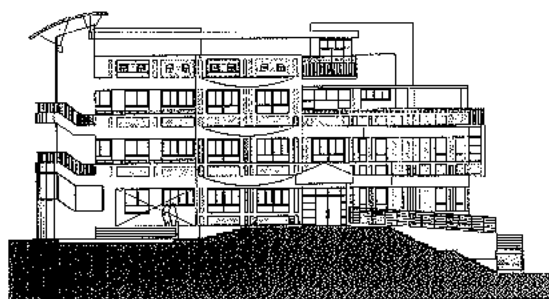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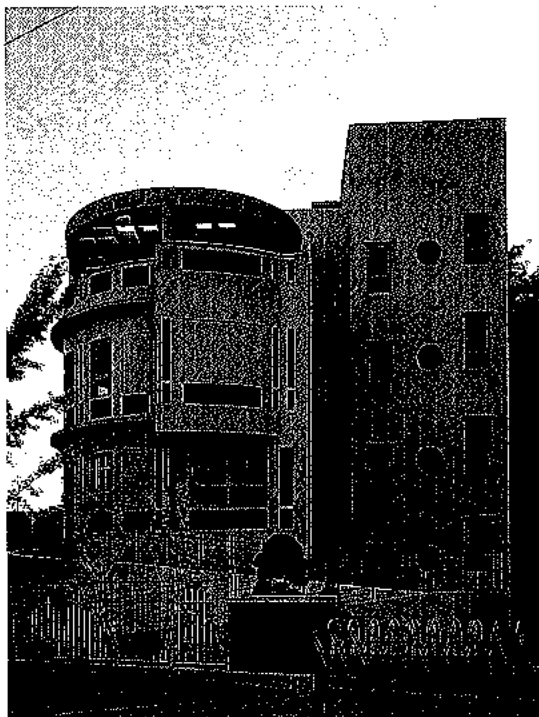


3층평면도

- 환경 : 얇은 산자락 숲속 매이소리가 있어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한 쪽의 그림
- 축 :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에는 일정한 축이 형성된다. 이 대지에는 2개의 축이 존재한다. 1개의 축은 전면도로와 방향의 축이며, 다른 1개는 주 현관에서 도시의 축을 느낄 수 있다.
- 진입 : 진입시 느끼는 2개의 축을 완화코자 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축에 순응토록 하였다.
- 비상계단 : 비상계단을 보조 계단으로서의 실용성을 고려하다 보니 건물 전면 남서측에 배치하게되고, 놀이터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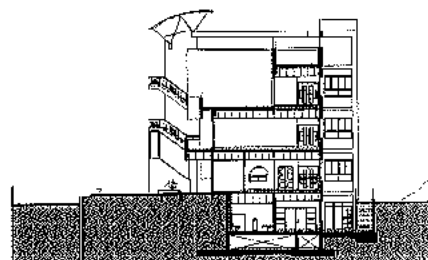
- 위 : 을 생각하다 보니 전면도로의 축과 일치하게 되었다. 비상계단 꼭대기에 아이들의 날개를 달았다. 아이들의 마음에 빗살무늬 파고라로 지붕놀이터로 구름그늘 만들어 하늘 속 동화나라로...
- 가운데 : 동그랗게 잘린 완자무늬의 지붕창. 창속에 비친 하늘 모양은 정글속 동물나라.
- 아래 : 식당 앞 선큰마당 창문 스크린 속엔 아이들의 재롱이 있고, 하늘엔 빗살무늬 파고라와 숲속 니뭇가지가 어우러져 놓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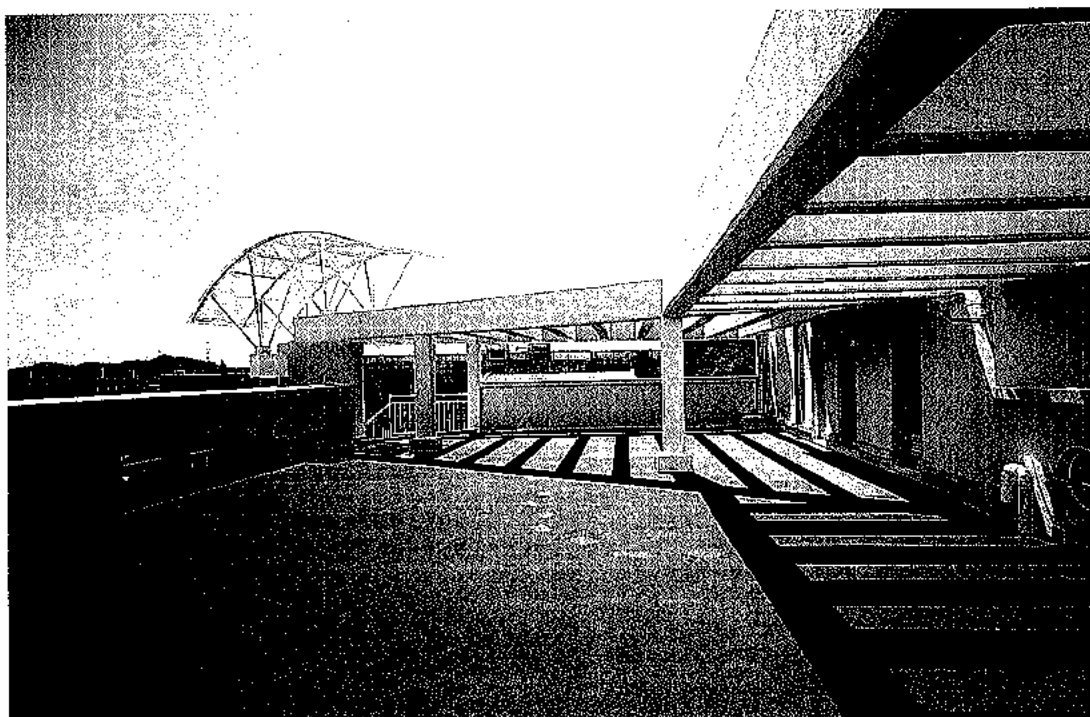


0 1 5 10

정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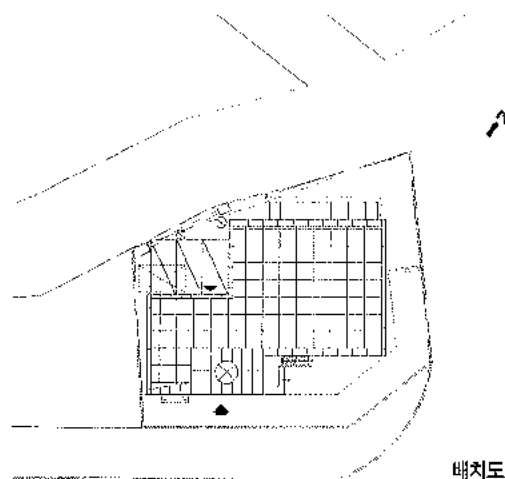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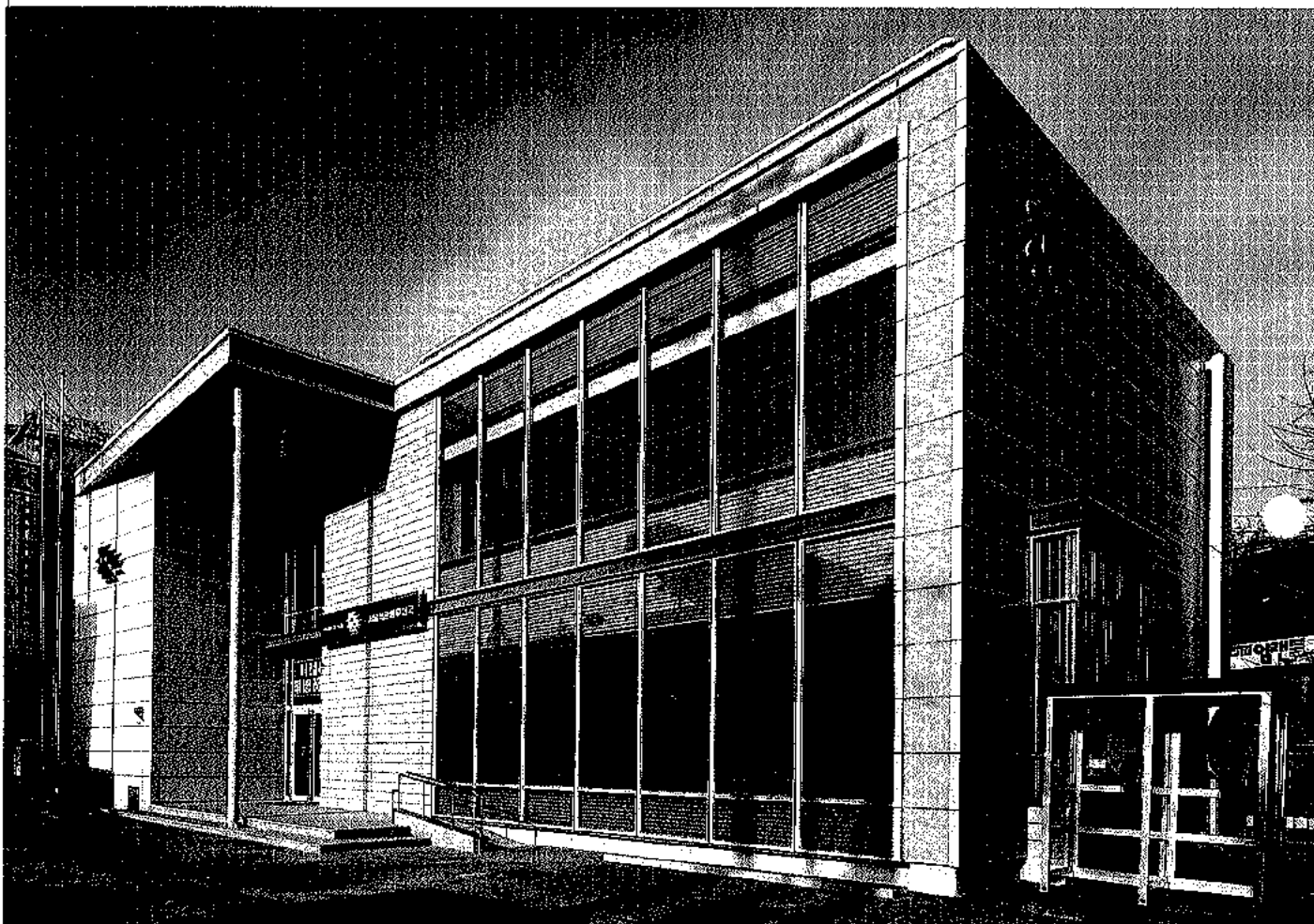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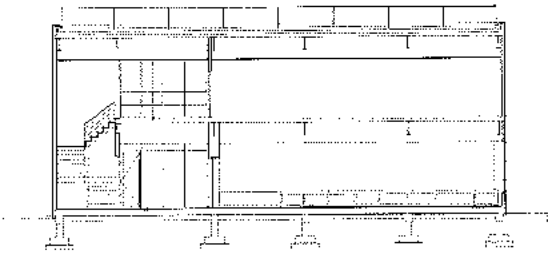
서울석관우체국

Seokgwan Pos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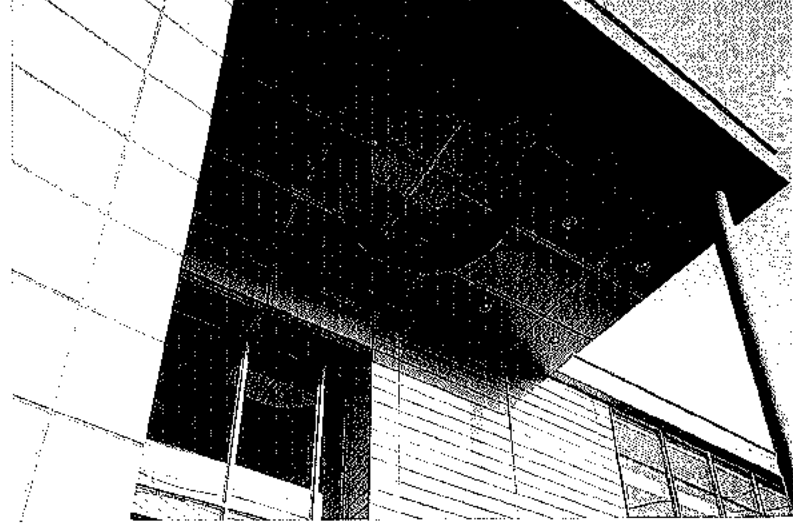
이광만·윤홍노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wang-Man & Yoon Hong-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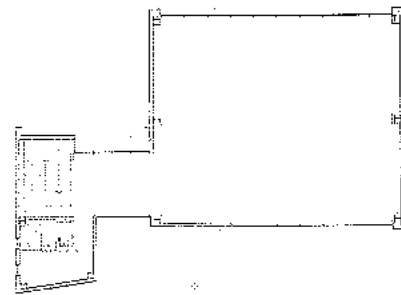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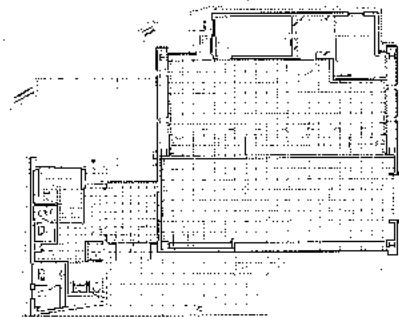
체신업무의 서비스기관으로써 우체국의 설계는 이제까지의 우체국이 다소 폐쇄적이고 단순한 기능의 건물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히 개선하여 도심지내의 활력을 부여하는 경쾌하고 기능적인 실내공간을 갖도록 고려되었다.

가로에 면한 건물의 첫인상은 투명한 실내의 경쾌함이 그 외관이 되도록 구성하여 다소 침체된 도시가로에 활력을 주는 매력적인 서비스장소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소형 공공건축물에서의 철골조의 적용은 이제까지 경제성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지지도 않은채 회피되어 왔으나, 이 설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되어 그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자부하며, 특히 건식화 공법에 의한 건축환경의 개선 및 공법개선 효과는 매우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건물의 설계는 기존우체국사의 전형적인 평면을 개선한 것이다. 공중실로 들어가는 방풍실을 홀로써 독립시켜 화장실과 계단으로 구성된 공용공간과 우체국본연의 작업/서비스공간이 구분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점은 우체국, 공중실, 현업실 등의 공간이 12.9m의 무주공간의 개방적 실내로 구성되는 장점과 함께 상부 2층 Office의 독립적인 사용가능성, 개방적 출입구구성 및 확보 등의 장점을 갖는다. 특히 현관홀은 24시간 서비스의 제공이 추진된 것으로 예상되는 우체국사의 미래상을 감안하면 자동화를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공간으로 더욱 개선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건물의 구조체는 기둥부위는 SWS490의 고강도 강을 사용하고 BEAM은 SS400의 일반강을 결합 사용하였으며, 실내 일부에 횡력에 저항이 가능한 가새구조가 채용되었다.



2층평면도



1층평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06.00 m ²
연면적	409.60 m ²
건축면적	245.14 m ²
조경면적	42.61 m ²
주용도	근린공공시설(우체국)
건폐율	48.45 % (법정 60%)
용적률	80.95 (법정 400%)
구조	철골조
외부마감	외벽 T:1.2 이면도강판/ 불소수지도장 지붕 T:3.0 노출도막방수 창호 전면 T:22 컬러복층유리 기타 T:16컬러복층유리

분당주택

Bunda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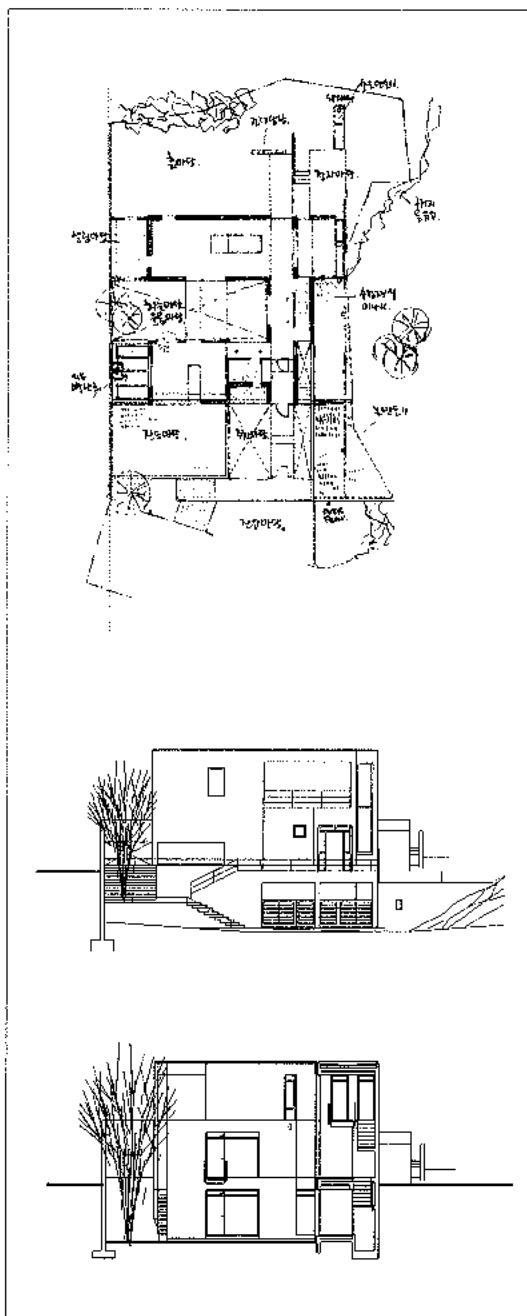
허서구 / 영건축, 스튜디오 許·家·房
by Heo Seo-Goo

한솔집

집을 이야기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상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하듯 예의를 갖출 것. 종교적 방언(方言)을 듣듯, 전달내용 보다는 전달모습에 감동을 받는 신앙적 소작인들이 아니기 때문. 그것은 放言이 될 수도 있을. 연연하던 그 무엇들에 미련을 버렸을 때, 집착하던 두손을 풀어 버리기로 하였을 때, 질푸른 새벽 바람은 폐포 하나 하나가 생운하듯 호흡되었고, 그날 아침의 첫 전화... 그리고 새로운 집짓기에 빠져든다. 막내인 한솔이는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건축가 아버지께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지만 건축가로의 꿈이 제법 진중하게 들린다. 아이에게 이집은 어떠한 인연의 고리가 될까..... "우리 집도 이름을 지어 주세요" 내게 인연되고 인연되어질 가장 소망스런 세사람의 건축주중, 이미 그 하나로 확신되어지는 두 내외분.... 집은 사람을 닮는다. 건축가 자신의 전부이기도 하고 건축주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람이 짓는 집, 그래서 집에도 인격이 있다. 겸허하게 완성을 기다리는 긴 시간의 인내가 있다. 집은 행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다섯길 아홉마당집

바람길 낮이건 밤이건, 비오는 날이건 마른날이건, 창들이 열려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여름 내내 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위한 노력들. 집은 숨쉬고 창과 문들은 바람의 길목으로 마중 나간다. 그리고 창호의 디자인을 통하여 눈길과 바람길은



완성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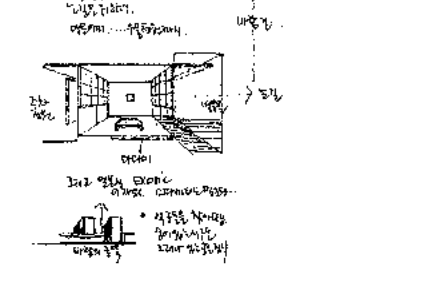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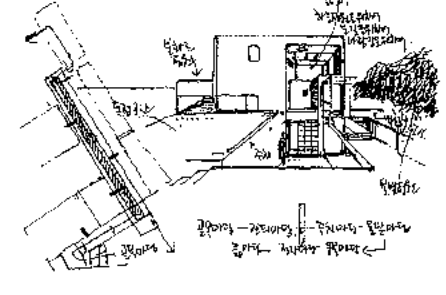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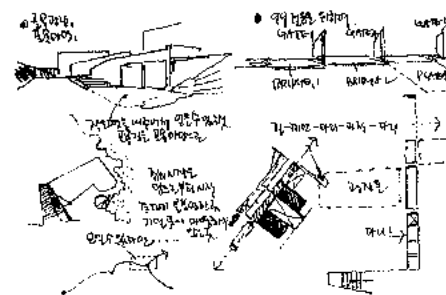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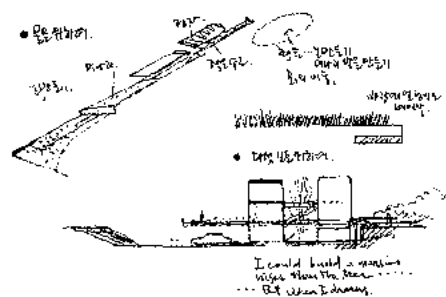
눈길 어느 곳에 서있던 집은 안모습 밖안모습의 자신의 다른 끝들을 보여준다. 제한된 건축면적 속에서 불필요한 벽들은 소거된다. 그것은 사는 사람의 내면과 선택으로 가능하게 된다. 끝에서 끝으로 가장 먼 곳들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적 정점들은 분명한 자기 논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걸음길 집 앞에서 집 끝까지 걷는 아흔 아홉 걸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집안을 가장 크고 넓게 걸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위하여 그리고 그 길들의 모습을 위하여

물길 묻는다-지하실은 왜 만드는가? 답한다-물들어 오라고,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은 아직 본적이 없다. 완벽한 방수, 본적이 없다. 물이 많이 나오면 땅, 방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온 물이 흘러나갈 물길을 만든다. 이 집의 모든 혈관들은 이곳으로 흐른다. 온수, 냉수, 오수... 집이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다섯길 우물정원의 스케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들. 과장되어진 극적 긴장감, 그래도 배려하여야 할 편안함 중에서 끈임없이 레벨 바를 움직여 본다. 다섯길 깊이의 우물정원은 아직도 결과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적응을 위한 남은 노력은 계속된다.

집의 평면계획은 마당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각 실의 기능과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도 마당의 위치와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 집을 위한 평면 계획은 마당 짜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당을 방이라 부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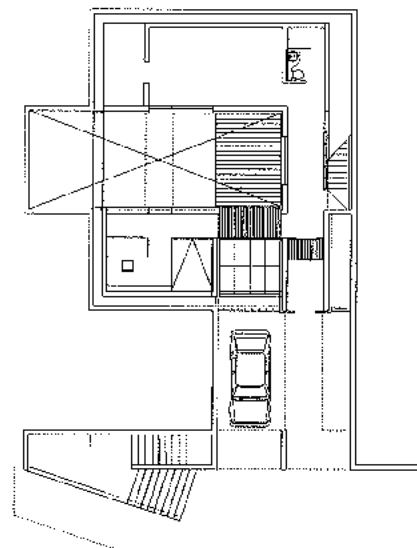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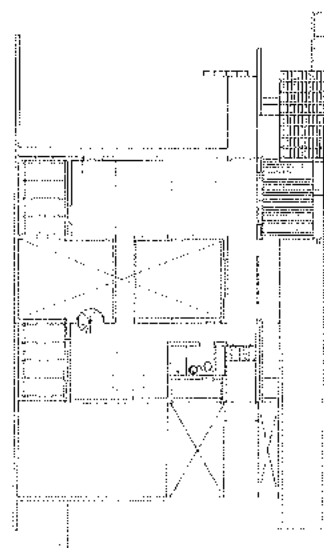
골목마당 대지 주변들이 갑자기 높아지면
서 앞으로 벌어질 막다른 도로의 형상이 심히 우려된다. 내
집앞의 땅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고 계단을 집밖에 만드는 것이 오히려 넓은 골목마당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주차정원 자동차를 위해 굳이 움푹하고 어
두운 곳을 만들 필요는 없는 일. 땅위의 바닥이 아래로 이동
하였을 뿐, 그래서 진입을 위한 극적인 공간적 장치들도 만
들어진다. 순백색의 자갈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벽 위로
는 벽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우물정원 하늘마당 중심이라는 단어는 사
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스스로 관용하여서 이 집의 논
리를 풀어나갈 그리고 기대어 나갈 중심공간으로 설정한다.
집의 모든 형식과 의미가 이곳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 담장
끝에서 솟아오를 대나무는 집과의 키거움을 하게 된다.

살림마당 부엌살림을 위한 허드렛마당. 집
주인의 성격과 모습으로 정리되어 짐. 장독대와 세탁기. 그
리고 빨랫줄.

흙마당 가장 넓은 마당, 의식적으로 손보
지 않아도 될 마당. 거실을 통하여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다. 오히려 정자마당의 앞마당이 된다. 대지와 건물의 종축
을 형성하는 걸음축은 브리지로 시작하여 돌담장으로 이어
지는 시각축과 공존한다. 흙마당 뒤편으로는 타인들의 정돈
된 가족묘가 있다. 이것이 뒷산 쪽으로 창을 내지 않은 이유
가 되기도 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아니라 그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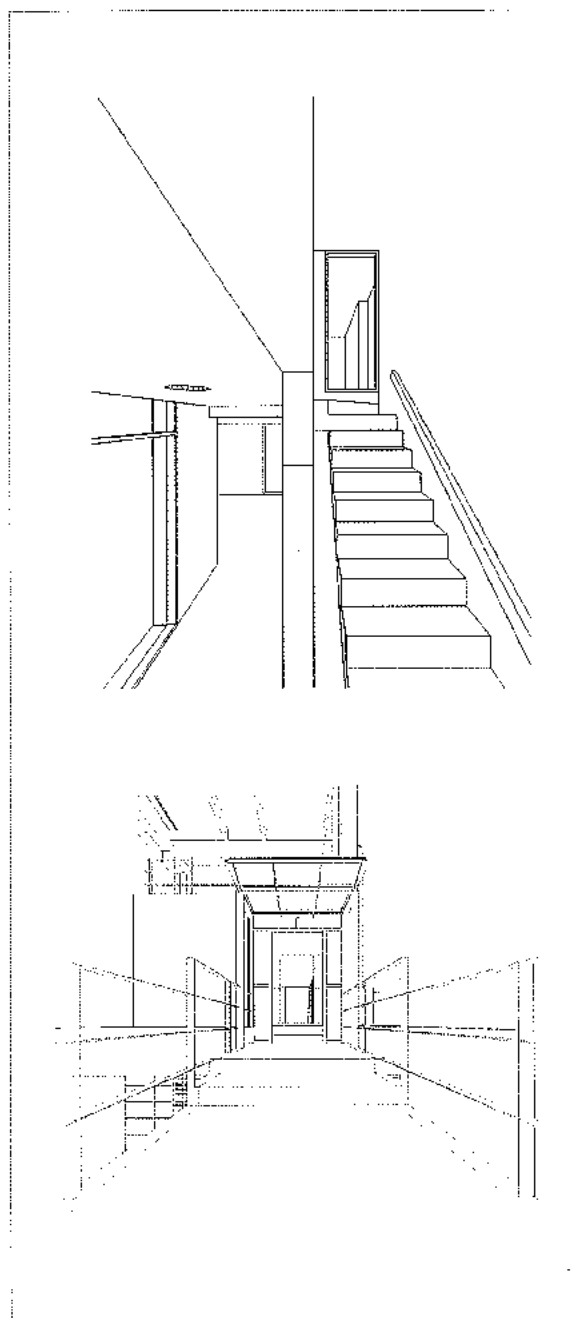
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관계일 뿐이다. 삶과 죽음,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사랑방마당 집의 앞마당이지만 응접실겸 서재를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한 독점적 공간으로서의 위치를 지님. 이 집에서는 유일한 잔디마당이 된다.

불화로 마당 FIRE PLACE 벽난로가 아니라 불때는 곳. 집안의 벽난로는 주로 겨울에만 사용되지만 실외의 불때는 마당은 연중 사용될 것이다. 연기가 새 나와도 문제되지 않으며 후끈한 우리 식 방안에서 갑갑하게 불지피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불지피는 맛. 나무 바닥과 유리지붕아래에서 불가을 저녁은 더욱 운치가 있을 것. 고기를 굽는 우리 식의 파티도 있고 집안의 소각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관용하기로 하자.

물발정원 구거지를 점유 받아 수경재배를 한다.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조금 과한 일, 미나리를 키우며 주변의 향토 흙으로 논을 만들어 물을 가둔다. 건답직파(乾沓直播)의 형식을 갖지만 물에서도 모내기할 하지 않는 직파종 법씨가 있단다. 봄, 여름, 가을, 현관으로 들어서는 다리 위에서 바람결에 춤추는 작은 들판을 볼 것이다.

정자마당 숲과 집 사이에서 가족실의 열린 마당이다. 길게 걸어 들어간 그 가역을 다시 뒤돌아 볼 수 있는 곳. 길 건너 앞산을 가장 길게 이 집으로 중첩시키며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園



옹벽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On Insuring Safety of The Breast Wall

강용근 / 인천시 재난관리과장
by Kang Yong-Geun

고도화 산업사회인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시설물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간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불신풍조 등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관리법이 제정되어('95. 10)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각종 노후시설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등 곳곳에 산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소함으로써 인재 추방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 부대시설인 옹벽시설에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불의의 재난사고를 초래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들 옹벽의 안전성 확보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건축물 대지 조성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릉지나 비탈면 등의 사율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절토구간에 대지공간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옹벽의 설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된 다수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옹벽은 균열, 노후화 등 불안전 요인들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중 다수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옹벽(재난위험시설

물 D,E급)으로 구조적 균열발생, 전도 위험(기울음), 배부름현상 발생 등 안전성의 미확보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설계적 측면에서 부실설계를 들 수 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반조사 등을 통한 내부 토압의 계산으로 적절한 옹벽 크기, 형태, 두께 등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옹벽높이 5m이상에 대하여 토목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음)

둘째로 시공적 측면에서 옹벽의 부실 시공을 들 수 있다. 옹벽의 배수구멍 확보의 부적절로 인하여 옹벽에 가해지는 토압 해소가 불가능한데 원인이 있다.

실례로 지난 1999년 8월 집중호우 때 인천 중구 남북동에서 옹벽 붕괴로 3명의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3m 이하 다 1개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2m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토록 하여야함) 또한 철근량의 절대부족, 철근배근의 잘못 등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 산곡동 D 아파트 옹벽(재난위험시설 D급)도 전도가 우려되어 1997년 6월에 25,800 천원의 비용으로 철거 후 재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1998년 8월 남동구 만수동 C빌라 옹벽(C급)이 집중호우로 전도되어 10,000 천원의 비용으로 재 설치한 사례 등 그 원인을 살펴보면 토압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된 것으로 옹벽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무관심이다.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등을 관리주체가 관심을 갖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대책강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남동구 만수동 S 아파트 옹벽 등은 옹벽 안쪽 사면 부분에 설치한 U형 측구의 관리가 부실하여 토사 등 적치물이 쌓여 있어 지표수가 U형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지 아니하고 옹벽내부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초목이 무성하여 뒤엉켜 있는 등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전물감증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의무와 책임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어 우리 주변에서 안전과 재난예방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APT 현관문안의 우리집과 우리가족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현관문 밖의 공동시설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문제이다.

단지내의 시설물에도 관심을 갖고 옹벽 등에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보강 조치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청에 의지하려는 생각 뿐이다. '위험표시조차 하지 않는 곳'에 붕괴사고라도 나면 누가 과연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

'가뭄에 도랑 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 대비 만큼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안전성의 취약지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근본적 책임은 부실시공과 부실설계를 하고 있는 시공자와 설계자에게 있으며, 다음으로 공사감리자,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향후 보완 대책으로 구릉지나 절개지 주변의 건축물설계 심의시에는 옹벽의 적정설계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한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시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후화를 방지하고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은 준공 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제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 투자에 인색하지 않는 관리주체의 의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하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며, 특히 재난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름계절학기 참관기

An Essay on The Visit to The Summer School Offered at Yan Bian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by Yoo Won-Jai

중국 동북부의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한반도와 접해있고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있다. 이 3성중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은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의 연길시에 자리한다. 이곳은 1992년 250만 조선족 동포의 생활환경의 향상과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중외합작대학(총장 김진경 박사)으로 설립되었고, 공과대학, 상경대학 및 외국어대학, 교양학부가 있으며, 간호대학 신설을 위해 건축 공사 중에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9일부터 3주간 2학년설계 스튜디오를 한동대학의 김학철 교수와 같이 담당하였다. 3학년스튜디오는 스위스 추리히 공대 HERMANN EPPLER 교수와 연변 과기대 주수일 교수가 맡았다. 중국은 새 학기 시작이 9월이라 4학년은 이미 졸업한 후였다. 3학년 스튜디오의 과제는 어느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고, 필자의 스튜디오는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던) 연길시에 있는 조선족 영웅인 주덕해의 기념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하였다. 학생들의 기초조사를 통해 주덕해가 연변을 조선족 자치주로 만드는 일을 성사시킨 자랑스런 동포라는 것도 알게 됐다.

연변 과기대의 교훈은 진리, 평화, 사랑이다. 그래서인지 이 곳 교수진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이곳의 학생들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있다. 이런학생들을 따듯이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이곳 조선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진으로 키워나가는 교수진의 모습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과의 사고방식이나 용어선택상의 차이를 메꾸어 나가는 일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순수하여 오염되지 않은 물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욱 애착을 느꼈지만, 체제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성장한 우리와는 역시 사물을 읽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듯 하였다. 한번은 기존의 주덕해 기념공원이 상징적 기념비만을 위한 장소이어서, 좀 더 현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한 학생이 시민이 아니고 인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곳은 연길시이기에 시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해도 되지않겠냐고 했다.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는 우리 스튜디오가 진행되면서 종종 일어났고, 이같은 경험은 필자에게 이곳 친구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단서들이었다. 학생들은 주로 북한어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개념이나 생각을 주고받는과정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우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 긴 대화가 필요했으며, 특히 필자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전경



조선족 주거외관



연길 조선족주거내의정지(부엌)

자유개방의 의미와 의욕적인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연길의 여름 날씨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서울보다 비교적 낮아 지나가엔 좋다. 매년 이쯤이면 세계 10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 교수들이 여름계절 학기 강의를 위해 연변 과기대에 성시를 이룬다.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 봉사 온 교수들은 단지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는 듯하다. 여러나라에서 온 지식인들이 학문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봉사에 익숙치 않은 필자로서는 처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던 보람의 깊이가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상상하고 점차 몸으로 느껴보곤 했다. 계절학기 중에 유 걸 선생이 방문해 특강을 해주었고, 얼마전엔 민선주 선생도 불학기 중강 크리틱에 참석했다고 들었다. 고마운 분들이다.

주말에는 연길시에 나가 우리동포의 생활상을 들여다 보고, 교외에 있는 조선족 마을을 방문해 북방지역의 주거형식을 직접 확인했다. 그곳에서 환경에 호응하는 건축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이곳의 주거형식은 특이하다. 추운 길림성 지역의 겨울살이를 위해 아궁이 딸린 부엌과 온돌방을 같은 레벨로 맞추어 그 공간을 정지(아궁이를 덮기 위해 마루널판을 이동식으로 깔았다)라 하고, 여기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다.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평탄한 바닥에서 작업도 하면서 밤엔 그곳이 또한 침실이다. 동절기에는 화장실만을 빼고 모든 생활을 이 한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나누어 해결한다.

연길 주변에는 어릴 적 만화에서 본 항일 독립군들의 호연지가가 들릴 것같은 광야, 개울같은 두만강을 사이로 북한을 볼 수 있는 도문시, 시인 윤동주 등과 같은 많은 문인과 독립지사들을 배출한 대성중학교, 혜랑강이 있는 용정시, 우리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등이 있어 우리에게 좋은 역사 기행지가 많이 있다. 필자는 과기대에서 마련해 준 버스 2대로 봉사 온 여러 교수들과 천지를 둘러보고 마음 뿌듯해 했던 기억이 있다. 백두산 부근의 그 끝없는 자작

나무 군락지, 그 울창함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록 3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수 기숙사가 캠퍼스내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자유개방이라는 시대 흐름 안에서 새로운 물결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고, 현대건축에 관한 정보의 창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열심히 찾아내려 애쓰는 태도가 아름답게 보였다. 과기대 교수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졸업생들의 실력은 매년 현저한 향상을 보이고, 덕분에 중국에 나와있는 한국 현지 기업체에 다수가 취업해 있는 상황이다. 짧은 학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에서도 전례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주목을 받는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곳 학생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중국에서는 국가 공인 영어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를 모두 구사하고 있어, 앞으로 졸업생들이 북한, 중국, 한국의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일 또한 이들의 몫으로 보인다. 사협회회원이었던 박세영, 김준봉, 손신원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연변과기대 교수진이다.

필자의 경우 매년 지루해 하며 보냈던 예전의 여름과 달리, 웅기내어 마련한 3주간의 시간이 뜻깊은 기억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당연히 받아들였던 물질이나 문명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각, 조선족에 대한 막연함 등등... 여러가지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숙제몽치로 안고 그곳을 떠나왔다. 총경비는 항공료 41만원이 전부였고, 숙식은 대학에서 제공해 주었다. 필자가 그곳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양에 비하면 조금 미안할 정도의 비용이다.

혹 독자 중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돕고 싶은 분은 서울 역삼동 계몽문화사빌딩내 연변과기대 서울 후원회 사무실(02-561-2445)로 연락하면 된다. 건축 서적·신간서적이 아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안쓰는 컴퓨터, 건축 모형재료 등이 이곳에는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圖



HERMANN, 주수길 스튜디오



김학철, 유원재 스튜디오



백두산 천지



연길시내

협회소식 / 74

건축계소식 / 77

해외잡지동향 / 82

법령 / 88

계획작품 / 98

현상설계경기 / 10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2

회원현황 / 106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 벌칙 대폭 강화 방침 반대 제도정비우선 및 형평성에 어긋나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개정안이 입법예고(2000. 8. 4.)됐다.

이는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용승인시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관련」벌칙은 건축사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도 공무원의제 함으로써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사안에 형법 제227조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사례는 다른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특히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데, 유독 건축사에게만 이러한 형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제출했다.

현재 현장조사·검사업무에 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운영방식 및 업무의 중요도가 각 지방마다 상이하고(예, 서울시특별검사원/허가신청서 설계는 건축사가 하며, 지방에서는 제3의 건축사면 기능함),

- ◆ 공무원의 업무를 허가나 사용승인시 건축사에게 강제로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그 운영을 일괄 위임하고 있다.
- ◆ 이에 대한 대가는 수수료 성격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건축법시행령의 수수료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운영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음),
- ◆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타 법률(별첨-참고자료)에도 그 예가 없다.

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성격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속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단순한 행정경비적 성격의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처벌기준 강화는 부당하다.

이사회

8, 9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8회(7월 11일), 제9회(8월 8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8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UIA특별기구(FIKA)구성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라는 명칭으로

UIA회원단체로 가입키로 의결)

〈기타사항〉

- UIA특별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9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청주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충북건축사회 소속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지역을 관할할 청주지역건축사회를 설치키로 의결함)

〈협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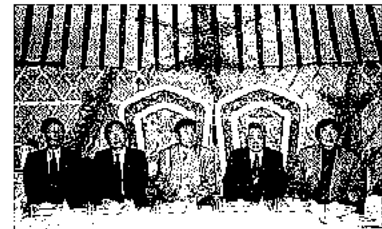
- 제1호 : 부산건축사회 회비 미송금 문제에 대한 협의
- 부산건축사회 회비 미송금에 대하여 감사에게 수시감사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차기 이사회

에서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함.

- 제2호 : 특별대책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우리협회, 몽고 방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몽고건축사회 대표단과 함께

〈참고자료〉(발착적응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가 있는 법령

관 련 법	발착대상자	업 무	법 칙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 제19조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공사가 설계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허가, 지정, 인가, 협의, 해제 등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기사업법 제65조의2	- 신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의 임원 및 직원	- 자가용발전설비변경신고접수 - 전기설비검사 및 임시사용의 허용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기공사사업법 제33조	-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사업자등록접수, 변경신고, 시공능력평가 - 전기공사기술자 관리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도시가스공사사업법 제45조의2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시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원공도면접수, 사용검리 및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안전교육 실시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8조	- 위탁업무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산업표준화법 제42조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산업표준의 제정, 폐지, 인증기관지정 및 업무정지 - 품목, 종목, 규격의 지정명령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0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공사시공능력평가, 건설공사실적신고 - 경영실태조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내지제132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53조의2	-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本條新設 94·1·7)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실행계획인가, 상하수도사업 인가 -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우리협회는 한몽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지난 95년 상호교류협정을 맺고, 우리협회 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때 몽고 대표단을 초청하여 양국사업계획서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의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97년에는 서울에서 서로 격년으로 초청, 방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 해는 우리 협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몽고를 방문했다. 이의구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대표단이 참가한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안건축사캠프존 건설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몽고협회의 골프장 건설에 기술적 자문을 하며, 북한 건축사의 국제 건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상호 건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9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역건축사협의회 (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에서는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포럼을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Asia : The State of The Architect라는 주제로 오는 9월5일(화)~9월9(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되며, 우리 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협회메일서버의 확충에 따른 변경

◇세팅 순서

- 1) 바탕화면에 있는 outlook express를 더블클릭하여 실행
- 2) 메뉴 중에 계정을 선택
- 3) 메일계정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일서버를 선택한 후 등록정보를 클릭
- 4) 등록정보 창에서 서버라는 메뉴를 선택
- 5) 서버설정에서 기존의 POP3를 확인한 후 SMTP,POP3서버란에 각각 mail.kira.or.kr이라고 변경
- 6)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적용을 클릭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메뉴의 배달을 눌러 에러가 없음을 확인

기타 설정시 문제가 있으면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람.

(참고: 메일서버의 확장 및 분리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알림)

※ 주의: 메일서버의 사용은 사물코자하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함.

건축사자격시험 실시

9월 3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올 해 건축사자격시험이 9월 3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부산, 광주 세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험시간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시험
○ 건축법규 - 10:00 ~ 10:50 (50분)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설계 - 12:00 ~ 18:00 (360분)	10:00 ~ 12:00 (120분)

시험장소

구분	시험장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편
서울	제 1 시험장	00001 - 01968 30004 - 30197 014 - 074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도보 15분
	제 2 시험장	01969 - 02971	광진중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도보 10분
	제 3 시험장	02972 - 03928	자양중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10분
	제 4 시험장	03929 - 05000	광정중학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도보 10분
부산	부산시험장	10001 - 11999	경남공업 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 서면, 범내골역 도보 15분
광주	광주시험장	20001 - 21196	동신중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광주 북구 동향동	광주역, 시청10분 (차량이용)

건축자재정보 회원가입 안내

■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체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함.

■ 비용(자체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 (계재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체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송부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제도팀 허 훈
(02) 581-5711~4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강화

오는 2005년부터 4년제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나 건설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게 주어지던 면제혜택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건축설계분야 대외개방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이 건축사의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의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건축사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따라서 대상자중 건설기술 자격취득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건축분야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7년이상 경력자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 이밖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산정시 예비시험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이전의 경력도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15일까지 응모신청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준비위원회와 성남시에서는 '미래 도시 이미지 디자인 / 복합 문화 공간 (Millennium Community Center)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성남시환경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새천년 준비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지역은 자유 선택이며, 전국 환경디자인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관련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공모전의 1등상에게는 상패와 3천만원의 상금이, 학생공모전의 대상에게는 상패와 5백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입선작은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기간 중 전시되며, 입선작은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문의: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운영본부

Tel : (02) 3147-1192, 1193,

1434

Fax : (02) 3147-1194

E-mail: seoul2000@millenniumed.org

건축자재정보 회원가입 안내

■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체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함.

■ 비용(자체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 (계제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체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송부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제도팀 허 훈
(02) 581-5711~4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강화

오는 2005년부터 4년제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나 건설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게 주어지던 면제혜택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건축설계분야 대외개방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이 건축사의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의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건축사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따라서 대상자중 건설기술 자격취득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건축분야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7년이상 경력자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 이밖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산정시 예비시험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이전의 경력도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15일까지 응모신청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준비위원회와 성남시에서는 '미래 도시 이미지 디자인 / 복합 문화 공간 (Millennium Community Center)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성남시환경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새천년 준비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지역은 자유 선택이며, 전국 환경디자인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관련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공모전의 1등상에게는 상패와 3천만원의 상금이, 학생공모전의 대상에게는 상패와 5백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입선작은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기간 중 전시되며, 입선작은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문의: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운영본부

Tel : (02) 3147-1192, 1193,

1434

Fax : (02) 3147-1194

E-mai : seoul2000@millenniumed.org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개최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COEX에서

오는 2000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있는 COEX에서 '인간, 지구, 문화를 존중하는 창의성'을 주제로 환경디자인분야의 전례 없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후원하며,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실행하는 행사로써, 전문가대회 및 학생대회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이 세계 대회에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연계된 3가지 국제대회, 그린디자인 세계대회, 문화 디자인 세계대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대회마다 환경디자인의 진지한 주제를 '특별 심포지엄'이 3-6개씩 준비되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회기간 중 각 대회와 관련된 별도의 전시회 및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인위적 환경과 인간, 지구, 문화와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세계적 석학, 교육자, 디자이너 등 현직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진작시키고 환경디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사무국(Tel. 3147-1192), 홈페이지 (www.millenniumED.org) 참조.

부산시민건축대학

9월 27일 개강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의식의 변화로 건축물을 보는 시각이 날로 높아지고 건축물 또한 대형화, 다양화, 개성화 되어가는 추세에 비하여 건축주와 시공자의 건축설계에 대한 이해와 건축행정 환경의 급변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일반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고취와 정보제공, 건축관련 교양강좌의 장을 통하여 건전한 건

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시민건축대학을 개최한다.
- 개강일시 및 장소: '00. 9. 27(수) 14:00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12층 예당홀
- 강좌 진행방법: 주1회 - 매강좌 2시간 (7주간)
- 수강대상: 일반시민 160여명
- 수강료 및 교재대: 무료
- 수강안내: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사무국 (051-633-6677)
- 강좌내용 및 일정 (시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일시	강좌	내용	강사	근무처	비고
00.9.27	개강식	대학운영 요강 소개	본건축사회		051)633-6677
	제1강좌	잡과 풍수파워, 인테리어	장영훈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051)510-1353
10. 4	제2강좌	한국건축의 공포 -공포의 구조와 그 변천-	신영훈	서울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	02)736-3814
10.11	제3강좌	전통건축 답사	홍재동	공학박사이상향 건축사무소 소장	051)242-9439
10.18	제4강좌	건축물의 사공 및 유지 관리와 하지대처방법	이영희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41-7607 051)200-7615
10.25	제5강좌	실내장식 및 건축물 리모델링	양진석	양진석디자인(주) 대표이사	02)545-7242
11. 1	제6강좌	2002년 ASIAN GAME 관련 시설 추진현황 및 건축물관련법규 및 민원사례	박인갑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시설부장 공학박사	051)888-6040
11. 8	제7강좌	간디라의 불교건축	김성곤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051)207-4659
	수료식	대학운영 관련 건의 및 질의 응답	본건축사회		051)633-6677

* 강좌일시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건축·도시 사진전 개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는 부산의 문화개혁과 타예술 분야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예술제 2000축제의 하나로 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은 현대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도시를 오브제로 하여 만들어지는 한 컷의 사진 속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도시의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찾고자 기획됐다. 작품접수는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11"×14"크기의 컬러 또는 흑백 사진을 접수비 1만원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1-469-7637

제 8회 간향건축문학상 결과 발표

가작 2편

건축세상 구석구석에서 발견되고 일어나는 다양한 행태와 현상들의 진지한 '드러내기'를 주목하는 <간향건축문학상>의 여덟 번째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매년 봄, 가을에 걸쳐 연 2회 시행해오고 있는 <간향건축문학상>은 건축 에세이스트를 꿈꾸는 이들의 장으로 그간 건축인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 참여와 내용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건축」을 주제로 한 제 8회 간향건축문학상은 지난 7월 25일 작품접수를 마감하고, 8월 9일 임종업(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두열(신환경건축/이두열 건축계획연구소 소장), 이주연(간향건축출판공작소 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자리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졌다. 총 응모편수 7편이 예심없이 모두 본심의 대상으로 채택되어 열린 심사에서는 당선작없이 「2000년 바다와 도시에 관한 여행-임창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2학년)」와 「그림자와 Text-홍순연(동서대 건축·토목대학원 2학기)」등 가작 2편이 수상작으로 채택됐다. 시상식은 9월 16일 오후 1시 월간 건축인 포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중앙일보사, 생태건축강좌

9월 4일부터

중앙일보사에서는 9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앙일보사 문화센터(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에서 생태건축 강좌를 실시한다. 총 12회로 3개월동안 실시될 이번 강좌는 과학재단 중점과제연구회의 생태주거건물연구회(회장 : 임상훈)와 공기조화냉동공학회와 생태건축설비분과(분과장 : 임상훈)의 협조로 중앙일보문화센터에서 기획한 생태건축고급기술강좌로 학·연·산 전문가그룹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 내지 제로로 하는 21세기 대응 생태건축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생태건축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수강료는 15만원이다. 문의: 중앙일보 교육사업단(02-776-4414)

■ 강의일정

- 9/4 임상훈(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생태건축기술과 전망
- 9/18 이영문(태평농법 창안자): 생태건축을 위한 태평농법
- 9/25 윤원태(한국전통초가 연구소장): 한국전통 흙집
- 10/2 이성(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생태건축을 위한 자연에너지 이용기법
- 10/9 김정태(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자연채광기법
- 10/16 김선하(목원 엔지니어링 소장, 기술사): 생태건축과 건축설비
- 10/23 조동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생태건축 인증기준 및 평가
- 10/30 김준태(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태양에너지이용 기술

- 11/6 강대호(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시대의 한옥
- 11/13 박동진(경원대 건축설비학과 교수): 생태건축과 건축환경
- 11/20 김상일(다양건축사무소 소장): 생태건축 선진국 사례
- 11/27 김용봉(현대산업개발 부장, 기술사): 생태건축 국내 사례

생태건축 세미나

9월 21일 과총회관에서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생태건축설비분과에서는 생태건축연구소와 생태주거건물연구회의 협찬으로 오는 9월 21일 오후 1시부터 과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생태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 13:30-14:00 음양오행으로 본 생태건축 (장동순: 충남대 교수)
- 14:00-14:30 태평농법과 생태건축 (이영문: 태평농법 창안자)
- 14:30-15:00 생태건축과 전통흙집 (윤원태: 한국전통초가연구소장)
- 15:00-15:30 생태건축을 위한 자연채광기법 (김정태: 경희대 교수)
- 15:30-16:00 생태적도시건축계획시스템및수단(김현수:건기연 수석연구원)
- 16:00-16:30 생태건축과 설비기술 (김선하: 목원엔지니어링 소장)
- 6:30-17:00 생태건축 선진사례 분석 및 평가 (정광섭: 서울산업대 교수)
- 17:00-17:30 생태건축 적용 계획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장)
- 17:30-18:00 생태건축 전망과 보급방안 (임상훈: 생태주거건물연구회장)
- 18:00-19:00 생태건축에 관한 풍수적 기법 (황영웅: 동국대 교수)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전시회

9월 4일부터 9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의 건축설계학과와 실내건축설계학과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2000년도 1학기 설계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건축설계스튜디오

- 장해철(기초과정): 3×3×6, 6×6×6테마가 있는 카페
- 윤승중: 건국대학교 건축학과(건축대학+건축대학원)
- 김인철: 도시의 여백(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소규모 업무시설)
- 김 원: 소규모 도시집합주택의 생태환경적 설계
- 이정근: 과정으로서의 건축(천년의 문)
- 유 건: Sense of Community(도시고밀도 집합주거단지)
- 이상현: 수평과 수직(한국지역건축의 전형에 대한 탐구)
- 김낙중: 사잇공간(In-Between Space)

실내건축설계스튜디오

- 이호중(기초과정): 가구식 구축방법을 통한 공간 관계성과 확장성
- 전시형: 전시공간 디자인(미술관)
- 임은영: The Order in Chaotic Rhythm
- 김개천: 至, 誠, 無, 息, 7×7×7 Housing
- 황옥채: 상업공간 및 주거

건설연구정보센터, 2000년 2학기 가상강의 실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수강신청

과학기술부산하 한국과학재단지정 건설연구정보센터에서는 2000년도 2학기 가상강의를 실시한다. 건축관련 8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할 이번 가상강의는 9월 2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문의: <http://www.cric.or.kr>

- 현대건축의 계보학/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한국건축사1/전봉희(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주택·단지계획/강인호(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 건축 및 환경계획/송승영(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건설사업비관리/이현수(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The Unbuilt(3차원 모델링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김성아(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건축법제연구/윤혁경(서울시청 계장)

제4회 건축사진강좌 개최

9월 5일부터 11월 28일(12주)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는 제4회 건축사진강좌를 2000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서 진행하며, 수료후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8시30분

- 장소: 청암 건축사진 스튜디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7 (청화빌딩303호)

〈뱅뱅사거리 논노빌딩 옆 서측건물〉

- 참가인원: 12명

- 참가자격: 사진의 기초지식이 있는분

- 참가비: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문의: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전화 (02) 598-6100

- 강의내용

1주 - 건축을 보는 눈 (슬라이드 강의)

2주 - 필요한 기자재 선택 (카메라, 렌즈, 필름의 선택)

3주 - 빛과 공간의 조화 (자연과 인공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1 (타임, 조리개, 심도의 이용방법)

5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2 (도시촬영실기(토요일예정))

6주 - 모형촬영의 표현과 테크닉 (인공조명을 이용한 모형촬영실기)

7주 - 인테리어촬영의 테크닉 (각종 실내촬영 연구및 과제)

8주 - 야외사진촬영의 테크닉 (현대건축물실기 과제)

9주 - 고건축 촬영실습(토/일요일) (건축사진기행-1박 2일)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

건축가협회 9월 금요토론회

9월 29일 홍사단 강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2000년 9월 금요토론회를 오는 9월 29일 오후 4시에 홍사단 강당에서 개최한다. 임창복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바람직한 현실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도시정비법과 건축가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발표자:

정 석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한국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시사점
사토 시게루 교수(와세다 대학) - 일본의 주민 참여에 의한 수복형 정비기법
-토론자:

건축가입장-문홍길/ (주)하우드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공공 입장 -배경동/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과장
학자 입장 -양운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문의: 031)290-5529, 7555
(과/ 031)290-7550)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2001학년도 신입생모집

석사 50명, 박사 12명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2년과정, 3년과정): 건축설계전공
· 박사과정: 계획전공, 도시환경전공, 역사·이론전공, 디지털건축

- 모집인원

· 석사과정: 2년과정 33명, 3년과정 17명
· 박사과정: 12명

- 전형방법

· 석사과정:
특별전형-영어, 실기(개념스케치 및 해설), 면접
일반전형-작품집, 실기(개념스케치 및 해설), 면접

· 박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 지원자격

· 석사과정
3년과정: 학사학위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출신학과와 관계없음)

2년과정: 건축학 전공을 한 학사학위취득자와 취득예정자

· 박사과정: 건축학 전공 석사학위자 및 예정자

- 문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02-390-5245,6)

전형일정

구분	전형방법	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석사	특별전형	2년과정	9.25.(월)~29(금)	10.12.(목)10시	10.17.(화)
		2년과정			
	일반전형	3년과정	10.30.(월)~11.8.(수)	11.10.(금)10시	11.14.(화)
박사	일반전형				

신간안내

건축가의 일대기 대하소설『마로니에』

▷건축가의 일대기 대하소설『마로니에』



3부작 대하소설 '마로니에' 와 그 속편 '은하가 흐르는 개펄' 은 건축가 김기석(아람미당)이 필명(석진우)으로 발표한 본격적인 문학작품이다. 현대시학을 통해 70년대 시인으로 데뷔 한 작가는 근래 '영혼의 편지' 라는 시집을 낸 바 있고, 95년부터 천리안 문단작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소설 마로니에는 특이하게 2인칭소설로 세권으로 되어 있다. 제1부 사랑의 지문은 70년대를, 제2부 겨자씨의 진실은 80년대를, 제3부 한국인의 사랑은 90년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30년의 격동기를 뚫고 흘러가는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이며, 한 건축가의 일대기이기도 하다. 속편 은하가 흐르는 개펄은 소설 마로니에의 주인공이 남긴 유고집 형식의 액자소설로 작가가 직접 촬영한 수십장의 개펄사진이 수록되어 무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왕자를 연상케하는 명상적이고 서정시적 분위기가 넘치고 있다. 집필에서 편집, 디자인, 제작, 발행 모두를 현역 건축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흥미롭다.

석진우지음/마로니에 각권 7천5백원, 은하가 흐르는 개펄 6천원/마로니에미디어 퍼블 (02-3142-7221)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iew

2000년 6월호

이번 호는 교통시설을 특
집으로 런던
의 Jubilee
Line의 신역
사와 독일의
버스 정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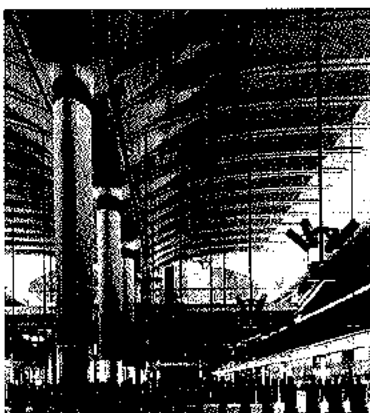


등을 다루었다. 또한 런던의 새로운 명
물이 되고 있는 육교 디자인과 런던
Royal Court 극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다루었다.

■ 교통시설

영국 런던의 새롭게 개통된 Jubilee
Line의 각 역을 집중 조명하였다. 영
국 현대 건축의 면모와 함께 지하건축
과 지하 교통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도
등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독일의 버스
터미널과 정거장 등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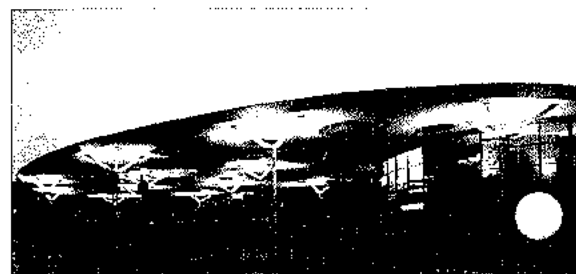
▶ Foster+Partners의 런던 Canary
Wharf 지하철 역사



West India Dock이 공원으로 다시
조성되고 그 지하에 이 역은 위치하고
있다. 역의 입구는 타원형의 글래스 덮
개로서 역을 외기로부터 보호하고 빛
은 더 깊숙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Jubilee Line의 시행자인 Paoletti의
기본 원칙은 승객자들의 명확한 동선
계획과 각 역마다 파블릭 스페이스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oster는 주어진 대지와 볼륨에서 효
율적인 동선체계를 명확하게 풀어내었
다. 일종의 미래적인 흥미진진함이 이
역을 통해 경험된다. 빛이 가득한 홀에
서의 수많은 에스컬레이터들이 승객들
을 포스터타운(Fosteritos) 글래스홀
에서부터 티켓홀까지 나르고 있다. 건
물의 보다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면 지
상에서 27m 아래에 플랫폼이 위치하
고 있다. 그 스케일은 차치하고라도 이
역에 있어서의 놀라운 그 구조체의
유려함과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사이의
긴장감에서 온다.

▶ Alford Hall Monaghan Morris
의 Walsall 버스 정거장



Alford Hall Monaghan Morris는
복잡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해결
하면서 단편화된 타운스케이프를 이해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능적이고 세련되게 해결하였다. 타
원형의 캐노피는 전혀 다른 도시의 영
역들을 통합하면서 버스 정거장의 강
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다. 타원
형은 차량 흐름의 질서를 반영하며, 실
물크기의 버스 라인 모델은 가장 효율
적인 레이아웃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
지의 남서쪽 코너에는 두 개층의 대합
실 건물이 있으며, 티켓홀과 사무실 등
이 위치한다.

그밖에 ▶ MacCormac Jamieson
Prichard의 Southwark 지하철역 ▶
Ian Ritchie의 Bermondsey 지하철
역 ▶ Michael Hopkins & Partners
의 Westminster 지하철역 ▶ Eva
Jircina Architects의 Canada Water
버스 정류장 ▶ Von Gerkan, Marg

& Partner의 베를린 Spandau 기차역 ▶ Silcher Werner+Redante의 Hamburg 버스터미널 ▶ Michael Culpepper and Greg Tew의 미국 Idaho 버스 정거장 등의 교통시설이 자세히 다뤄졌다.

■ Design Review - Hodder Associate의 육교

Manchester거리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있는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삼각형의 유리판과 스틸구조물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튜브의 양 끝에서 압축 링으로 지지하도록 하였다. 하중을 후프로 전달하는 1 빔 위에 목재 데크가 있으며, 데크 아래부분에 조명과 난방 설비가 위치한다.

■ Interior Design

▶ Haworth Tomkins의 런던 극장 1888년에 세워진 London Royal Court는 1956년 이래로 English Stage Company가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는 건물 노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어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 시행되었다. Haworth Tomkins는 발굴과 보존의 상상적인 결합으로 고고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그 외에 ▶ Saucier & Perrotte의 Montreal 뷰티 살롱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e

2000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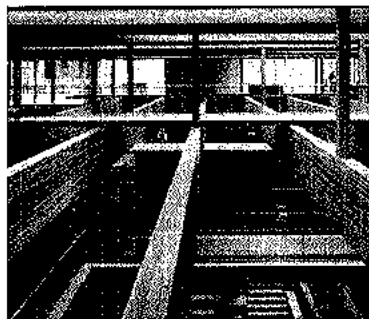
베니스 비엔날레의 건축부분 큐레이터인 Massimiliano Fuksas와의 인터뷰와 MoMA에 설치된 Shigeru Ban의 종이 구조물을 최근 소식

으로 다루었다. 특집으로 이론적인 건축탐구에서 그것을 실제 건축작업으로 실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 이론에서 실제로

급진적 성향의 지적 환경과 불경기의 1970년대는 야심찬 건축가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끌었다. Peter Eisenman은 thinktankmf 시작하였으며 Lebbeuse Woods는 도시의 묵시록에의 비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Diller+Scorfidio는 무대장치에서 설치작업까지 모든 스케일의 작업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바뀌었다. 호경기와 Modernism의 인기 그리고 디자인에서의 위함을 감수할 만한 교양있는 건축주 덕분에 건축가의 이론적 작업이 실제 건물로 옮겨지고 있다.

▶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Widden+Kennedy World 본사 사옥



광고회사를 위해 창고건물에서 복합적



인 내부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Diet Coke, Nike, Miller 맥주, Epson 등의 굵직한 광고만을 맡아왔던 이 회사는 큰 성장을 겪었고, 가족적인 집단에서 Community의 개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Plaza가 없었다. 새로운 사옥이 필요했고, Allied Works는 이들을 위해 1900년대에 지어진 창고건물의 내부에 vertical plaza를 제안했으며, 오디오리움과 meeting place를 위치시켰다. 그 밖에 건축가의 사고가 녹아있는 작품으로서 ▶ Della Valle+ Bernheimer의 샌프란시스코 Federal Plaza 랜드스케이프 ▶ Studio Works의 밀워키 몬테소리 학교 ▶ LWPAC의 Chile, 건축학교 스튜디오 등이 소개되었다.

■ Diller+Scorfidio의 Real Building

그들은 최근에 두 개의 건물을 완성했다. 뉴욕의 Seagram Building 내부에 있는 Brasserie 레스토랑과 일본 Gifu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서 이 작품들은 그들의 복합적이고 비 관습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들의 과거와 미래의 프로젝트를 함께 다루면서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작품을 재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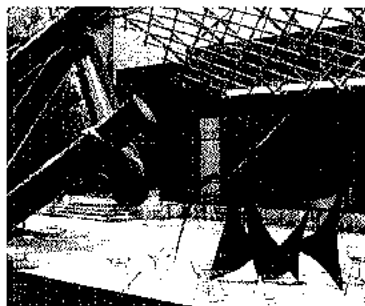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과 형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건물과 작품들은 그냥 받아들여졌던 일상의 관습들(식사에절과 같은)의 패턴을 드러내고 그러한 약속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작용들을 밝힌다. 건물은 단순히 우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며 움직이게 한다.

■ 기타

▶ 2000 베니스 비엔날레의 디렉터, Massimiliano Fuksas와의 인터뷰 도시이론가들이 city는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다고 주장하며 urban realm과 같은 단어를 선호하는 반면에 Funks는 "Citta(City)"를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 그는 그것이 megalopolis나 urban realm과 같은 단어를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소에 속해있는 고유 가치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 Shigeru Ban의 종이건축



MoMA의 안마당에 종이로 만든 막대를 엮은 기념비적인 folly가 만들어졌다. 습도가 높은 여름 날씨에 녹록해질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8inch 두께의 tube는 안쪽으로 방수처리가 되었다. 8월 1일까지 설치될 예정인 이 구조물은 Hannover Expo2000의 일본관에 쓰인 구조와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세워졌다 철거되는 속성 탓에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이 더욱 돋보인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7월호

Rem Koolhaas

ARCHITECTURAL
RECORD

의 최근 동향과

그의 건축관을

조명한 기사가

실렸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차

가운 성향의 네

델란드 건축과

감성적이며 뜨거

운 느낌의 스페인

건축의 동향을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작품

을 중심으로

살폈다. 건

축유형 연구로

는 공항으로서

쿠알라룸

푸르 국제공항,

산 디에고 공

항, 상하

이 국제 공항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 Rem Koolhaas와 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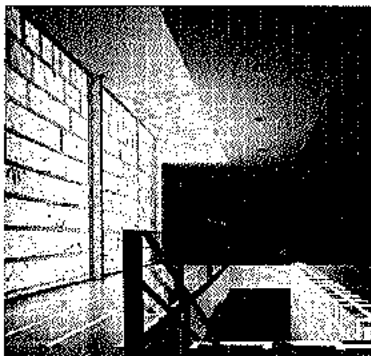
제 23회 Pritzker Architecture Prize를 수상한 Rem Koolhaas와 그의 일련의 작업들을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보다 건축적인 작업에서 거리를 두어 지어지지 않은 것의 잠재력에 집중하여 건축적인 컨설턴트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의 사무실, AMO를 만들었다. Schiphol 공항의 이전 프로젝트를 마케팅, 교통,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팀과 협업하여 작업하였다. 그들의 디자인 결과물은 단지 Schiphol 공항의 로고였다.

■ 스페인, 네델란드 현대건축

스페인과 네델란드의 건축은 유럽에서 아직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odernism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onreale, Calatrava 그리고 Koolhaas와 같은 Master뿐 아니라 젊은 건축가세대들은 게임의 법칙들을 바꿈과 변형시킨다. 여기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그러한 특징들에 의해 관심의 주목이 된다. 스페인과 네델란드의 건축의 차이점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면, 전자는 보다 조형적이고 형태적이며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네델란드의 건축은 도시계획과 생태적인 관심, 그리고 철저한 이성주의에 기반을 두어 Web상으로도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 Madridejos and Sancho의 마드리드, San Fernando de Heares 시청



이 건물은 유명한 바스크계 조각가 Eduardo Chillida가 차용한 방식인 "공간적 투사(spatial projection)"라는 방법으로 조적되었다. 속이 짙은 블록에 여러 가지 방향의 보이드로 내부가 비어지는 방법으로 Chillida는 그것을 각각의 다른 공간적 밀도라고 불렀다. Madridejos and Sancho는 기존 건물에 폐허로 남아있는 바로크 입면과 도시적 상황에 위와 같은 벡터적인 접근 방식으로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 건물은 두 개의 아누스적인 입면을 가지고 있다. 주 입구와 그 상부에 시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좌우대칭의 바로크적 입면과 깊은 보이드로 잘려나간 추상적 구성의 배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보이드로서 반투명한 오톱스와 그 뒤를 지지하는 투명한 유리는 발광하는 보이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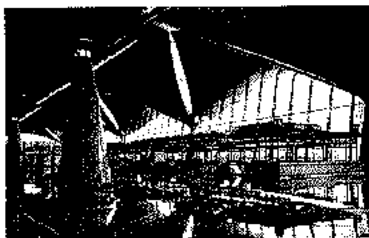
▶ MVRDV의 하노버 엑스포 2000의 네델란드관

"Holland Creates Space"라는 이 건물의 이름은 네델란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을 간척하여 꽃밭으로 일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지붕위의 프로펠러는 우수통에 고인 빗물을 식혀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며 발전을 한다. 그리고 지붕아래로 내려오는 물은 화장실의 플러쉬용물이나 식재된 나무들의 관개용수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하수들은 Biomass 필터를 거쳐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밖에 스페인의 현대건축으로 ▶ Manuel de las Casas의 스페인 Institute Hispano-Luso ▶ Emilio Tunon의 마드리드 실내수영장 ▶ Carme Pinos의 인도교동이 소개되었으며 네덜란드 건축으로는 ▶ Neutlings Reidijk의 네덜란드 Utrecht 대학 Minnaert Building ▶ Meyers & Van Schooten의 ING 은행 본사 등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 건축유형 연구 - 공항

▶ Kisho Kurokawa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 공항은 주로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메인터미널과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 탑승자를 위한 콘코스, 그리고 장거리 국제선 승객을 위한 별개의 터미널로 구성된다. 이 별도의 건물은 지하의 고속 컨베이어 벨트와 지상의 people mover train에 의해 메인터미널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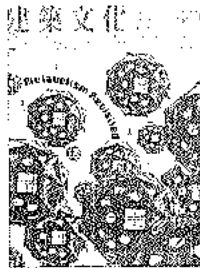
자연과 인공세계의 공생을 주장하는 일본 건축가 Kisho Kurokawa는 이 공항에서 열대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사이트는 한때 과수원으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숲속의 공항, 공항속의 숲이라는 메타포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 Gensler and SGPA의 San Diego 공항 ▶ Paul Andreu and Aeroports Paris의 Shanghai 국제공항 등이 분석되었다.

건축문화

2000년 8월호

이번 호에서는 '메타볼리즘 再考'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본 건축가들의 근작 6



개를 소개하고 있다. 특집기사에서는 야츠카 하지메(八束はじめ)와 이시자키 준이치(石崎順一)의 대담을 축으로 메타볼리즘이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재조명 해보고 있다.

■ 특집: 메타볼리즘 再考



▶ 다시 보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은 1960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디자인 대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이 회의에 맞추어 발간된 『METABOLISM/1960』에는 이들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다. 메타볼리즘 그룹은 결성 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1970년 오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거치면서 차츰 점점 그 열기를 잃어갔으나, 이들이 남긴 건축·도시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 사회적 이슈와 발전된 기술의 결합: 결성된 지 40년이 흐른 지금 평가하는 메타볼리즘은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 이들을 바라보던 시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좀 더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

한 이 시점에서 메타볼리즘의 의미를 역사적 배경, 사회적 영향력, 외국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해 짚어보려 하고 있다. 야츠카 하지메와 이시자키 준이치의 대담은 이러한 주제들을 축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대담자들은 메타볼리즘을 당시 일본이 처한 문제인 봉건적 부분들의 타파와 근대화,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기술의 사용이라는 문제와 접목시켜 이루어낸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바라보는 메타볼리즘에 대한 시각을 3편의 외국저자들의 에세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에세이는 Cherie Wendel-k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Metabolism」, Kok-meng Tan, 「SuperMetabolism, Mutant Metabolism in Singapore」, Alain Guiheuh, 「Architecture-Action and Metabolism」이다.

■ 작품



히로시마시립 基町고등학교

다음과 같은 6개의 최근작들이 소개되고 있다. ▶ 無有建築工房의 '六番町の 주택'은 주택의 설계자와 건축주가 함께 참석한 좌담회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요코가와 칸(横河健/横河設計工房)의 CESS・埼玉縣 환경과학국제센터는 층과 층 사이 설비배관 공간을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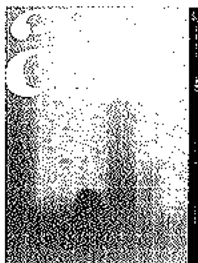
고 1.6m 정도로 여유있게 두어 변화해 가는 실험실의 설비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하라 히로시(原廣司)+아플리에 파이 건축연구소의 히로시마시립 基町고등학교는 가로변의 담장을 없애고 대신 가로에 면한 교사동을 2개층 높이만큼 필로티로 들어올려 경계를 짓는 한편 교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도시형 고등학교 건축의 한 예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커튼월을 사용한 입면처리, 중복도를 사용한 공간 배치 등은 도시형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渡部和生/惟建築計劃의 '빛의 풍광: 東村보건복지센터'는 개방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 다른 작품 '빛의 공간: 병원부속시설'도 소개되었다. 岡田哲史건축도시계획연구소의 '富士北麓의 집'은 흑색 목재의 외관과 백색의 내부공간이 대조를 이루며 미니멀한 형태와 공간구성이 보여지고 있다.

a+u

2000년 8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북구의 건축가들(Nordic Architects)'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활

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Carl-Viggo H Imebakk, Claesson Koivisto Rune 등 다소 생소한 작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북구 건축의 전통적 감수성인 간결하고 정제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 특집: 북구의 건축가들(Nordic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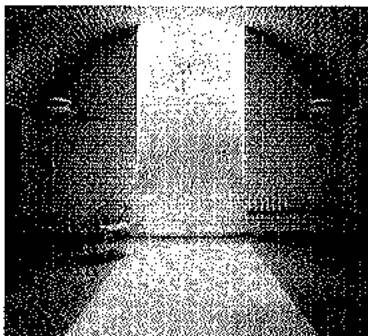
▶ 스웨덴의 감성: Ramus Wærn의 에세이 '스웨덴의 감성'에서는 북구의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되어온 미적 감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구의 기후 풍경 등의 자연환경 QNs만 아니라 중부 유럽에 비하여 부족한 천연자원들은 이를 통한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중부의 중세 건축이 귀족적이면서 화려한 모습을 지녔던 반면, 스웨덴의 건축은 목재로 이루어진 소박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북구의 심플한 미학으로 굳어졌으며, 이것이 북구의 자연과 어우러진 독특한 감수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 Carl-Viggo H Imebakk의 애스커(Asker)화장터 영안실은 간결하면서도 음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이며, Claesson Koivisto Rune는 그의 건축사무실, 전사용 주택, 젊은 비즈니스

맨을 위한 아파트먼트, 노 피크닉(No Picnic)산업디자인 스튜디오, 빌라 Wabi 등 5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초기 모더니즘적인 형태디자인, 흰색과 오렌지, 적색, 청색, 등을 병치하여 구성하는 신선한 색채사용, 미니멀한 공간에 목재의 인테리어를 조화시키는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로는 Mårten Claesson의 'Emotional Functionalism'이 게재되었다.

▶ Johan Celsing은 '여름별장과 스튜디오', 'Millesgården의 The New Art Gallery', '노벨 포럼(Nobel Forum)', '아트스케이프 노들랜드(Artscape Nordland)' 등 3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목재와 벽돌을 이용한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Millesgården의 The New Art Gallery는 초기모더니스트의 미술관 디자인을 연상시키면서도 목재로 완성되어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위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작가들과는 달리 핀란드의 Pirjo와 Matti Sanaksenaho는 곡선의 처리 풍부한 내부공간의 구성 등에서 알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은 'DESIGNER-Shop', '학생관(Students House)', Tammimäki의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애스커(Asker)화장터 영안실



Claesson Koivisto Rune, 전사용 주택

신건축

2000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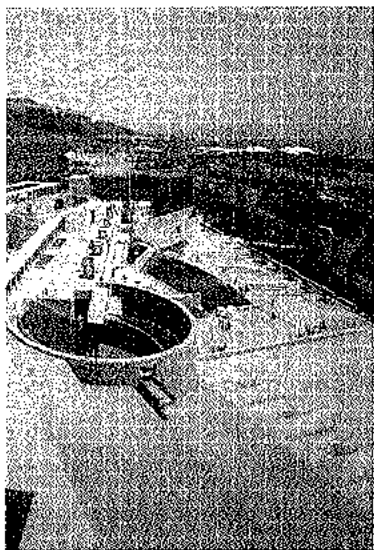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 소개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淡路夢舞臺)'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



다. 안도 타다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이 복합시설은 옛 석회석 채광장을 이용해 조성된 단지이다. 이외에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요코하마시 무츠카와 지역 케어플라자', 타카마츠 신(高松伸)의 '節勝町 종합 복지센터' 등이 소개 되었다.

■작품 소개

▶안도 타다오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淡路夢舞臺)'



아와지 유메부타이는 온실, 전망테라스와 레스토랑, 바다의 교회, 야외극장, 호텔, 국제회의장, 백단화(百段花) 정원, 貝의浜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이다. 과거 석회석 채광지였던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 프로젝트로, 모든 건물이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이루어

졌다. 바다를 향한 언덕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에 지형에 따라 축을 엮거리며 배치된 구성은 '빌라 아드리아나'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富永謙의 비평에서 지적되고 있다. 크고 작은 건물들로 구성된 이 복합시설에서 안도는 이것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어가고자 하고 있으며, 언덕으로 올라가며 백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화단이나, 건물군의 지붕위로 캐스케이드를 형성하며 조개모양을 짚어낸 연못에 이르는 물의 흐름 등은 과감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 부분의 구성은 기존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구성들로 되어 있으나 이들을 한데 엮어 랜스케이프에 대응하는 건물들의 혼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요코하마시 무츠카와 지역 케어플라자':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지가 주택지속의 북사면에 동서로 긴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가늘고 긴 건물의 형태는 이 부지조건에 비롯되었다. 작가는 건물을 일질(一質)의 분절 없이 단층의 단일 베스로 처리하는 과감한 구성을 채택하였으며, 가늘고 긴 건물은 내부에서 토막토막 그 기능에 의해 분절되

고 있다.

▶아마모토 리켄(山本理顕)의 히로시마 서부 소방서: 흰 색의 3차원 프레임에 적색의 육면체들을 띄워놓은 듯한 구성을 지닌 이 소방서는 그 건물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건물내의 기능들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다. 관람자를 위한 동선이 따로 계획되어 있으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공간과 벽을 관통하며 보여지게 된다.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夫)건축연구소의 동경대학 아요이 강당: 흑색 멀리언에 유리 커튼월, 미스의 크라운 홀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투명한 유리 너머로 목조의 구조체를 드러내고 있다. 2층 높이의 이 건물은 요즘 활발히 건축되고 있는 일본의 목구조 건축물로서, 바닥과 천장, 가구 등을 모두 목재로 처리하여 철제의 난간과 외벽 프레임과 대조를 이루어내고 있다.



동경대학 아요이 강당

도시계획법시행령(1)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대통령령제16,891호) 전문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기반시설)

①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전망탑,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철도·자동차정류장·광장·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 다. 보행자전용도로
 - 라. 자전거전용도로
 - 마. 고가도로
 - 바. 지하도로
2. 철도
 - 가. 일반철도
 - 나. 도시철도
 - 다. 고속철도
3. 자동차정류장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화물터미널
 - 다. 공영차고지
4. 광장
 - 가. 교통광장
 - 나. 미관광장
 - 다. 지하광장
 - 라. 건축물부설광장
5. 공원
 - 가. 어린이공원
 - 나. 근린공원
 - 다. 도시자연공원
 - 라. 묘지공원
 - 마. 체육공원
6. 녹지
 - 가. 원충녹지
 - 나. 경관녹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역시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중

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법 제3조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운하
6. 광장
7. 녹지
8. 공공공지
9. 수도
10. 공동구
11.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2. 하천
13. 유수지
14.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5. 방화설비
16. 방풍설비
17. 방수설비
18. 사방설비
19. 방조설비
20. 하수도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2.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5조(도시발전종합대책)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2.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육·안전·교통 및 경관분야를 말한다.

② 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

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

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기타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 ②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

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점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11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를 말한다.

제12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의 정비·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사항중 당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16조(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9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방의회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4.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

제20조(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계획총괄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1조(제안서의 처리절차)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도시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 나. 철도중 도시철도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라.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 마. 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바. 유통업무설비
 - 사. 학교중 대학
 - 아.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차.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

- 다)
 카. 회장장
 타. 공동묘지
 파. 폐기물처리시설
 하.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3조(도시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가.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쳐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향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된

공유수면이 향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및 향만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인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 생략
 -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나.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다.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라.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마.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

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제27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시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8조(도시계획의 재정비)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도

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30조(지구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

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제31조(시기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시기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관망탑,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2.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기반시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제33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①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분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연월일 및 공사준공예정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구의 수용)

①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 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동구의 관리)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지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 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37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38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을,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및 동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39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0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시범도시
2.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한국산업은행 본점사옥

Korea Development Bank
Headqua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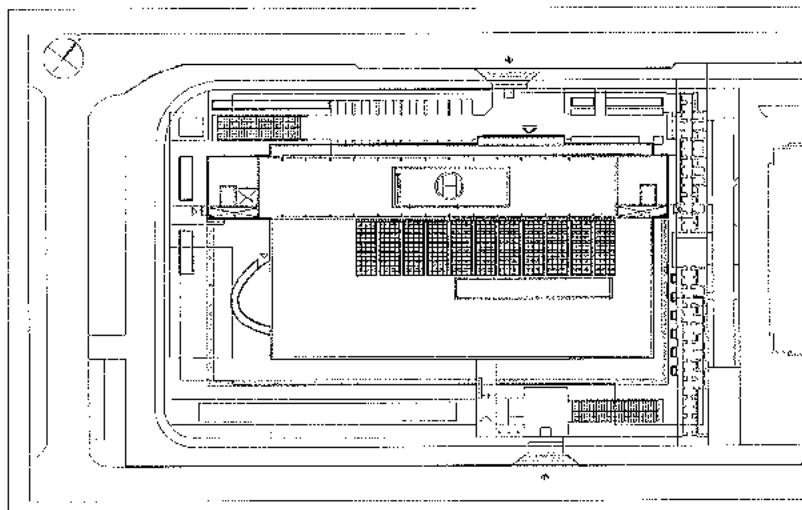
이영희 / 희림건축

이 프로젝트의 주된 디자인 방향은 은행에 적합한 이미지 창출과 주변 여건과의 조화에 있었으며, 대지의 정면에 위치한 여의도 광장이 주는 비어있는 공간의 거대한 스케일감 및 국회의사당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가 갖고 있는 규모에 따른 지루한 수평성, 후면에 위치한 업무시설군과 여의도 광장이 갖는 각각의 주출입구의 모호성 등의 해결이 주요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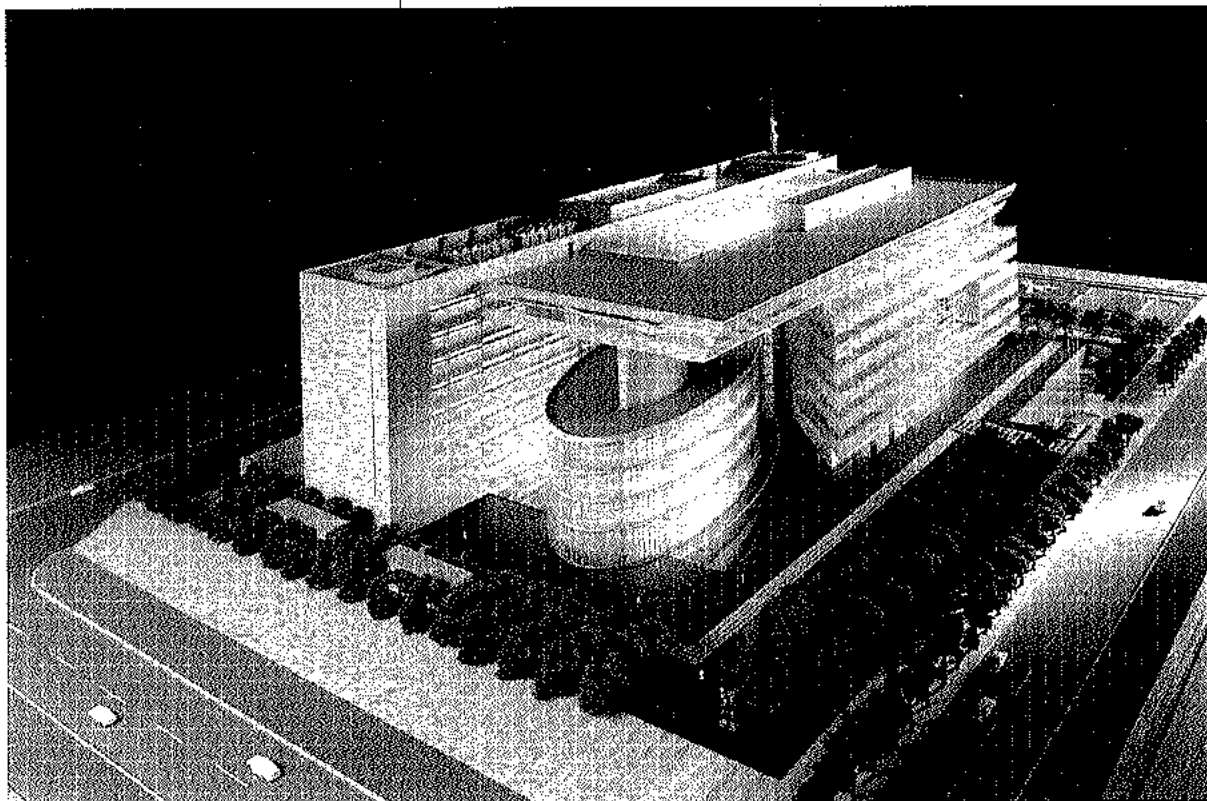
적정 규모의 요구면적과 높이제한은 자연스럽게 건물형태의 수평성을 강조하게 만들었고, 업무기능과 영업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를 갖는 3개의 건물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간의 연관성을 위하여 상호 연결통로를 각층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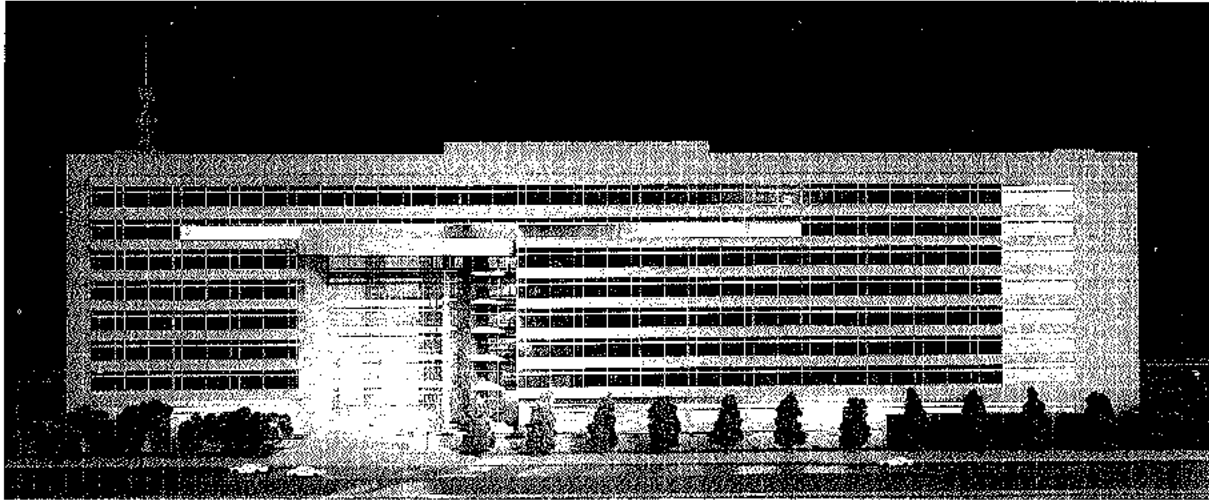
3개의 건물군이 일정한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내부에 상호긴장된 힘이 작용

하는 공간이 형성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투명한 유리외피로 아트리움을 형성하였으며, 각 건물의 출입구가 아트리움으로 모아짐으로써 커다란 공간이 주는 시원함과 쾌적함을 얻었다. 커다란 frame 역할을 하도록 정방형 매스를 후면에 배치하고 그 전면 한 측에 영업장 기능을 갖는 저층의 타원 건물을 설치했으며, 그 반대측에 미룸모꼴 형태를 위치시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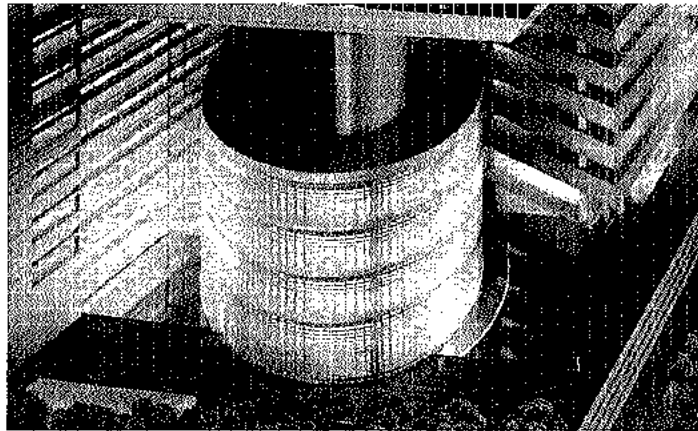
배치도





치의 방향성과 평면 기능의 조화, 입면상의 지루한 수평성을 3개 매스에 의한 리듬감으로 대처하였다.

입면 재료로는 건물 매스와 가장 적합하도록 커튼월과 스텐레스 스틸, 화강석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능에 따른 내부의 투명성 확보와 적절한 막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최상층에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자 경량재인 스텐레스 스틸을 사용하였다.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1종집단미관지구, 공용시설보호
지구, 최고고도지구(40m)

대지면적 21,468㎡

건축면적 9,311.3㎡

연면적 98,202㎡

건폐율 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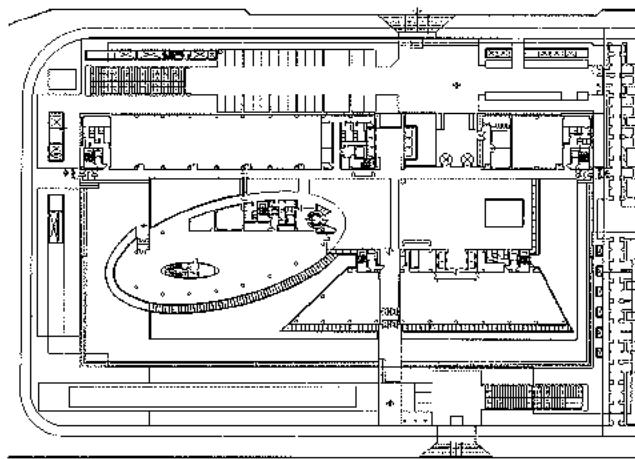
용적률 202.56%

규모 지하4층, 지상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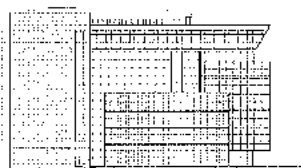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업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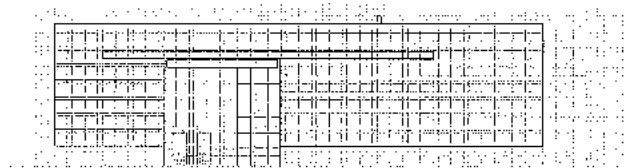
외장 THK30 화강석 버너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1층평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The Library of Seoul Industrial Univ.

서울산업대학교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주)일건종합건축(황일인/조성중)과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김환성/김종복) 공동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8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인원 수용의 한계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21세기 세계화, 정보

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정보화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착공예정이다.

▶ 당선작/(주)일건(황일인·조성중)+(주)유일(김환성·김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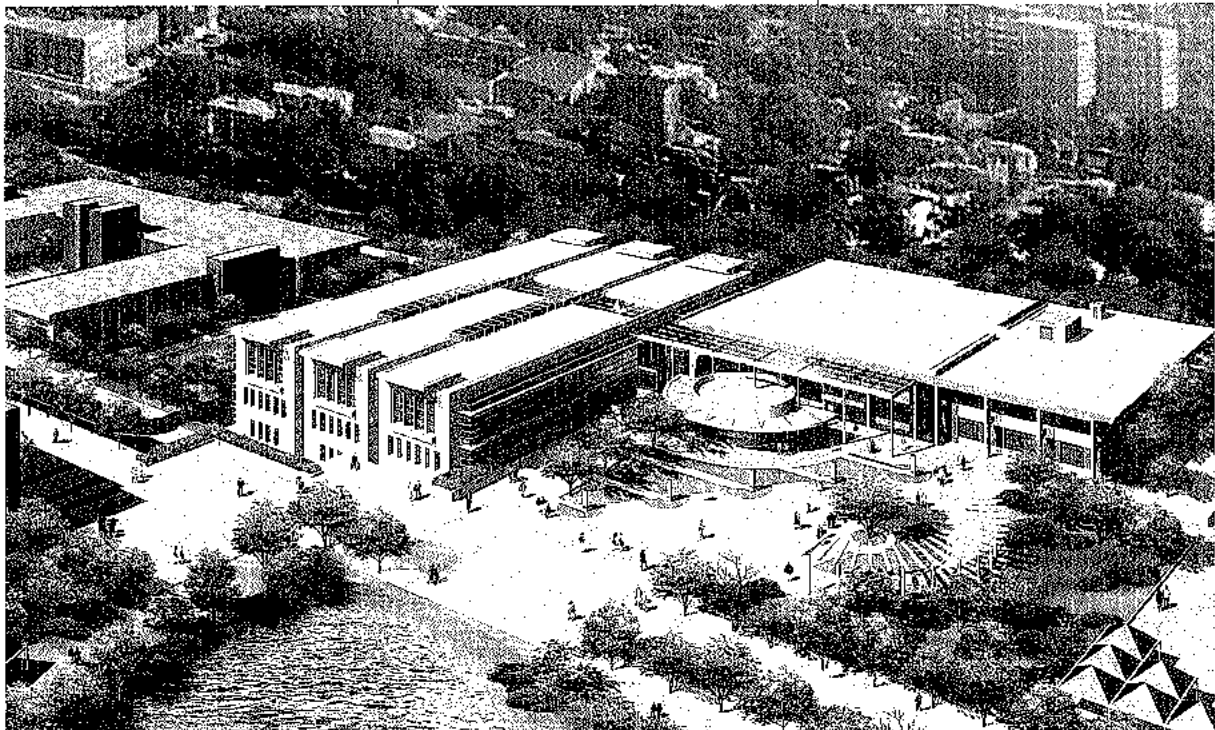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2 (학교내 노원구 하계동 78-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990m ²
건축면적	3,482m ²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차대수	옥외주차 63대 (법정:60대)
주요외장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설계참여	팀장 : 김성수 계획&설계 : 홍은경, 문병인, 박중수, 이원호, 문경파, 전인택, 이기배

마스터플랜환경분석

- 도서관, 학생회관, 연못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실공히 학생들의 캠퍼스 활동의 중심공간이다.
- 주변건물은 전자계산소와 학생회관이 연못의 동측에는 파워플랜트가 위치하고 있고, 언덕 위에는 교수회관이 자리잡고 있다.
- 도서관 주변은 남, 북 방향의 주 보행도로가 주축을 이루며, 연못, 넓은 잔디공지, 종합강의동, 위편 아산에 이르는 개방적인 옥외공간체계를 가지고 있다.
- 새로이 계획되고있는 마스터플랜상, 도서관 주변권역은 그 계획시설이 완공되면 대학 문화의 핵으로서의 역할이 예상된다.

배치계획

- 학교의 발전계획에 따라 기존 도서관의 남측에 신축될 건물을 배치하여 도서관 권역 발전계획을 충실히 반영
-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량과 보행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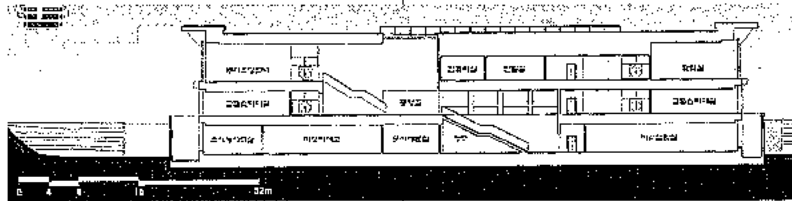
전경

은 명확히 구분되고, 신축될 도서관으로의 쉬운 접근이 확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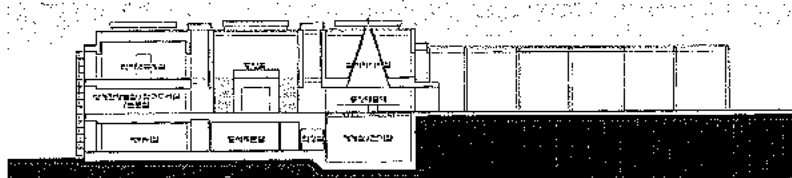
평면계획

- 책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3단 평면 구성
- 3개의 매스에서 공간의 효율을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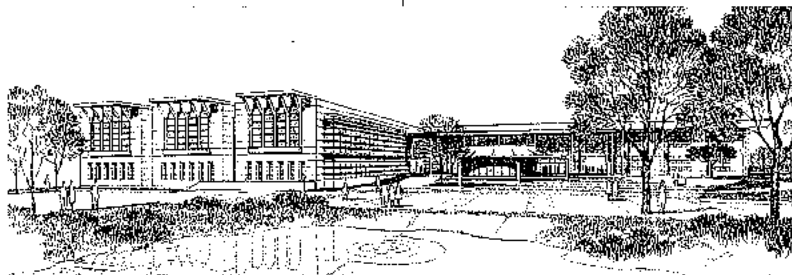
- 고 기능별로 탄력적인 공간 창출
- 도시형 대학에 부합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사용상의 다양성 구축
- 기능별 공간구성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효율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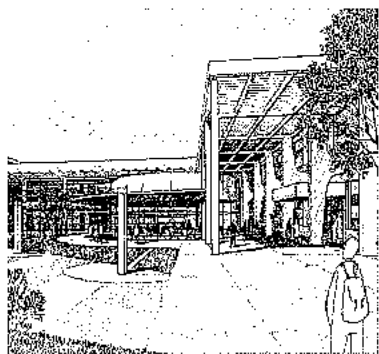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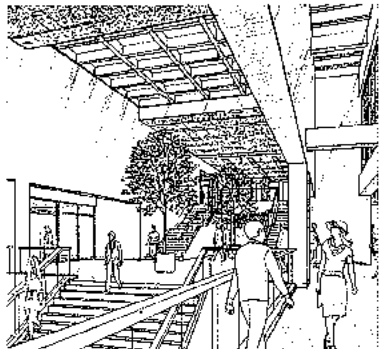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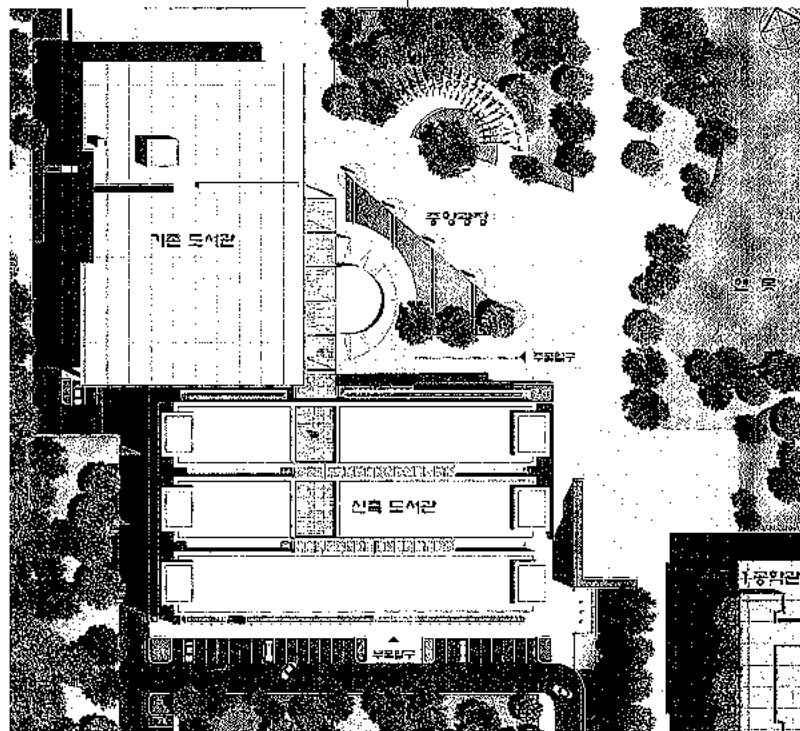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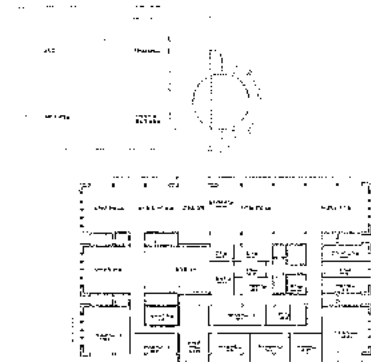
중양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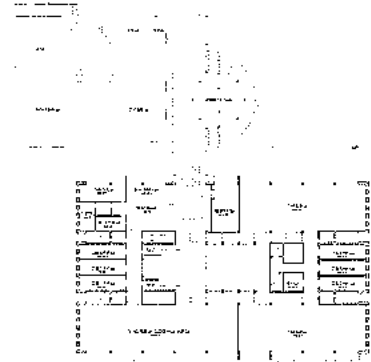
중양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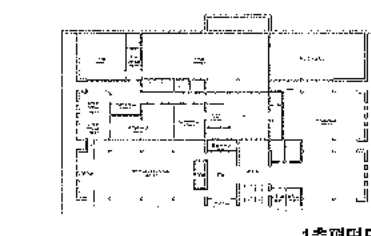
배치도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6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99.6) 6백4십4만3천9백8십3㎡ 보다 12.1%(7십8만2천3백4십2) 감소한 5백6십6만1천6백4십1㎡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 누계 2천6백9십만6천3백6십6㎡ 보다 26.1%(7백3만7백3십6) 증가한 3천3백9십3만7천1백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2000.5) 5백2십3만8천4백9십㎡ 보다 8.1%(4십2만3천1백5십1) 증가한 5백6십6만1천6백4십1㎡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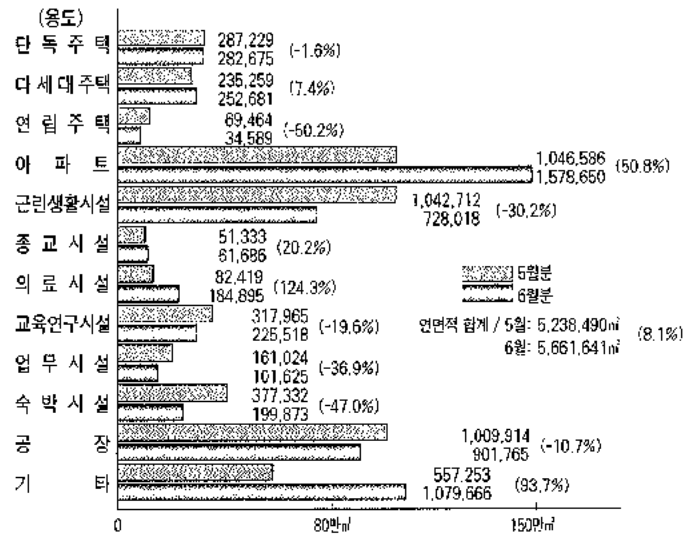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104,970	130,687	25,717	24.5
대 구	164,501	453,262	288,761	175.5
인 천	186,735	267,071	80,336	43.0
대 전	50,941	70,547	19,606	38.5
경 기	826,404	1,930,697	1,104,293	133.6
충 북	113,048	120,752	7,704	6.8
전 북	107,923	255,526	147,603	136.8
경 북	135,156	272,746	137,590	101.8
경 남	147,052	196,654	49,602	33.7
제 주	41,707	62,626	20,919	50.2
감소지역				
서 울	3,787,927	1,468,294	(2,319,633)	-61.2
광 주	190,471	119,936	(70,535)	-37.0
울 산	185,018	20,421	(164,597)	-89.0
강 원	73,401	71,824	(1,577)	-2.1
충 남	169,356	98,365	(70,991)	-41.9
전 남	159,373	122,233	(37,140)	-23.3
합 계	6,443,983	5,661,641	(782,342)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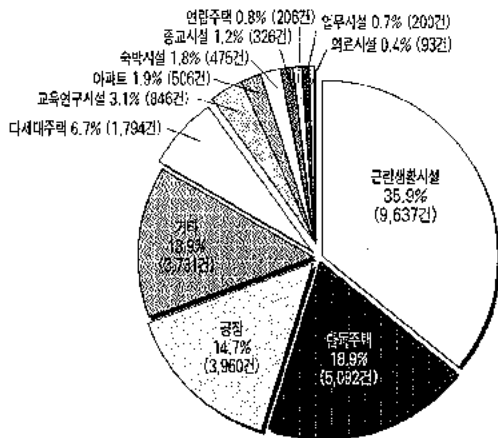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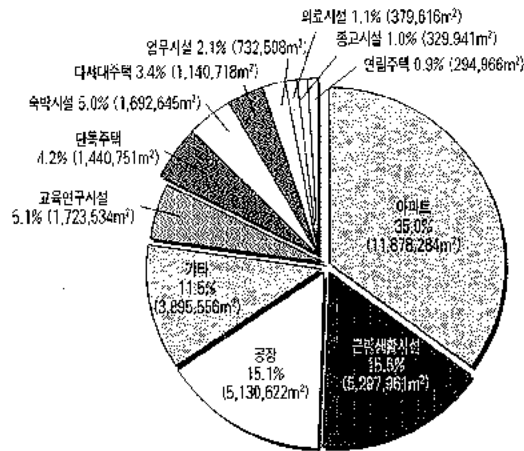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6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36	669	153,840	970	1,044	282,675	334	375	128,835	83.7	
다세대주택	146	182	112,596	408	414	252,681	262	252	140,085	124.4	
연립주택	35	39	68,875	23	23	34,589	(12)	(16)	(34,286)	-49.8	
아파트	69	117	3,577,632	97	220	1,578,650	28	103	(1,998,982)	-55.9	
근린생활시설	1,861	1,937	747,540	1,612	1,655	728,018	(249)	(282)	(19,522)	-2.6	
종교시설	102	112	88,642	64	67	61,686	(38)	(45)	(26,956)	-30.4	
의료시설	26	26	38,461	19	19	184,895	(7)	(7)	146,434	380.7	
교육연구시설	133	150	259,354	173	184	255,518	40	34	(3,836)	-1.5	
업무시설	37	50	180,378	57	56	101,625	20	6	(78,753)	-43.7	
숙박시설	62	63	69,512	86	95	199,873	24	32	130,361	187.5	
공장	574	721	570,469	576	697	901,765	2	(24)	331,296	58.1	
기타	710	800	576,684	857	1,096	1,079,666	147	296	502,982	87.2	
합 계	4,391	4,846	6,443,983	4,942	5,570	5,661,641	551	724	(782,342)	-12.1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6월 누계분)



건수 (총 26,866건)



연면적 (총 33,937,102㎡)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6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521	522	3,787,927	546	546	1,468,294	25	24	(2,319,633)	-61.2	
부산	109	157	104,970	122	169	130,687	13	12	25,717	24.5	
대구	237	237	164,501	294	294	453,262	57	57	288,761	175.5	
인천	163	163	186,735	344	344	267,071	181	181	80,336	43.0	
광주	208	249	190,471	198	239	119,936	(10)	(10)	(70,535)	-37.0	
대전	93	93	50,941	137	136	70,547	44	43	19,606	38.5	
울산	124	132	185,018	50	50	20,421	(74)	(82)	(164,597)	-89.0	
경기	1,007	1,198	826,404	1,485	1,814	1,930,697	478	616	1,104,293	133.6	
강원	241	266	73,401	168	182	71,824	(73)	(84)	(1,577)	-2.1	
충북	227	255	113,048	270	320	120,752	43	65	7,704	6.8	
충남	273	273	169,356	213	213	98,365	(60)	(60)	(70,991)	-41.9	
전북	243	250	107,923	265	265	255,526	22	15	147,603	136.8	
전남	353	367	159,373	193	201	122,233	(160)	(166)	(37,140)	-23.3	
경북	211	245	135,156	250	336	272,746	39	91	137,590	101.8	
경남	282	328	147,052	289	332	196,654	7	4	49,602	33.7	
제주	99	111	41,707	118	129	62,626	19	18	20,919	50.2	
합계	4,391	4,846	6,443,983	4,942	5,570	5,661,641	551	724	(782,342)	-12.1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6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148	2,153	14,793,802	2,947	2,982	12,264,296	799	829	(2,529,506)	-17.1	
부산	839	1,160	812,244	990	1,450	1,441,693	151	290	629,449	77.5	
대구	853	853	618,730	1,134	1,134	1,323,933	281	281	705,203	114.0	
인천	677	696	1,223,739	1,584	1,584	1,651,291	907	888	427,552	34.9	
광주	736	861	500,062	655	826	562,068	(81)	(35)	62,006	12.4	
대전	499	499	294,440	775	774	676,960	276	275	382,520	129.9	
울산	603	616	412,195	652	652	450,038	49	36	37,843	9.2	
경기	4,016	4,958	3,757,253	7,916	9,632	8,857,757	3,900	4,674	5,100,504	135.8	
강원	980	1,077	354,581	1,067	1,157	526,308	87	80	171,727	48.4	
충북	1,191	1,368	782,548	1,682	1,926	1,194,173	491	558	411,625	52.6	
충남	1,099	1,099	605,274	1,194	1,194	674,647	95	95	69,373	11.5	
전북	756	770	384,725	992	996	757,412	236	226	372,687	96.9	
전남	1,095	1,136	499,619	1,153	1,188	746,211	58	52	246,592	49.4	
경북	1,114	1,298	801,171	1,367	1,674	959,997	253	376	158,826	19.8	
경남	1,487	1,706	887,065	2,119	2,547	1,512,109	632	841	625,044	70.5	
제주	477	536	178,918	639	700	338,209	162	164	159,291	89.0	
합계	18,570	20,786	26,906,336	26,866	30,416	33,937,102	8,296	9,630	7,030,736	26.1	()=마이너스